

2021년 이슈페이퍼 모음집

# 2021 KICCE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차례

[2021 이슈페이퍼 모음집]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KICCE(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 PART 01

### 유치원·어린이집

- ◆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원장의 인식과 실행 및 정책과제 ..... 3
- ◆ 유아관찰업을 활용한 교사의 관찰기록 역량 지원 방안 ..... 29
- ◆ 영유아 부모의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과 어린이집 이용 시간 ..... 47
- ◆ 어린이집 맞춤형 다문화 보육 지원 방안 ..... 69

## PART 02

### 지역사회·직장의 양육 지원

- ◆ 직장 내 육아문화 진단과 과제 ..... 91
- ◆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 119

PART 03

**포용적 육아 지원**

- ◆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지원 요구 분석 및 지원방안 ..... 139

PART 04

**중국 영유아 부모**

- ◆ 저출생 시대, 중국 영유아 부모의 한국 육아용품 구매 경험과 선호 ..... 161



PART

# 01

## 유치원·어린이집

-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원장의 인식과 실행 및 정책과제  
김은영
- 유아관찰업을 활용한 교사의 관찰기록 역량 지원 방안  
강은진·배윤진
- 영유아 부모의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과 어린이집 이용 시간  
최효미
- 어린이집 맞춤형 다문화 보육지원 방안  
박은정



| 이슈페이퍼 2021-01 |

#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원장의 인식과 실행 및 정책과제

김은영

1. 배경 및 문제 제기
  2.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원장의 인식 및 실행
  3.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정책 수혜 여부 및 지원 요구
  4. 정책과제
- 참고문헌



# 「2019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원장의 인식과 실행 및 정책과제\*

김은영 선임연구위원

## ◆◆ 요약 ◆◆

-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 교사, 원장(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의 역할과 리더십이 중요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의 효능감은 모든 항목에서 평균 3.3점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직무수행에 대한 인식 역시 긍정적으로 나타남.
- 원장의 87.7%는 개정 누리과정 관련 연수를 받았으며, 23.1%는 개정 누리과정 관련 장학이나 컨설팅을 받았음.
-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기관의 변화에 대해 ‘교사의 역할 변화(36.4%)’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원장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는 ‘유아 및 놀이에 대한 관점 등 교육철학의 변화(47.4%)’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기관장으로서의 역할 변화(29.9%)’임.
-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는 19.2%이며, 정부지원사업 수혜 중 연수 및 컨설팅을 받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기관 차원의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은 ‘관련 정보나 자료 제공(68.7%)’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원내 자율장학(66.4%)’, ‘원내 멘토링(46.4%)’, ‘동아리나 소모임(34.3%)’ 순임.
-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 1순위는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다(28.3%)’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놀이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부족(26.8%)’임.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의 1순위 또한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33.1%)’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교사교육 강화(27.0%)’로 나타남.
- 이상의 결과에 따라, 원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와 컨설팅 및 학습공동체 지원과 개정 누리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확대, 지자체의 행정지원 및 기관 차원의 자구 노력 등의 정책 방안을 제안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의 일반과제인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Ⅰ)(김은영·구자연·김혜진·차기주, 2020)”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여 정리한 것임.

## 1 배경 및 문제 제기

### 가. 국정과제에 따른 누리과정 개정

-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50번에 ‘학생 중심 교육과정 개정’을 명시함.
- 이러한 국정 방향에 따라 교육부는, 2017년 12월 ‘유아교육혁신방안’에 ‘유아 중심, 놀이 중심’ 누리과정 개정 방향을 제시함.
- 정부의 국정과제와 교육부의 유아교육정책에 따라 2019년 7월 24일에 「2019 개정 누리과정」<sup>1)</sup>이 고시되었고, 2020년 3월부터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함.

### 나. 교육과정 운영에서 원장 리더십의 중요성

-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 교사, 원장(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서, 이에 대한 권한의 비중이 점차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의 역할과 리더십이 더욱 중요해짐.
  - ◆ 유치원 원장의 역할은 유치원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유치원의 유아를 교육하는 것이며(유아교육법 제21조 제1항), 어린이집 원장의 역할은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하는 것임(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
  - ◆ 유치원은 다른 교육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작고 인간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원장의 역할이 더욱 강조됨(최서영, 2014: 16-17).
  - ◆ ‘교사의 자율성 강화’는 개정 누리과정의 개정 방향 중 하나이므로, 교육과정 운영에서 교사의 자율성을 지원하는 원장의 리더십이 매우 중요함.
- 원장이 교육과정 리더십을 원만히 수행하려면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지녀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 ◆ 원장의 역할은 교직원·교사들과 원만한 상호작용을 주고받으며, 체계적이고 일관된

1) 이하, 「2019 개정 누리과정」을 ‘개정 누리과정’으로 기술함.

교육철학을 갖고, 융통성 있는 운영과 통찰력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임(배현수, 2017: 21).

- ◆ 원장이 교육과정에 관한 리더십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원장이란 위치가 유치원 교육과정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임(배현수, 2017: 35).
  - ◆ Kleine과 Kracht(1993)에 의하며, 성공적인 수업지도성을 발휘하는 교장은 교사들로 하여금 전문가로 인정받고, 학교 내 풍토를 변화시켜 일상을 피하고 개혁을 장려하는 성공적인 기대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함(윤창근, 2009: 35, 재인용).
  - ◆ 사립유치원 원장의 교육과정 리더십 인식과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 수준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배현수, 2017: 84).
- 이러한 맥락에서 본고에서는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원장의 인식과 실행,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정책 수혜 및 지원요구를 살펴보고, 이에 기초하여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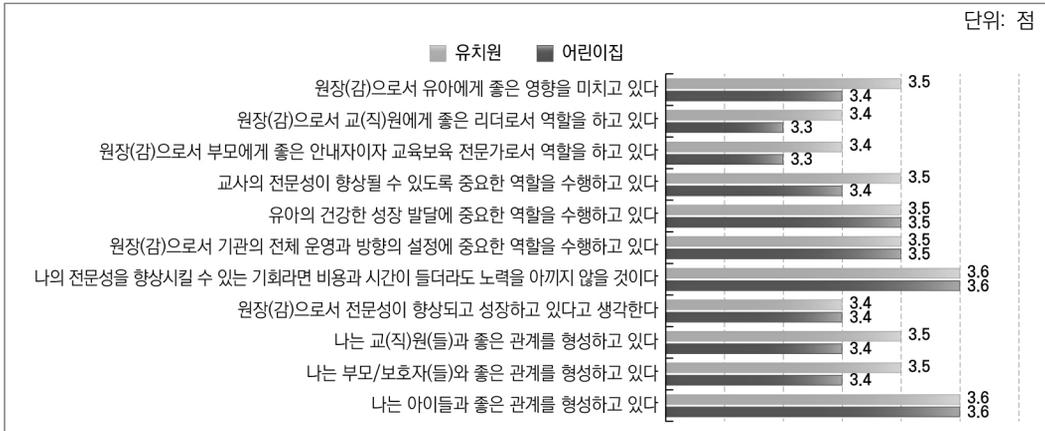
## 2

###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원장의 인식 및 실행<sup>2)</sup>

#### 가.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위한 원장의 효능감 및 직무 인식

- 전반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의 효능감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모두 ‘나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라면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와 ‘나는 아이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에 대한 점수가 평균 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원장(감)으로서 교(직)원에게 좋은 리더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와 ‘원장(감)으로서 학부모에게 좋은 안내자이자 교육보육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가 평균 3.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2) 본 설문조사는 2020년에 전국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각 500명씩 총 1,000명의 응답을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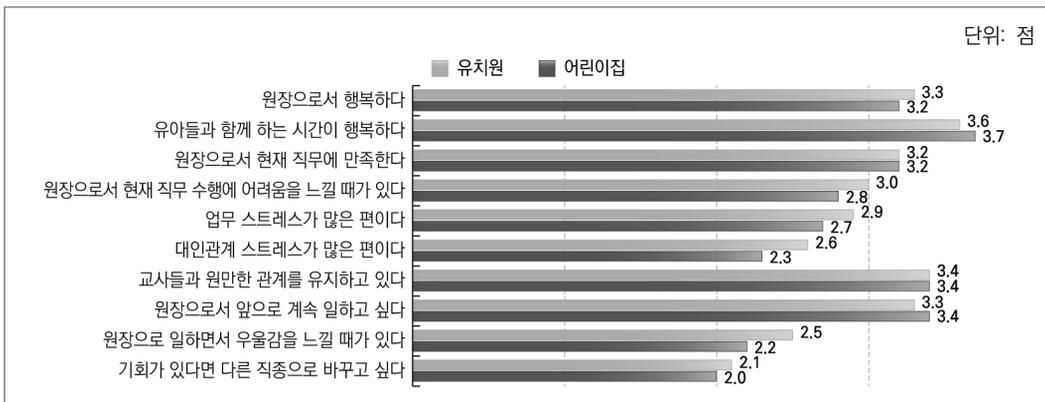
[그림 1] 원장(감)의 효능감에 대한 인식

주: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

자료: 김은영 외(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Ⅰ). 육아정책연구소. p.211.

직무수행에 대한 원장의 인식을 살펴보면, 긍정적인 인식이 부정적인 인식보다 높았으며, 긍정적인 인식은 어린이집 원장이 상대적으로 높았음(그림 2 참고).

- ‘유아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행복하다’의 평균 점수는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각각 3.6점, 3.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다’ 2.6점, 2.3점, ‘원장으로 일하면서 우울감을 느낄 때가 있다’ 2.5점, 2.2점, ‘기회가 있다면 다른 직종으로 바꾸고 싶다’ 2.2점, 2.0점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낮음을 알 수 있음.



[그림 2] 직무수행에 대한 원장의 인식

주: 4점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 4. 매우 그렇다)

자료: 김은영 외(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Ⅰ). 육아정책연구소. p.214.

### 나. 개정 누리과정 관련 연수나 컨설팅 경험

- 응답자의 87.7%는 개정 누리과정 연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 소속기관에 따라 유치원에서, 어린이집 설립유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기관 규모에 따라 100인 이상 기관에서, 최초자격취득기관이 2~3년제 대학일 경우, 컨설팅 경험에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연수를 받은 비율이 높음.

〈표 1〉 개정 누리과정 관련 연수 이수 여부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87.7	12.3	100.0 ( 1,000)
소속기관			
유치원	93.8	6.2	100.0 ( 500)
어린이집	81.5	18.5	100.0 ( 500)
<i>X<sup>2</sup>(df)</i>	34.495(1)***		
어린이집 설립유형			
국공립	90.3	9.7	100.0 ( 124)
사회복지법인, 단체 등	79.4	20.6	100.0 ( 119)
민간	77.0	23.0	100.0 ( 195)
직장	82.3	17.7	100.0 ( 62)
<i>X<sup>2</sup>(df)</i>	9.390(3)*		
기관 규모			
50인 미만	77.7	22.3	100.0 ( 346)
50~100인 미만	89.6	10.4	100.0 ( 378)
100인 이상	97.5	2.5	100.0 ( 276)
<i>X<sup>2</sup>(df)</i>	57.552(2)***		
최초 자격 취득 기관			
보육교사교육원	74.5	25.5	100.0 ( 70)
2~3년제 대학	91.9	8.1	100.0 ( 296)
4년제 대학	85.8	14.2	100.0 ( 242)
대학원	88.6	11.4	100.0 ( 294)
그 외(사이버대학 등)	86.7	13.3	100.0 ( 97)
<i>X<sup>2</sup>(df)</i>	17.653(4)**		
컨설팅 경험 여부			
있음	96.4	3.6	100.0 ( 213)
없음	85.3	14.7	100.0 ( 787)
<i>X<sup>2</sup>(df)</i>	18.501(1)***		

자료: '김은영 외(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Ⅰ). 육아정책연구소.'의 원장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배경특성에 따라 재분석함.

\*  $p < .05$ , \*\*  $p < .01$ , \*\*\*  $p < .001$ .

- 연수를 받지 못한 이유를 살펴보면, ‘시간부족(31.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연수 신청이 어렵다(27.6%)’는 그 다음으로 많았음.
- ◆ 통계적 차이검증이 어려우나, 유치원은 ‘시간 부족’으로 연수를 이수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반면, 어린이집은 ‘연수 신청이 어렵다’는 응답이 가장 많이 나타남.
- ◆ 면지역, 100인 이상, 경력 5년 미만인 경우에 ‘시간부족’이, 어린이집, 대도시, 50~100인 미만, 경력 5년 이상인 경우에 ‘신청의 어려움’이, 유치원, 중소도시, 50인 미만, 경력 10년 이상인 경우에 ‘정보부족’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2〉 연수를 이수하지 못한 이유

단위: %(명)

구분	시간 부족	신청이 어려움	정보 부족	기타	계(수)
전체	31.4	27.6	13.9	27.0	100.0 (123)
소속기관					
유치원	50.7	4.5	15.1	29.7	100.0 ( 31)
어린이집	25.0	35.3	13.6	26.1	100.0 ( 92)
지역					
대도시	24.6	34.3	10.2	30.9	100.0 ( 45)
중소도시	24.6	28.9	22.9	23.7	100.0 ( 47)
읍/면	51.8	15.9	5.9	26.4	100.0 ( 31)
기관 규모					
50인 미만	33.8	24.4	18.5	23.2	100.0 ( 77)
50~100인 미만	24.4	36.2	5.0	34.4	100.0 ( 39)
100인 이상	44.4	14.5	13.8	27.3	100.0 ( 7)
경력					
5년 미만	38.2	18.8	12.1	30.9	100.0 ( 53)
5~10년 미만	24.5	34.5	3.3	37.7	100.0 ( 29)
10년 이상	27.6	34.2	23.5	14.8	100.0 ( 42)

주: 배경별 셀 빈도가 충족 되지 않아, 차이검증이 불가함.  
 자료: ‘김은영 외(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Ⅰ). 육아정책연구소.’의 원장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배경특성에 따라 재분석함.

- 개정 누리과정 관련 장학이나 컨설팅을 받은 경험은 23.1%로 받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음.
- ◆ 소속기관에 따라 유치원, 유치원 설립유형에 따라 공립단설유치원, 지역에 따라 읍면

지역 최초자격취득기관에 따라 대학원, 컨설턴트 경험이 있는 경우 장학이나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3〉 개정 누리과정 관련 장학이나 컨설팅을 받은 경험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23.1	76.9	100.0 (1,000)
소속기관			
유치원	30.8	69.2	100.0 ( 500)
어린이집	15.3	84.7	100.0 ( 500)
<i>X<sup>2</sup>(df)</i>	34.353(1)***		
유치원 설립유형			
공립단설	53.6	46.4	100.0 ( 61)
공립병설	34.4	65.6	100.0 ( 198)
사립법인	30.9	69.1	100.0 ( 71)
사립개인	18.4	81.6	100.0 ( 170)
<i>X<sup>2</sup>(df)</i>	29.295(3)***		
지역			
대도시	25.9	74.1	100.0 ( 351)
중소도시	17.8	82.2	100.0 ( 399)
읍/면	27.5	72.5	100.0 ( 250)
<i>X<sup>2</sup>(df)</i>	10.750(2)**		
최초 자격 취득 기관			
보육교사교육원	18.6	81.4	100.0 ( 70)
2~3년제 대학	18.3	81.7	100.0 ( 296)
4년제 대학	25.5	74.5	100.0 ( 242)
대학원	30.1	69.9	100.0 ( 294)
그 외	13.2	86.8	100.0 ( 97)
<i>X<sup>2</sup>(df)</i>	18.984(4)***		
컨설턴트 경험 여부			
있음	46.1	53.9	100.0 (213)
없음	16.8	83.2	100.0 (787)
<i>X<sup>2</sup>(df)</i>	80.712(1)***		

자료: '김은영 외(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1). 육아정책연구소.'의 원장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배경특성에 따라 재분석함.

\*\*  $p < .01$ , \*\*\*  $p < .001$ .

### 다.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변화 인식

-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기관의 변화를 살펴보면, ‘교사의 역할 변화’가 36.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문서의 변화’ 34.7%, ‘물리적 환경의 변화’ 12.0%, ‘하루일과의 변화’ 10.8% 순임.
- ◆ 통계상 차이검증이 어려우나 수치상으로 살펴보면, 유치원, 대도시와 읍면지역, 50인 미만, 기타 프로그램 원장경력 5년 미만, 보육교사교육원 출신, 기타 전공에서 변화가 없다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남.

〈표 4〉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변화: 기관

단위: %(명)

구분	교사의 역할 변화	계획안, 평가 양식 등 문서의 변화	물리적 환경의 변화	하루 일과의 변화	조직 문화의 변화	기타	변화 없음	계(수)
전체	36.4	34.7	12.0	10.8	2.8	0.2	3.3	100.0(1,000)
소속기관								
유치원	31.3	35.8	12.7	14.1	2.4	0.2	3.4	100.0( 500)
어린이집	41.4	33.5	11.2	7.4	3.1	0.2	3.1	100.0( 500)
지역								
대도시	31.3	41.1	11.5	10.1	2.4	0.3	3.4	100.0( 351)
중소도시	37.6	33.4	14.5	8.3	2.9	0.3	3.1	100.0( 399)
읍/면	41.6	27.6	8.6	15.7	3.1	0.0	3.4	100.0( 250)
기관 규모								
50인 미만	42.9	29.7	10.0	11.2	1.7	0.0	4.5	100.0( 346)
50~100인 미만	36.9	30.6	15.3	12.1	2.8	0.0	2.4	100.0( 378)
100인 이상	27.3	46.3	10.0	8.6	4.2	0.7	2.8	100.0( 276)
프로그램								
일반	37.3	34.1	12.3	10.5	2.7	0.2	2.8	100.0( 801)
몬테소리	25.2	44.5	8.9	19.7	1.7	0.0	0.0	100.0( 41)
그 외(레지오 등)	34.5	35.0	10.8	9.8	3.7	0.0	6.3	100.0( 158)
경력								
5년 미만	34.1	31.2	15.0	13.2	2.4	0.5	3.6	100.0( 376)
5~10년 미만	40.2	35.4	10.4	9.0	2.1	0.0	3.0	100.0( 229)
10년 이상	36.3	37.5	10.0	9.5	3.6	0.0	3.1	100.0( 395)

구분	교사의 역할 변화	계획안, 평가 양식 등 문서의 변화	물리적 환경의 변화	하루 일과의 변화	조직 문화의 변화	기타	변화 없음	계(수)
최초 자격 취득 기관								
보육교사교육원	46.4	32.8	10.3	4.1	1.4	0.0	5.1	100.0( 70)
2~3년제 대학	33.7	37.0	10.9	13.2	2.8	0.0	2.4	100.0( 296)
4년제 대학	37.3	33.0	13.4	8.6	3.2	0.8	3.7	100.0( 242)
대학원	35.1	36.1	12.9	10.3	2.4	0.0	3.2	100.0( 294)
그 외(사이버대학 등)	38.6	28.6	10.0	15.3	3.9	0.0	3.6	100.0( 97)
전공								
유아교육학	34.5	36.6	12.1	11.1	2.7	0.2	2.8	100.0( 803)
보육학	35.5	30.5	13.9	3.9	8.0	0.0	8.2	100.0( 24)
아동학	36.5	36.6	6.8	9.8	5.1	0.0	5.0	100.0( 58)
아동복지학	45.9	28.6	14.1	10.0	1.4	0.0	0.0	100.0( 70)
기타	55.3	9.5	12.1	10.9	0.0	0.0	12.2	100.0( 45)

주: 배경별 셀 빈도가 충족 되지 않아, 차이검증이 불가함.  
 자료: '김은영 외(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1). 육아정책연구소.'의 원장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배경특성에 따라 재분석함.

-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원장(감)의 변화는 ‘유아 및 놀이에 대한 관점 등 교육철학’이라는 응답이 47.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기관장으로서의 역할’ 29.9%로 나타남.
- ◆ 통계상 차이검증이 어려우나 수치상으로 살펴보면, 어린이집, 대도시, 50~100인 미만, 몬테소리, 경력 10년 이상, 4년제대학 출신일 경우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표 5〉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한 변화: 원장(감)

단위: %(명)

구분	교육 철학	기관장 역할	유아와의 관계	업무 시간 분배	학부모와의 관계	리더십 유형	교사와의 관계	기타	변화 없음	계(수)
전체	47.4	29.9	6.7	2.2	2.2	2.2	2.0	0.3	7.1	100.0(1,000)
소속기관										
유치원	48.8	28.3	9.2	1.1	1.4	2.7	1.9	0.0	6.5	100.0( 500)
어린이집	46.0	31.4	4.3	3.3	2.9	1.8	2.0	0.7	7.7	100.0( 500)
지역										
대도시	44.4	29.4	6.0	3.8	3.0	2.6	2.8	0.3	7.7	100.0( 351)

구분	교육 철학	기관장 역할	유아 와의 관계	업무 시간 분배	학부모 와의 관계	리더십 유형	교사 와의 관계	기타	변화 없음	계(수)
중소도시	46.3	34.1	6.2	0.9	1.1	2.5	1.5	0.3	7.0	100.0( 399)
읍/면	53.3	23.7	8.7	2.1	2.5	1.4	1.5	0.4	6.4	100.0( 250)
기관 규모										
50인 미만	48.7	26.7	9.6	1.9	3.3	1.5	0.9	0.0	7.4	100.0( 346)
50~100인 미만	50.3	25.5	6.5	2.5	2.4	2.3	2.1	0.9	7.7	100.0( 378)
100인 이상	41.8	39.9	3.6	2.2	0.4	3.2	3.2	0.0	5.9	100.0( 276)
프로그램										
일반	47.4	29.4	7.5	2.1	2.5	2.0	1.9	0.1	7.1	100.0( 801)
몬테소리	35.9	39.1	5.4	0.0	1.3	5.2	4.2	0.0	8.9	100.0( 41)
그 외 (레지오 등)	50.3	29.7	3.1	3.5	0.6	2.7	2.0	1.5	6.6	100.0( 158)
경력										
5년 미만	51.9	24.5	10.9	0.8	0.8	2.6	1.9	0.0	6.8	100.0( 376)
5~10년 미만	44.5	35.8	3.7	2.5	2.9	2.9	2.0	0.0	5.8	100.0( 229)
10년 이상	44.9	31.6	4.6	3.3	3.1	1.5	2.1	0.8	8.1	100.0( 395)
최초 자격 취득 기관										
보육교사교육원	51.6	30.2	1.4	0.0	8.2	0.0	2.9	0.0	5.7	100.0( 70)
2~3년제 대학	48.2	32.6	5.3	2.2	2.2	2.9	1.0	0.0	5.7	100.0( 296)
4년제 대학	45.9	28.7	10.3	1.1	1.0	2.0	1.7	0.4	8.9	100.0( 242)
대학원	46.3	27.5	6.9	3.6	2.1	2.8	2.7	0.3	7.7	100.0( 294)
그 외	49.0	31.2	5.6	2.1	0.9	1.0	2.9	1.4	5.9	100.0( 97)

주: 배경별 셀 빈도가 충족 되지 않아, 차이검증이 불가함.

자료: '김은영 외(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1). 육아정책연구소.'의 원장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배경특성에 따라 재분석함.

### 3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정책 수혜 여부 및 지원 요구

#### 가. 개정 누리과정 운영 관련 정책 수혜 여부 및 기관 차원의 노력

-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는 19.2%로 나타나, 5개 기관 중 1개 기관이 재정 지원을 받은 것이라 볼 수 있음.
- ◆ 유치원, 공립단설유치원, 읍면지역, 몬테소리 프로그램, 경력 5년 미만, 컨설팅 경험이 있는 경우에 재정지원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표 6〉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수혜 여부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19.2	80.8	100.0 (1,000)
소속기관			
유치원	28.9	71.1	100.0 ( 500)
어린이집	9.4	90.6	100.0 ( 500)
	$X^2(df)$		60.892(1)***
유치원 설립유형			
공립단설	41.3	58.7	100.0 ( 61)
공립병설	32.4	67.6	100.0 ( 198)
사립법인	37.6	62.4	100.0 ( 71)
사립개인	16.7	83.3	100.0 ( 170)
	$X^2(df)$		21.166(3)***
지역			
대도시	14.3	85.7	100.0 ( 351)
중소도시	17.4	82.6	100.0 ( 399)
읍/면	28.8	71.2	100.0 ( 250)
	$X^2(df)$		21.420(2)***
프로그램			
일반	18.3	81.7	100.0 ( 801)
몬테소리	34.8	65.2	100.0 ( 41)
그 외	19.7	80.3	100.0 ( 158)
	$X^2(df)$		6.43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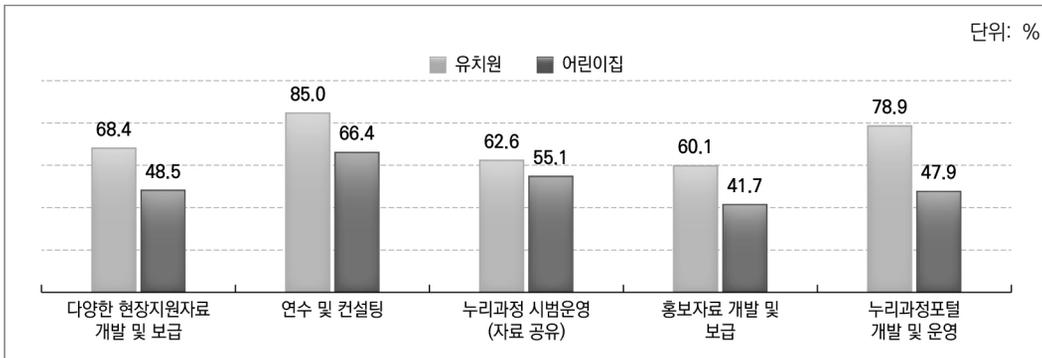
구분	있음	없음	계(수)
경력			
5년 미만	24.3	75.7	100.0 ( 376)
5~10년 미만	13.6	86.4	100.0 ( 229)
10년 이상	17.5	82.5	100.0 ( 395)
$X^2(df)$	11.554(2)**		
컨설턴트 경험 여부			
있음	27.9	72.1	100.0 ( 213)
없음	16.8	83.2	100.0 ( 787)
$X^2(df)$	13.773(1)***		

자료: '김은영 외(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Ⅰ). 육아정책연구소.'의 원장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배경특성에 따라 재분석함.

\*  $p < .05$ , \*\*  $p < .01$ , \*\*\*  $p < .001$ .

■ 정부지원사업 수혜 중 ‘연수 및 컨설팅’을 받았다는 응답이 유치원 85.0%, 어린이집 66.4%로 가장 많았음.

◆ 그 다음으로 유치원의 경우, ‘누리과정 포털 개발 및 운영’의 수혜를 받았다는 응답이 78.9%로 많았던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 시범운영 사업’의 수혜를 받았다는 응답이 55.1%로 많았음.



[그림 3] 정부지원사업에 대한 수혜 여부

자료: 김은영 외(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Ⅰ). 육아정책연구소. p.226.

■ 개정 누리과정 실천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지원한 것을 조사한 결과, ‘놀이자료 지원’이 6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서류 간소화’ 58.6%, ‘교사 전문성 지원’ 53.3%, ‘실내놀이 환경 개선’ 43.3% 순으로 나타남.

- ◆ 유치원은 ‘실외놀이터 재구성’이나 ‘실내놀이 환경 개선’을 지원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 어린이집은 ‘교수자료 구입’을 지원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 지역에 따라 대도시나 중소도시가 ‘놀이자료’ 지원이나 ‘서류 간소화’ 지원이 많았던 반면, 읍면지역은 ‘실외놀이터 재구성’이나 ‘실내놀이 환경 개선’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기관 규모에 따라 규모가 커질수록 ‘실외놀이터 재구성’과 ‘실내놀이 환경 개선’, ‘교사 전문성’을 지원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서류 간소화’를 지원했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음.
- ◆ 원장의 최초 자격취득기관이 보육교사교육원일 경우 ‘교수자료구입’ 지원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지원 비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 원장의 경력이 낮을 때 오히려 많은 항목에서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컨설턴트 경험이 있을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7〉 개정 누리과정 실천을 위한 기관 차원의 지원 (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놀이 자료 지원	서류 간소화	교사 전문성 지원	실내 놀이 환경 개선	교수 자료 구입	학부모 대상 홍보 및 교육	실외 놀이터 재구성	타 환경 개선 (데크 등)	기타	(수)
전체	64.8	58.6	53.3	43.3	38.2	29.6	17.4	9.2	0.2	(1,000)
소속기관										
유치원	64.5	62.8	54.7	48.2	30.2	32.2	27.6	11.2	0.0	(500)
어린이집	65.0	54.5	52.0	38.3	46.2	27.0	7.3	7.1	0.5	(500)
지역										
대도시	66.2	64.3	57.7	42.2	37.4	30.4	14.2	10.3	0.0	(351)
중소도시	67.0	58.0	51.4	41.8	40.2	28.8	14.1	6.0	0.6	(399)
읍/면	59.3	51.7	50.4	47.0	36.3	29.6	27.2	12.7	0.0	(250)
기관 규모										
50인 미만	57.4	48.3	41.4	38.2	34.9	22.5	13.0	10.0	0.4	(346)
50~100인 미만	68.8	58.6	55.2	41.6	44.1	30.3	18.9	9.1	0.3	(378)
100인 이상	68.5	71.5	65.7	51.9	34.3	37.5	21.0	8.4	0.0	(276)

구분	놀이 자료 지원	서류 간소화	교사 전문성 지원	실내 놀이 환경 개선	교수 자료 구입	학부모 대상 홍보 및 교육	실외 놀이터 재구성	타 환경 개선 (데크 등)	기타	(수)
경력										
5년 미만	67.0	61.5	53.3	49.8	37.2	32.0	23.9	8.9	0.0	(376)
5~10년 미만	66.7	59.9	55.1	36.3	38.0	28.2	13.7	8.3	1.0	(229)
10년 이상	61.6	55.1	52.3	41.0	39.3	28.1	13.4	10.0	0.0	(395)
최초 자격 취득 기관										
보육교사교육원	61.5	50.8	45.2	35.1	47.6	26.5	7.5	5.8	0.0	( 70)
2~3년제 대학	66.3	63.4	56.3	45.3	41.8	29.9	18.6	5.9	0.0	(296)
4년제 대학	61.6	57.4	46.3	43.1	26.0	26.5	17.7	11.3	0.5	(242)
대학원	65.1	59.9	58.5	41.9	43.0	33.6	17.6	11.7	0.0	(294)
그 외	69.4	48.9	52.1	47.5	36.6	26.3	19.8	8.8	1.0	( 97)
컨설턴트 경험 여부										
있음	69.9	57.5	68.0	50.3	40.8	43.2	29.9	12.3	0.0	(213)
없음	63.4	58.9	49.4	41.3	37.5	25.9	14.1	8.3	0.3	(787)

자료: '김은영 외(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1). 육아정책연구소.'의 원장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배경특성에 따라 재분석함.

-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지원 중 '관련 정보나 자료 제공'이 68.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원내 자율장학' 66.4%, '원내 멘토링' 46.4%, '동아리나 소모임' 34.3% 순으로 나타남.
  - ◆ 소속기관에 따라서는 '관련 정보나 자료 제공', '외부연수나 재교육'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유치원의 지원 비율이 더 높았으며, 특히 '동아리나 소모임' 지원 비율은 3배 정도 차이가 남.
  - ◆ 유치원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외부연수나 재교육'을 제외하고 모든 항목에서 공립단설 유치원의 지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동아리나 소모임' 지원에 있어서 사립개인유치원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남.
  - ◆ 어린이집 설립유형에 따라서는 '동아리나 소모임', '원내자율장학', '원내멘토링', '외부연수나 재교육'에 대한 지원은 직장어린이집에서 가장 많이 수행하였으며, 민간은 '타기관 참관' 지원이 상대적으로 많았음.

- ◆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일수록 ‘동아리나 소모임’ 지원을, 대도시일수록 ‘원내 자율장학’, ‘외부연수나 재교육’을 더 많이 지원하였음.
- ◆ 기관 규모에 따라서는 규모가 클수록 거의 모든 항목에서 지원 비율이 높아졌으며, 특히 ‘강사초빙 원내연수’에서 지원 비율 차이가 컸음.
- ◆ 원장 경력에 따라서는 ‘동아리나 소모임’, ‘원내 멘토링’, ‘강사초빙 원내연수’는 경력 5년 미만인, ‘원내 자율장학’, ‘관련 정보나 자료 제공’, ‘외부 연수나 재교육’은 경력 10년 이상이 상대적으로 지원 비율이 높았음.
- ◆ 최초 자격취득 기관에 따라서는 보육교사교육원 출신 원장이 ‘관련 정보나 자료 제공’, ‘외부연수나 재교육’ 지원 비율은 가장 높았던 반면, ‘동아리나 소모임’, ‘원내자율장학’, ‘원내 멘토링’, ‘강사초빙 원내연수’ 지원 비율은 가장 낮게 나타남.
- ◆ 컨설턴트 경험이 있는 경우 ‘관련 정보나 자료 제공’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남.

〈표 8〉 교사 전문성을 위한 기관 차원의 지원 (복수응답)

단위: %(명)

구분	관련 정보나 자료 제공	원내 자율 장학	원내 멘토링	동아리나 소모임	외부 연수, 재교육	강사초빙 원내 연수	외부 전문가 컨설팅	타 기관 참관	기타	(수)
전체	68.7	66.4	46.4	34.3	31.7	19.7	18.1	11.4	1.0	(533)
소속기관										
유치원	58.9	70.5	48.8	51.2	25.6	27.8	19.8	15.8	0.9	(273)
어린이집	78.9	62.0	43.9	16.6	38.2	11.2	16.4	6.7	1.2	(260)
유치원 설립유형										
공립단설	68.7	81.9	55.6	88.5	37.3	56.9	46.2	37.3	3.2	( 57)
공립병설	41.3	55.7	36.9	68.9	15.8	19.9	9.6	12.1	0.0	( 93)
사립법인	66.8	76.3	45.9	28.9	45.6	27.7	22.8	8.2	0.0	( 36)
사립개인	68.1	76.3	58.2	17.2	19.9	17.3	12.1	8.9	0.6	( 87)
어린이집 설립유형										
국공립	70.6	62.4	44.7	17.6	47.1	8.2	18.8	3.5	3.5	( 85)
사회복지법인 단체 등	84.4	60.1	42.5	11.2	29.5	13.8	11.0	6.1	0.0	( 49)
민간	81.9	54.5	38.6	10.2	28.3	13.6	17.1	11.4	0.0	( 84)
직장	83.3	78.6	54.8	33.3	50.0	9.5	16.7	4.8	0.0	( 42)

구분	관련 정보나 자료 제공	원내 자율 장학	원내 멘토링	동아리나 소모임	외부 연수, 재교육	강사초빙 원내 연수	외부 전문가 컨설팅	타 기관 참관	기타	(수)
지역										
대도시	71.5	71.4	48.3	26.7	39.6	15.3	19.8	12.8	0.8	(202)
중소도시	71.7	67.9	49.1	34.2	30.9	20.6	17.8	11.3	0.5	(205)
읍/면	59.1	55.6	39.0	46.7	20.3	25.5	16.1	9.3	2.2	(126)
기관 규모										
50인 미만	63.7	49.3	38.4	29.6	30.5	10.0	14.3	10.2	2.1	(143)
50~100인 미만	69.8	66.3	43.3	28.2	27.2	16.1	15.3	8.2	0.0	(209)
100인 이상	71.3	79.9	56.3	45.1	37.9	31.6	24.4	16.1	1.3	(181)
경력										
5년 미만	65.0	67.7	51.3	47.2	31.1	22.5	18.6	12.0	1.4	(201)
5~10년 미만	69.1	60.3	41.3	32.0	29.6	15.1	16.1	13.2	1.2	(126)
10년 이상	72.0	68.7	44.8	23.1	33.6	19.9	18.9	9.7	0.5	(206)
최초 자격 취득 기관										
보육교사교육원	90.5	57.7	24.0	6.8	37.3	6.0	20.5	6.7	0.0	( 32)
2~3년제 대학	74.4	63.9	47.7	32.4	30.9	22.7	17.0	11.0	2.3	(167)
4년제 대학	65.8	67.8	46.6	44.0	28.0	11.1	14.0	12.1	0.0	(112)
대학원	60.0	68.8	46.1	36.2	33.7	23.5	22.9	12.1	0.3	(172)
그 외	71.8	68.5	56.9	29.6	32.3	24.9	13.4	11.7	2.0	( 51)
컨설턴트 경험 여부										
있음	61.7	78.7	49.2	53.7	32.1	29.4	30.7	14.7	0.0	(145)
없음	71.3	61.8	45.4	27.1	31.5	16.1	13.5	10.2	1.4	(388)

자료: '김은영 외(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1). 육아정책연구소.'의 원장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배경특성에 따라 재분석함.

## 나.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과 정책 지원 요구

■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 1순위는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다'는 응답이 28.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놀이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부족' 26.8%, '물리적 환경의 열악함' 7.6%,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7.4% 순으로 나타남.

- ◆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다'는 응답은 유치원, 공립단설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대도시, 100인 이상, 일반 프로그램, 경력 5년 미만, 대학원 출신, 컨설턴트 경험이 있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 ◆ ‘놀이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어린이집, 공립단설유치원, 직장 어린이집, 읍면지역, 50인 미만, 레지오에밀리아 등 프로그램, 경력 10년 이상, 사이버 대학 등 출신, 컨설턴트 경험이 없을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많았음.

〈표 9〉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 : 1순위

단위: %(명)

구분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음	놀이에 대한 이해 전문성 부족	학부 모의 이해 부족	물리적 환경이 열악함	개정 누리 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기관 고유 프로그램과의 조화	자율 적인 운영을 위한 자료 부족	문서 작성 및 관리	부가 적인 업무 부담 및 시간 부족	초등 학교 교육 과정과 의 연계	기관 평가 대비	기타	계(수)
전체	28.3	26.8	7.9	7.6	7.4	6.5	4.8	4.7	4.4	0.9	0.6	0.1	100.0(1,000)
소속기관													
유치원	36.0	20.9	7.6	6.2	5.3	8.1	4.1	5.9	5.2	0.5	0.2	0.1	100.0( 500)
어린이집	20.6	32.6	8.1	9.1	9.6	4.9	5.5	3.6	3.7	1.4	1.0	0.0	100.0( 500)
유치원 설립유형													
공립단설	52.6	31.3	4.7	1.8	0.0	0.0	3.9	3.6	2.1	0.0	0.0	0.0	100.0( 61)
공립병설	42.4	16.3	8.9	7.0	5.2	3.2	4.0	5.8	7.2	0.0	0.0	0.0	100.0( 198)
사립법인	41.8	18.3	2.8	8.3	2.7	16.2	5.0	5.0	0.0	0.0	0.0	0.0	100.0( 71)
사립개인	20.1	23.6	9.2	5.9	8.4	13.3	3.9	7.1	6.2	1.4	0.6	0.3	100.0( 170)
어린이집 설립유형													
국공립	31.5	31.5	12.9	7.3	7.3	2.4	1.6	4.0	1.6	0.0	0.0	0.0	100.0( 124)
사회복지법인, 단체 등	20.0	31.0	5.8	12.7	10.1	5.0	7.4	3.6	1.4	1.9	1.1	0.0	100.0( 119)
민간	17.1	32.5	6.4	9.3	12.7	7.3	4.4	3.4	3.4	1.5	1.9	0.0	100.0( 195)
직장	11.3	38.7	8.1	4.8	3.2	1.6	12.9	3.2	12.9	3.2	0.0	0.0	100.0( 62)
지역													
대도시	32.3	24.6	6.5	8.9	6.9	6.8	3.6	3.9	4.7	1.0	0.5	0.2	100.0( 351)
중소도시	28.4	27.6	7.8	6.3	8.2	7.1	5.6	4.3	2.4	1.5	0.8	0.0	100.0( 399)
읍/면	22.6	28.4	9.8	7.9	6.9	5.0	5.2	6.6	7.2	0.0	0.4	0.0	100.0( 250)
기관 규모													
50인 미만	15.7	30.5	9.8	10.7	8.5	5.2	4.9	6.9	6.2	1.3	0.3	0.0	100.0( 346)
50~100인 미만	32.5	25.3	7.3	7.3	7.4	6.8	5.1	3.1	3.8	0.5	0.8	0.0	100.0( 378)
100인 이상	38.4	24.0	6.2	4.1	6.2	7.7	4.1	4.3	3.0	1.1	0.7	0.2	100.0( 276)
프로그램													
일반	30.1	26.4	8.2	7.7	7.3	4.8	4.9	4.9	4.4	0.8	0.5	0.1	100.0( 801)
몬테소리	28.5	26.0	2.7	3.0	4.0	28.6	0.0	3.3	1.7	2.3	0.0	0.0	100.0( 41)
그 외 (레지오 등)	19.4	28.6	7.3	8.4	9.1	9.3	5.5	4.3	5.4	1.3	1.4	0.0	100.0( 158)

구분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음	놀이에 대한 이해 전문성 부족	학부 모의 이해 부족	물리적 환경이 열악함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	기관 고유 프로그램과의 조화	자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료 부족	문서 작성 및 관리	부가적인 업무 부담 및 시간 부족	초등학교 교육 과정과의 연계	기관 평가 대비	기타	계(수)
<b>경력</b>													
5년 미만	35.6	22.3	6.0	7.6	6.9	6.3	6.0	3.9	4.2	0.8	0.5	0.0	100.0( 376)
5~10년 미만	28.1	25.6	10.7	6.0	6.7	5.9	4.8	6.7	3.7	1.1	0.4	0.2	100.0( 229)
10년 이상	21.4	31.7	8.0	8.6	8.4	6.9	3.6	4.4	5.1	1.0	0.8	0.0	100.0( 395)
<b>최초 자격 취득 기관</b>													
보육교사교육원	20.4	30.6	10.5	13.4	5.5	4.1	5.6	4.8	3.7	1.4	0.0	0.0	100.0( 70)
2~3년제 대학	28.4	23.9	6.8	5.8	8.5	10.5	6.7	5.7	2.7	0.5	0.3	0.0	100.0( 296)
4년제 대학	30.6	23.5	8.0	8.4	7.2	3.4	4.1	5.2	7.8	1.6	0.4	0.0	100.0( 242)
대학원	30.7	29.0	7.1	7.1	8.1	5.0	4.3	2.4	4.1	0.5	1.4	0.2	100.0( 294)
그 외	20.7	34.0	11.1	8.6	4.0	8.1	1.4	7.7	2.8	1.7	0.0	0.0	100.0( 97)
<b>컨설턴트 경험 여부</b>													
있음	35.0	25.2	8.1	5.8	5.1	6.5	3.5	2.8	7.2	0.3	0.4	0.0	100.0( 213)
없음	26.5	27.2	7.8	8.1	8.1	6.5	5.1	5.3	3.7	1.1	0.7	0.1	100.0( 787)

주: 배경별 셀 빈도가 충족 되지 않아, 차이검증이 불가함.

자료: '김은영 외(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1)'. 육아정책연구소.'의 원장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배경특성에 따라 재분석함.

■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의 1순위로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이라는 응답이 33.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교사교육 강화’ 27.0%, ‘실내외 환경 개선 지원’ 11.5% 순이었음.

- ◆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에 대한 요구는 유치원, 공립병설유치원, 국공립어린이집, 대도시, 50~100인 미만, 일반 프로그램, 경력 5년 미만, 4년제 대학 출신, 컨설턴트 경험이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음.
- ◆ ‘교사교육 강화’에 대한 요구는 어린이집, 공립단설유치원, 직장어린이집, 읍면지역, 100인 이상, 레지오에밀리아 등 프로그램, 경력 5~10년 미만, 보육교사교육원 출신, 컨설턴트 경험이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음.
- ◆ ‘실내외 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요구는 유치원, 사립법인유치원, 민간어린이집, 중소도시, 50인 미만, 몬테소리 프로그램, 경력 10년 이상, 사이버대학 등 출신, 컨설턴트 경험이 없는 경우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음.

〈표 10〉 개정 누리과정 안착을 위한 정책 : 1순위

단위: %(명)

구분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	교사 교육 강화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실내외 환경 개선 지원	문서 등 행정 관리 간소화	보조 인력 지원	「2019 개정 누리과정」 홍보 강화	기관 평가 지표 및 방법 개선	누리 과정 포털 활성화	기타	계(수)
전체	33.1	27.0	12.0	11.5	5.3	4.1	2.9	2.5	1.5	0.2	100.0 (1,000)
소속기관											
유치원	34.4	22.5	11.3	11.6	7.7	5.9	2.1	2.0	2.3	0.1	100.0 ( 500)
어린이집	31.8	31.5	12.7	11.3	2.9	2.4	3.7	2.9	0.6	0.3	100.0 ( 500)
유치원 설립유형											
공립단설	44.4	34.6	8.6	4.7	3.0	0.0	3.0	1.8	0.0	0.0	100.0 ( 61)
공립병설	49.1	12.8	5.7	10.1	12.8	1.5	2.9	1.7	3.5	0.0	100.0 ( 198)
사립법인	27.5	22.9	12.5	14.7	2.7	12.8	0.0	4.5	2.5	0.0	100.0 ( 71)
사립개인	16.6	29.2	18.4	14.5	5.6	10.2	1.7	1.5	1.8	0.4	100.0 ( 170)
어린이집 설립유형											
국공립	49.2	28.2	8.9	7.3	1.6	1.6	1.6	0.8	0.8	0.0	100.0 ( 124)
사회복지법인, 단체 등	36.4	28.3	14.9	10.2	1.5	1.8	3.2	2.5	0.0	1.1	100.0 ( 119)
민간	16.7	33.3	14.4	17.1	5.4	2.9	5.4	3.9	1.0	0.0	100.0 ( 195)
직장	35.5	38.7	11.3	3.2	0.0	3.2	3.2	4.8	0.0	0.0	100.0 ( 62)
지역											
대도시	39.0	24.7	12.2	8.8	2.9	6.2	3.1	2.0	1.1	0.0	100.0 ( 351)
중소도시	32.4	28.0	11.9	12.9	5.6	3.2	2.2	3.1	0.2	0.5	100.0 ( 399)
읍/면	25.9	28.6	12.1	12.8	8.1	2.8	3.6	2.2	4.0	0.0	100.0 ( 250)
기관 규모											
50인 미만	28.4	27.5	10.6	12.6	8.0	3.1	4.2	3.4	2.3	0.0	100.0 ( 346)
50~100인 미만	39.8	23.9	13.7	9.7	3.8	3.7	1.9	2.0	1.1	0.3	100.0 ( 378)
100인 이상	29.9	30.5	11.5	12.4	3.9	6.0	2.5	2.0	0.9	0.3	100.0 ( 276)
프로그램2											
일반	35.4	26.6	11.3	10.6	5.5	4.1	3.0	2.3	1.1	0.1	100.0 ( 801)
몬테소리	27.7	22.0	19.7	18.3	1.7	5.7	0.0	2.5	2.5	0.0	100.0 ( 41)
그 외	22.7	30.3	13.8	14.1	5.1	4.0	2.9	3.3	3.0	0.8	100.0 ( 158)
경력											
5년 미만	40.7	21.4	11.6	10.5	6.2	3.4	3.8	2.0	0.4	0.0	100.0 ( 376)
5~10년 미만	27.3	33.1	11.5	10.4	6.9	3.3	2.6	3.0	1.5	0.3	100.0 ( 229)
10년 이상	29.2	28.8	12.8	13.0	3.4	5.3	2.1	2.6	2.5	0.3	100.0 ( 395)
최초 자격 취득 기관											
보육교사교육원	31.6	34.5	10.9	11.4	1.4	3.2	5.5	1.4	0.0	0.0	100.0 ( 70)
2~3년제 대학	35.6	25.4	13.6	11.3	3.8	2.5	2.9	2.6	2.0	0.2	100.0 ( 296)

구분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	교사 교육 강화	관련 자료 개발 및 보급	실내외 환경 개선 지원	문서 등 행정 관리 간소화	보조 인력 지원	「2019 개정 누리과정」 홍보 강화	기관 평가 지표 및 방법 개선	누리 과정 포털 활성화	기타	계(수)
4년제 대학	36.0	23.5	8.8	9.9	7.7	3.1	3.9	3.9	3.2	0.0	100.0 ( 242)
대학원	32.8	28.6	11.3	11.5	4.4	6.8	2.0	1.9	0.3	0.4	100.0 ( 294)
그 외	20.3	30.5	18.4	15.4	9.1	4.4	1.0	1.0	0.0	0.0	100.0 ( 97)
컨설턴트 경험 여부											
있음	39.4	22.4	11.7	8.2	6.7	3.8	3.6	1.7	2.6	0.0	100.0 ( 213)
없음	31.4	28.2	12.1	12.3	4.9	4.2	2.7	2.7	1.2	0.3	100.0 ( 787)

주: 배경별 셀 빈도 총족이 되지 않아, 차이검증이 불가함.

자료: '김은영 외(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1). 육아정책연구소.'의 원장 대상 설문조사 자료를 배경특성에 따라 재분석함.

## 4

## 정책과제

## 가. 원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 원장의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이해는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으로 이어지므로 원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와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원장 효능감이나 직무수행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나타난 것은 고무적임.
  - ◆ 원장의 교육과정 리더십이 중요하기 때문에 개정 누리과정 관련 연수를 받지 않은 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이수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특히, 다른 기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수를 받지 않은 민간어린이집과 100인 미만의 기관을 중심으로 추가 연수 지원이 필요함.
  - ◆ 연수를 받지 못한 이유로, '시간 부족'이나 '연수를 신청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높았으므로, 실제 연수에 참여가능 하도록 시간을 지원해주고, 어린이집의 경우, 연수 규모를 증대하여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함. 또한 '정보 부족'은 상대적으로 응답 비율이 낮기는 했으나, 기관에서 연수에 대한 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누리과정포털(i-누리) 등에 공지할 필요가 있음.

- ◆ 개정 누리과정 관련 장학이나 컨설팅을 받은 경험은 23.1%에 불과해, 컨설팅을 받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았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함. 특히 원장의 교육과정 리더십에 초점을 맞춘 컨설팅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상대적으로 열악한 배경에 있는 기관의 원장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추진이 필요함.
- 개정 누리과정 실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변화와 원장의 지원에 주목하여 원장들 간 전문적 학습공동체 구성 및 지원 등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대다수의 원장들은 개정 누리과정을 실행하면서 교사의 역할 변화를 인식하고 있으며, 문서에도 변화를 주고 물리적 환경과 하루일과에도 변화를 주고 있음. 자신에 대해서도 유아와 놀이에 대한 관점 등 교육철학 변화와 본인의 역할에 대한 변화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임.
  - ◆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기관 차원에서 원장들은 놀이자료 지원을 가장 많이 하였고, 그 다음은 서류 간소화를 지원하였으며, 교사의 전문성 지원을 한 경우도 과반수임. 이러한 지원은 기관이나 원장의 배경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므로 배경이 열악할수록 원장 대상의 리더십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함.
  - ◆ 원장들은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단순 정보나 자료 제공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전문성 제고에 더 효과적인 동아리나 소모임 지원 및 원내 멘토링 등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교사의 전문성 지원 또한 기관이나 원장의 배경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 개정 누리과정의 개정 방향에 따라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사의 자율성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원장 자신의 교육철학을 점검하고 원장과 교사의 역할 정립과 전문성 지원,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수행을 위한 물리적 환경과 하루일과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 원장들이 이상의 역할을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원장들 간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리더십을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

## 나. 개정 누리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정책 방안

- 국가 차원에서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 대상과 규모 확대가 필요함.
  - ◆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해 재정지원을 받은 기관은 20% 미만이므로, 재정지원 대상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원장의 배경에 따라 그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자료 보급이나 연수 및 컨설팅 등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음.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물리적 환경의 열악함을 지적하고 실내외 환경 개선 지원에 대한 요구도 있었으므로, 개정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이나 자료 보급 등의 지원 사업을 위한 재정지원 규모 확대가 필요함.
  - ◆ 교육과정 운영의 질 제고를 위해, 모든 원장에게 연수와 컨설팅을 제공하여 교육과정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재정지원이 필요함.
- 개정 누리과정이 유아 중심, 놀이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지자체 차원의 행정 지원이 필요함.
  - ◆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 1순위와 지원 요구 1순위 모두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이 가장 많았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함. 교사 대 유아 비율은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기관유형이나 설립유형, 지역 등에 따라 편차가 크어도 개선 요구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고려할 때 연차별 조정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히 실행할 필요가 있음. 교사 대 유아 비율 조정은 유아 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기관 운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제된다면 빠르게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제도 개선과 함께 빠른 추진이 필요함.
  - ◆ ‘놀이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부족’ 역시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지적되었고, 정책 요구 또한 ‘교사교육 강화’로 나타나, 원장과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 시도별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연수와 컨설팅을 비롯하여 교사공동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원장과 교사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 풀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기관의 유형에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행정적 낭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운영함.

- 유치원과 어린이집 차원의 자구적인 노력 또한 병행되어야 함.
  - ◆ 개정 누리과정 이해를 위한 원내 자율장학, 멘토링 등을 추진하면서 교사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여 변화를 시도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교사 전문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조직풍토와 문화를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 개정 누리과정의 방향에 따라 공간 구성과 자료 제공, 하루일과, 문서 등 다양한 변화를 시도해 보고,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과 놀이 실천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함.
  - ◆ 유아, 교사, 원장(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에 교사뿐 아니라 학부모와 유아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함.

## I 참고 문헌 I

- 김은영·구자연·김혜진·차기주(2020). 「2019 개정 누리과정」 모니터링 및 지원방안 연구(I). 육아정책연구소.
- 배현수(2017). 사립유치원 원장의 교육과정 리더십과 교사의 유치원교육과정 실행과의 관계.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화자·홍후조(2019). 초등교원이 인식한 학교장 교육과정 리더십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0), 1103-1121.
- 윤창근(2009). 교장의 수업지도성이 학교의 교수, 학습풍토 및 교사의 교수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서영(2014). 사립유치원 교직원과 학부모간 신뢰형성의 어려움과 협력증진과정.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Kleine, P., & Klacht, P. (1993). Indirect instructional leadership: An administrator's choice.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29(2), 187-212.

### [법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1. 3. 30.] [법률 제17785호, 2020. 12. 29., 일부개정]
- 유아교육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 이슈페이퍼 2021-06 |

# 유아관찰앱을 활용한 교사의 관찰기록 역량 지원 방안

강은진·배윤진

1. 배경 및 문제점
  2.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의 애로점
  3. 누리과정 개정으로 인한 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
  4. 유아관찰기록을 위한 앱의 구성 방안
  5. 정책제언
- 참고문헌



# 유아관찰앱을 활용한 교사의 관찰기록 역량 지원 방안\*

강은진 선임연구위원 / 배윤진 연구위원

## ◆◆ 요약 ◆◆

- 개정 누리과정의 실행을 위해 교사의 관찰 및 기록에 대한 요구와 필요가 증대되었으나, 교사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자료는 미비함.
- 누리과정 운영에 있어 놀이 지원을 위한 교사의 관찰기록 역량이 더욱 강조되나, 높은 교사대 아동비율, 준비시간의 부족 등 기본적인 한계가 존재함.
- 해외에서는 교사의 관찰기록 역량을 지원하는 애플리케이션 및 플랫폼이 개발되어 지원되고 있으나, 국내의 여건은 미비함. 본고에서는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제안한 유아 관찰기록 앱을 소개하고, 교사의 관찰기록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함.
- 향후 전국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관찰기록 역량 제고를 위한 플랫폼 구축과 교사지원 자료 사업의 지속·연계를 통해 교사 재교육을 위한 원격교육 플랫폼으로 확대될 것을 제안함.

## 1

### 배경 및 문제점

#### 가. 개정 누리과정의 변화에 따른 교사 관찰기록 역량에 대한 요구

- 유아중심, 놀이중심을 강조하는 개정 누리과정이 2020년 3월부터 도입·운영되면서, 가장 초점을 두었던 것은 교사 주도의 계획에서 벗어나서 유아로부터 교육과정이 출발해야 한다는 점이었음.
  - ◆ 즉, 교사는 유아가 놀이하며 경험한 내용을 관찰한 후 놀이에서 나타나는 배움에 주목하여 이를 기록하며, 기록한 내용을 근거로 유아의 놀이를 지원한다는 것임 (교육부·보건복지부, 2019a: 47).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인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Ⅲ): 유아관찰앱 개발 및 적용(배윤진·강은진·엄지원, 2020)」을 재분석하여 작성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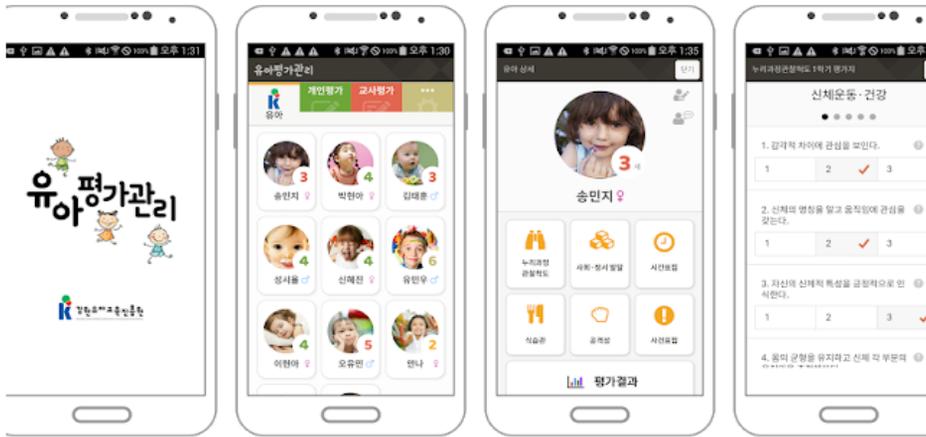
- ◆ 관찰을 통한 유아의 이해는 유아의 발달, 개별 특성, 흥미와 관심에 따라 누리과정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가 되며, 이후 유아 평가와 누리과정 운영 평가로 이어짐.
- 개정 누리과정의 안착을 위해 제작된 후속 지원 자료에서도 유아의 관찰 및 평가에 대해 제시·안내하고 있음.
  - ◆ 해설서(교육부·보건복지부, 2019a: 54)에서는 “유아의 놀이를 관찰할 때 유아의 말, 몸짓, 표정 등에서 드러나는 놀이의 의미와 특성에 주목하여 (중략) 필요한 내용 메모나 사진 등 교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으로 기록” 하도록 명시됨.
  - ◆ 놀이이해자료(교육부·보건복지부, 2019b)에서는 유아의 관찰을 기초로 놀이의 흐름을 따라가며 그 안에서 유아의 놀이경험과 교사의 놀이이해를 밝히는 방식으로 사례를 소개하고 있음.
  - ◆ 놀이실행자료(교육부·보건복지부, 2019c: 60-65)에서는 일과 중 관찰한 내용을 메모지에 핵심 단어 위주로 짧게 기록을 남기거나, 유아의 작품과 구성물의 사진을 찍어 두었다가 사후에 기록하는 방법, 일일계획안의 평가란 또는 일지 양식을 변형하여 기록하는 방식 등을 예시로 소개하고 있음.

#### 나. 교사의 관찰기록 역량을 위한 디지털 도구의 활용

- 원격교육 상황과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유아교사에게 다양한 역량이 요구됨.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하는 유아를 지원하고, 교수학습에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도구의 활용 능력도 요구됨.
  -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를 위해서 디지털 자료의 활용 능력, 디지털 교수학습능력, 디지털을 활용한 교원 및 학부모와의 소통능력, 유아의 디지털 역량 지원 능력과 함께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유아 이해능력도 매우 중요해짐(김은영·강은진·권미경 외, 2020: 9).
  - ◆ 유아의 놀이, 일상생활, 활동에 대한 관찰을 기록하여 유아를 이해하고 유치원·어린이집과 가정을 연계하는데 활용가능하기 때문임.
- 국내 사례
  - ◆ 강원유아교육진흥원에서 유아평가앱을 개발해 2016년 10월부터 보급, 2017년에는 유치원 교사의 교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개발·보급하고 유아

평가관리 사용자 매뉴얼 책자도 보급함(강원유아교육진흥원, 2017: 24)

- 유아평가앱 개발을 통해 유치원 현장에서 상담 기초자료 제공 등의 유아 평가 내실화 및 교수·학습 개선을 도모할 수 있었으며, 유아평가관리 사용자 매뉴얼의 보급으로 앱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함.
- ◆ 서울시유아교육진흥원에서는 2013년 5세 누리과정 평가도구를 개발하여 유아평가와 유아교육프로그램 평가가 가능하도록 함. 이는 누리과정을 통해 유아의 경험과 발달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위함임(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 2013.2.13.).



[그림 1] 유아평가앱 예시화면

자료: 1) 구글스토어, 강원유아교육진흥원 유아평가앱,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dreamte.ch.gwch> (2020. 7. 7. 인출).  
 2) 배윤진·강은진·엄지원(2020).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Ⅲ): 유아관찰업 개발 및 적용. 육아전문연구소. p.102.

- 개정 누리과정은 교사에게 교육과정의 운영을 위해 유아의 놀이 관찰과 그에 따른 지원을 강조하고 있음. 그에 따라 새로운 관찰 도구와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앱의 개발이 필요함.
- ◆ 기존에 개발된 앱은 누리과정에 기반한 체크리스트 중심으로 되어 있어 개정된 누리과정을 미반영하고 있음.
- ◆ 관찰기록이 누적되고, 그에 따른 놀이지원의 전략과 내용이 함께 기술되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교사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앱 개발이 요구됨.

## ■ 해외 사례

- ◆ 캐나다의 HiMama 앱은 화상통화, 실시간 사진 업데이트 및 일일 보고서 등을 통해 보육기관의 교사와 부모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애플리케이션임.<sup>1)</sup>
    - 유아평가 및 운영평가 기능도 제공하여, 유아에 대한 일일 관찰기록, 체크리스트 작성, 평가 보고서 작성 등이 가능<sup>2)</sup> 사진과 동영상을 태그(tag)하여 발달과정을 추적하거나 학습 과정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제공됨.
  - ◆ 미국의 COR Advantage는 취학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관찰을 기반으로 하는 평가도구로서 하이스코프(HighScope) 연구를 토대로 개발됨<sup>3)</sup>. 재단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발된 총 36개의 항목이 제공됨. 유치원 준비도, 교수·학습의 기준, 헤드스타트 조기학습 결과 양식, 모든 연령의 하이스코프 주요 발달 지표를 살펴볼 수 있음.<sup>4)</sup>
  - ◆ 뉴질랜드의 스토리파크(Storypark)는 뉴질랜드의 유아평가인 러닝 스토리(Learning Story) 기법을 사용해, 유아교육·보육 현장에서의 유아 경험을 교사나 부모가 관찰한 기록을 이야기처럼 작성하고 사진을 포함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함.<sup>5)</sup>
    - Storypark는 각 기관의 교사의 특성을 반영해 보육·교육과정과 교사가 작성하는 기록 및 관찰을 연계할 수 있음. 그리고 유아 중심으로 고안되어서 문서에 유아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고 유아가 언제든지 접속할 수 있음. Storypark를 통해 개별 유아의 학습 과정, 관심, 가족의 참여를 확인할 수도 있음.<sup>6)</sup>
- 해외의 다양한 사례에서 보듯이 교사가 유아의 관찰 및 기록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유아교육·보육과정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앱이 개발되어 있으며, 유아의 목소리도 담을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됨. 그러나 국내에는 누리과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관찰에 대한 중요성만 부각될 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미비함. 최근 개발된 관찰기록 도구는 PC 기반으로 개발되어 교사의 활용 용이성에 대해서는 한계가 지적됨.

1) <https://www.applegazette.com/apps/himama-childcare-app/>(2020. 7. 3. 인출);

<https://en.wikipedia.org/wiki/HiMama>(2020. 7. 3. 인출)

2) <https://www.himama.com/features/preschool-assessment-tools>(2020. 7. 7. 인출)

3) <https://coradvantage.com/overview/>(2020. 7. 7. 인출)

4) <https://coradvantage.com/assessment/>(2020. 7. 3. 인출)

5) <https://www.myece.org.nz/educational-curriculum-aspects/227-learning-stories>(2020. 7. 8. 인출)

6) <https://www.storypark.com/educators/>(2020. 7. 3.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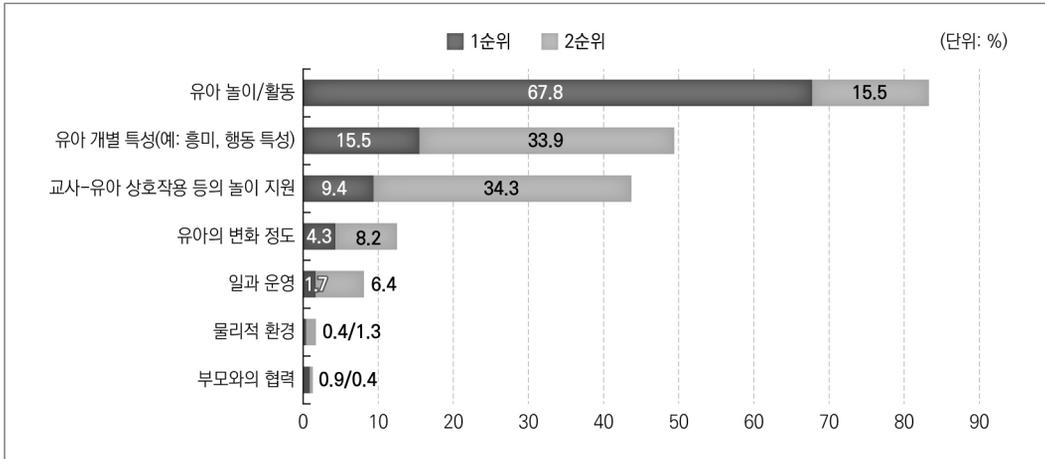
## 2 누리과정 운영에 대한 교사의 애로점

### 가. 교사의 누리과정 운영의 애로점

-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유아 수는 평균 15.6명임.
  -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23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 교사 1인이 담당하는 유아의 수는 평균 15.6명이며, 15명 미만 39.9%, 15~20명 미만 33.5%, 20명 이상 26.6%이었음.
- 2019 개정 누리과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그런 편이다’가 59.2%로 가장 많이 응답됨.
  - ◆ 어려움 정도에 대한 평균 점수는 교사 경력이 10년 이상일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음. 즉, 고경력 교사는 경력이 낮은 교사에 비해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덜 인식하고 있었음.
- 개정 누리과정 운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교사 대 유아 비율이 높아서(31.2%)’, ‘놀이환경을 적절하게 구성하지 못해서(22.3%)’, ‘준비시간이 부족해서(14.0%)’, ‘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느라(12.1%)’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 특히 유치원은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높아서’, 어린이집은 ‘준비시간이 부족해서’라는 응답이 높았으며, 단일연령반은 ‘교사 대 유아의 비율이 높아서’, 혼합연령반은 ‘누리과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많았음.
  - ◆ 교사 간담회에서도 설문조사 결과와 동일하게 담당 유아수가 많기 때문에 여러 유아들의 놀이를 관찰하고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이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음.

### 나. 유아 평가 및 누리과정 운영 평가의 내용과 방법

- 교사가 주로 평가하는 내용으로는 ‘유아 놀이/활동’이 67.8%로 압도적으로 높았음. 그 뒤로는 ‘유아 개별 특성(15.5%)’, ‘교사, 유아 상호작용 등의 놀이 지원(9.4%)’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2] 주로 평가하는 내용 (1+2순위)

자료: 배윤진·강은진·엄지원(2020).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Ⅲ): 유아관찰업 개발 및 적용. 육아정책연구소. p.45.

- 유아놀이/활동, 유아의 변화 정도, 교사-유아 상호작용 등의 놀이지원, 일과 운영, 물리적 환경에 대한 평가 빈도는 ‘매일 하고 있음’의 응답률이 가장 높았고, 유아 개별 특성, 부모와의 협력에 대한 평가빈도는 ‘주 1~2회’가 가장 많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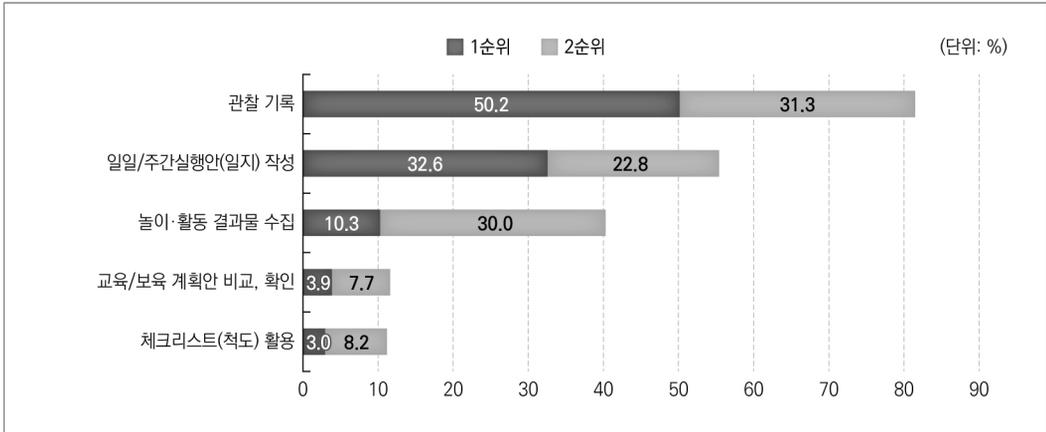
<표 1> 주된 평가내용 별 평가빈도

단위: %(명)

항목	평가빈도						계(수)
	월 1회 이하	월 2회 이하	주 1~2회	주 3~4회	매일		
유아 놀이/활동	6.7 (13)	6.2 (12)	30.4 (59)	12.9 (25)	43.8 (85)		100.0(194)
유아 개별특성	13.9 (16)	13.0 (15)	33.0 (38)	13.9 (16)	26.1 (30)		100.0(115)
유아의 변화 정도	31.0 (9)	13.8 (4)	13.8 (4)	10.3 (3)	31.0 (9)		100.0(29)
교사-유아 상호작용 등의 놀이지원	2.0 (2)	3.9 (4)	30.4 (31)	25.5 (26)	38.2 (39)		100.0(102)
일과운영	0.0 (0)	5.3 (1)	15.8 (3)	10.5 (2)	68.4 (13)		100.0(19)
물리적 환경	0.0 (0)	0.0 (0)	50.0 (2)	0.0 (0)	50.0 (2)		100.0(4)
부모와의 협력	0.0 (0)	33.3 (1)	66.7 (2)	0.0 (0)	0.0 (0)		100.0(3)

자료: 배윤진·강은진·엄지원(2020).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Ⅲ): 유아관찰업 개발 및 적용. 육아정책연구소. p.45.

- 주된 평가 방법은 관찰기록(50.2%+31.3%)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 ◆ 관찰기록에 이어 일일/주간실행안(일지) 작성, 놀이·활동 결과물 수집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3] 주된 평가 방법 (1+2순위)

자료: 배운진·강은진·엄지원(2020).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Ⅲ): 유아관찰업 개발 및 적용. 육아정책연구소. p.46.

- 교사 간담회에서도 역시 관찰기록이나 일지 작성을 통해 유아 평가나 누리과정 운영 평가를 실시한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음.
- ◆ 한편 다양한 체크리스트 혹은 척도가 제공되거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면 부모면담 자료로 혹은 유아 변화나 발달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고 하였음.
- 개별 유아의 관찰 및 기록 횟수의 경우 횟수를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필요 시 실시한다는 응답이 53.6%로 가장 많았지만, 관찰 및 기록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응답도 42.5%로 높게 나타났음.
- ◆ 유치원은 개별 유아의 관찰 및 기록 횟수를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필요 시 실시한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어린이집은 개별유아 관찰·기록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2〉 개별 유아 관찰 및 기록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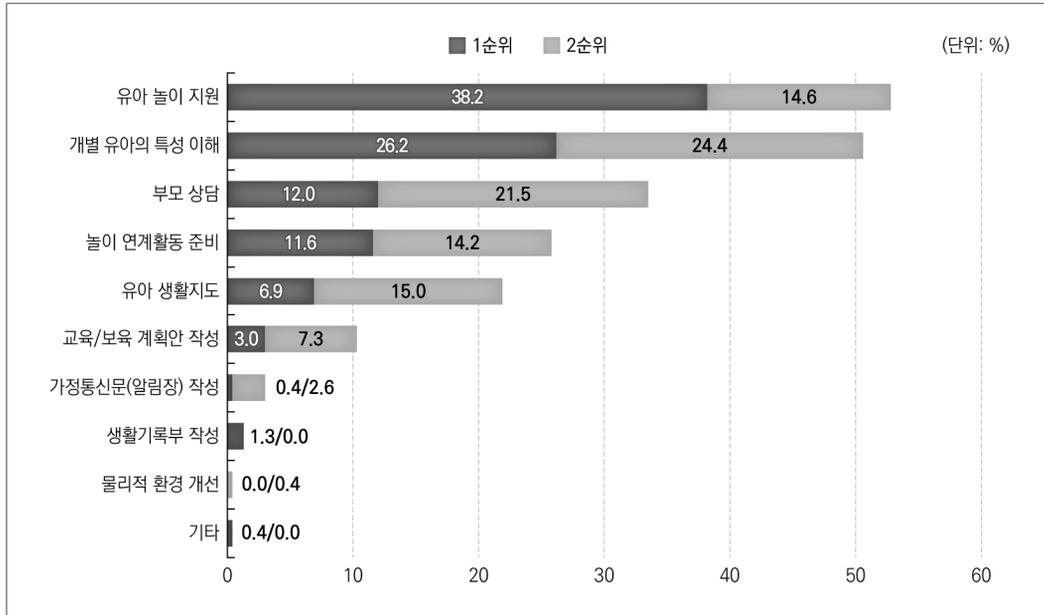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개별 유아 관찰·기록 하지 않음(집단관찰)	필요한 때에 실시	주기적 실시 (예: 최소 주1회)	계(수)
전체	3.9	53.6	42.5	100.0 (233)
설립유형				
유치원	6.1	63.5	30.4	100.0 (115)
어린이집	1.7	44.1	54.2	100.0 (118)
$\chi^2(df)$		14.765(2)***		
반 유형				
단일연령반	4.6	54.9	40.5	100.0 (153)
혼합연령반	2.5	51.3	46.3	100.0 ( 80)
$\chi^2(df)$		1.122(2)		
유아 연령				
만 3세	1.3	53.9	44.7	100.0 ( 76)
만 4세	6.6	50.0	43.4	100.0 ( 76)
만 5세	3.7	56.8	39.5	100.0 ( 81)
$\chi^2(df)$		3.348(4)		
교사 경력				
5년 미만	5.0	58.3	36.7	100.0 ( 60)
5년~10년 미만	1.2	53.0	45.8	100.0 ( 83)
10년 이상	5.6	51.1	43.3	100.0 ( 90)
$\chi^2(df)$		3.452(4)		

자료: 배윤진·강은진·엄지원(2020).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Ⅲ): 유아관찰법 개발 및 적용. 육아정책연구소. p.47.

\*\*\*  $p < .001$

- 평가 결과는 ‘유아 놀이 지원(38.2%)’을 위해, ‘개별 유아의 특성 이해(26.2%)’를 위해 활용하고 있었음.
  - ◆ 교사 간담회 결과에 따르면, 평가의 결과를 유아의 놀이 지원을 위해, 다음 활동의 계획을 위해 주로 활용하며,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들과 공유하는데도 자주 활용하고 있었음.



[그림 4] 평가 결과 활용 방법 (1+2순위)

자료: 배윤진·강은진·엄지원(2020).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Ⅲ): 유아관찰업 개발 및 적용. 육아정책연구소. p.48.

- 한편, 유아관찰업 개발을 위한 세부적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16명의 교사(유치원 교사 6명, 어린이집 교사 10명)를 대상으로 한 포커스그룹 면담에서도 설문조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음.
  - ◆ 교사들은 평소 유아를 평가하기 위해 일화나 유아들의 대화 기록(87.5%, 14명), 간략한 메모(81.3%, 13명), 사진 촬영(68.8%, 11명) 등의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교육·보육계획안이나 일지를 활용(75.0%, 12명)하고 있었음(중복응답).
  - ◆ 유아 관찰·평가 시 다루는 내용으로는 일화(93.8%, 15명), 유아의 대화(81.3%, 13명), 유아의 흥미나 관심(81.3%, 13명), 놀이·활동영역(75.0%, 12명), 발달특성(56.3%, 9명), 향후 계획이나 준비사항(50.0%, 8명) 등으로 나타났음(중복응답). 그 외에 놀이과정과 특이점, 놀이의 변화, 또래와의 관계를 자주 관찰하고 평가한다는 기타 응답도 있었음.
  - ◆ 교사들은 좀 더 활용하기를 원하는 방법으로 동영상 촬영(28.6%, 4명), 평가척도 활용(14.3%, 2명) 등이었음. 다루기를 원하는 내용으로는 향후 계획이나 준비사항(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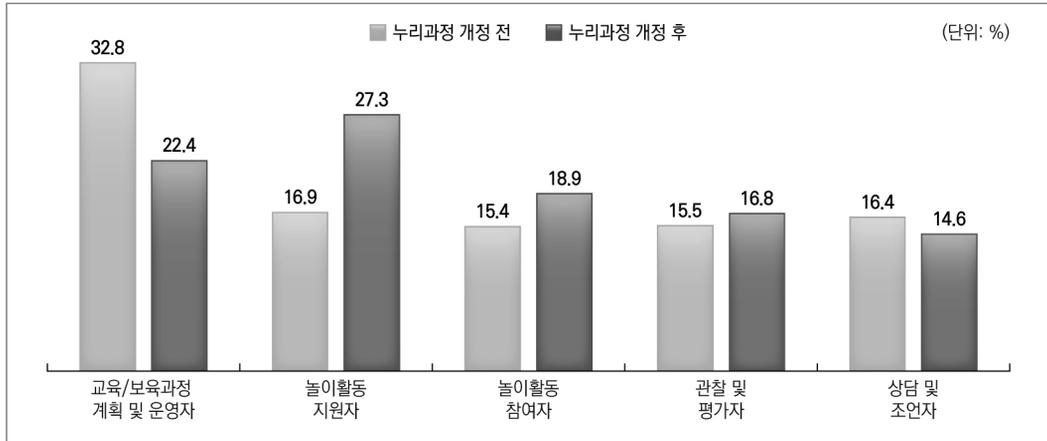
- 7명), 발달특성(26.7%, 4명), 유아의 흥미나 관심(26.7%, 4명), 누리과정과의 연결점(20.0%, 3명) 으로 응답하였음.
- ◆ 유아의 자유놀이 장면을 관찰하고 기록할 때 효율적으로 사용될 방법으로는 사진 촬영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43.8%, 7명), 자유놀이 장면을 관찰하고 기록할 때의 내용으로는 놀이·활동영역(37.5%, 6명), 유아의 흥미나 관심(31.3%, 5명), 일화나 사건(25.0%, 4명)을 좀 더 다루게 될 것이라고 보았음(중복응답). 기타 응답으로는 유아의 놀이 변화과정이나 관계, 놀이의 연속성, 놀이 대상 등이 있었음.

## 3

### 누리과정 개정으로 인한 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

#### 가. 개정 누리과정 전후에 따른 교사의 역할 인식 차이

- 교사의 다양한 역할들을 제시하고 누리과정 개정 이전과 이후에 각 역할의 비중이 어떠한가를 조사하였음. 먼저, 누리과정 개정 전, 교사는 ‘교육/보육과정 계획 및 운영자’(32.8%)로서의 역할을 가장 많이 수행한다고 응답하였음.
- 반면, 누리과정 개정 후에는 ‘놀이·활동 지원자’역할(27.3%)을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함.
  - ◆ 누리과정 개정 전에 비해 특히 교사의 경력이 높을수록 ‘놀이·활동 지원자’로서의 역할의 비중이 더 높게 평가하였음.
  - ◆ ‘관찰 및 평가자’의 역할에서는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에서 더 역할의 비중이 많아짐을 알 수 있었음.



[그림 5] 교사의 역할에 대한 인식 차이: 개정 누리과정 전·후 비교

자료: 배윤진·강은진·엄지원(2020).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Ⅲ): 유아관찰업 개발 및 적용. 육아정책연구소. p.50, p.51, 평균값을 비교함.

<표 3> 교사로서의 역할: 누리과정 개정 전·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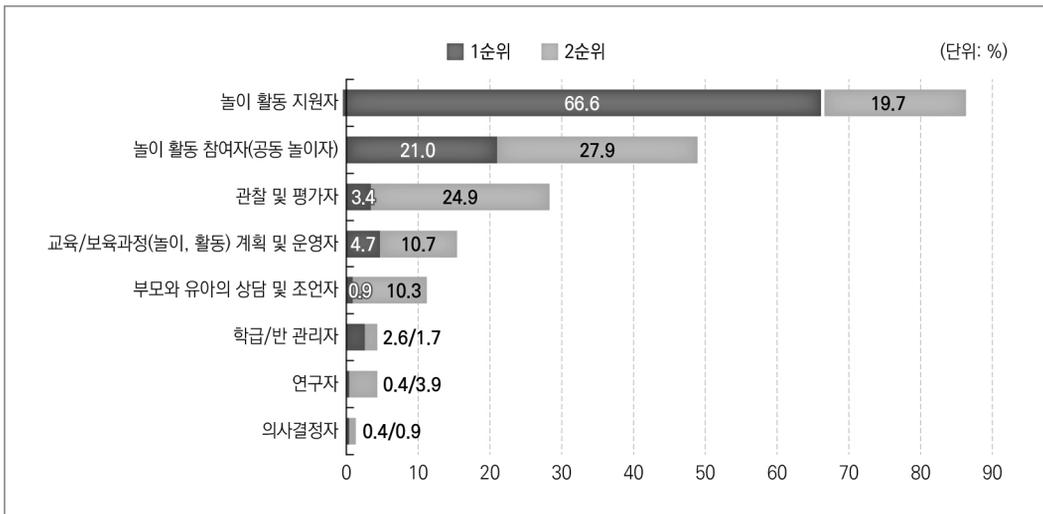
구분	교육/보육과정 계획 및 운영자		놀이·활동 지원자		놀이·활동 참여자		관찰 및 평가자		부모와 유아의 상담 및 조연자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전체	32.8	14.6	19.9	8.5	15.4	6.9	15.5	6.9	16.4	7.8	(233)	
개정 전	설립 유형 유치원 어린이집 t	35.0	14.3	18.7	8.0	13.9	6.5	15.5	7.2	16.9	8.1	(115)
		30.7	14.6	21.0	8.8	16.8	7.1	15.5	6.7	16.0	7.6	(118)
		2.3*		-2.1*		-3.3**		0.0		0.9		
교사 경력	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F	32.0	12.8	18.5	7.2	14.7	8.5	16.7	7.0	18.2	8.5	( 60)
		32.4	15.6	20.2	9.9	16.6	6.4	14.7	6.9	16.1	8.1	( 83)
		33.8	14.9	20.5	7.9	14.7	6.2	15.4	6.8	15.6	6.9	( 90)
0.3		1.1		2.0		1.4		2.2				
전체	22.4	12.6	27.3	11.6	18.9	8.9	16.8	8.0	14.6	7.0	(233)	
개정 후	설립 유형 유치원 어린이집 t	22.1	12.9	27.2	11.5	18.1	8.2	17.9	8.6	14.8	7.2	(115)
		22.8	12.4	27.5	11.8	19.7	9.4	15.7	7.3	14.4	6.9	(118)
		-0.4		-0.2		-1.3		2.1*		0.5		
교사 경력	5년 미만 5년~10년 미만 10년 이상 F	22.5	13.8	23.8	9.7	20.0	9.6	17.8	8.3	15.9	7.2	( 60)
		23.4	12.8	27.2	12.5	19.1	9.8	16.3	8.9	13.9	7.4	( 83)
		21.4	11.6	29.8	11.4	17.9	7.3	16.6	6.9	14.3	6.5	( 90)
0.6		4.9**		1.1		0.7		1.4				

자료: 배윤진·강은진·엄지원(2020).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Ⅲ): 유아관찰업 개발 및 적용. 육아정책연구소. p.50, p.51. 의 표를 병합함.

\*  $p < .05$ , \*\*  $p < .01$

## 나. 누리과정 개정 후, 교사의 역할에 대한 기대

- 개정 누리과정으로 인해 향후 유아교사에게 가장 기대하는 역할은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 ‘놀이·활동 지원자’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놀이·활동 참여자’, ‘관찰 및 평가자’ 등이었음.



[그림 6] 개정 누리과정으로 인해 향후 유아교사에게 기대하는 역할 (1+2순위)

자료: 배운진·강은진·엄지원(2020).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Ⅲ): 유아관찰업 개발 및 적용. 육아정책연구소. p.52.

- 교사 간담회에서는 개정 누리과정을 운영하면서 유아를 바라보는 시각과 놀이를 진행하는 관점이 달라졌다는 의견이 있었음.
  - ◆ 놀이 중 유아들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었으며, 놀이나 흥미에 대한 관찰이 많아졌고, 놀이를 관찰하면서 유아 평가와 지원에 몰두하게 되었음.
  - ◆ 교사의 일방적인 계획보다는 놀이를 관찰한 후 흥미를 반영하여 계획(준비)하고, 계획안을 비롯한 문서작업은 간소화되는 대신 유아들을 더 자세히 관찰하고 기록하게 되었음.

## 4 유아관찰기록을 위한 앱의 구성 방안

### 가. 유아관찰앱의 구성

- 기관 및 교사가 로그인할 수 있는 체계 마련 및 기관 내에서 자료를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함.
- ◆ 그 외 달력, 출석부를 제시해, 교사가 매일 체크해야 하는 내용을 용이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함.
- ◆ 관찰기록에서 놀이에 참여한 유아를 선택하고, 교사가 자율적으로 기록 칸을 선택 하며 관련 자료도 탑재할 수 있도록 함. 향후 엑셀파일로 변환되어 교사 PC에서 편집 가능하도록 연계함.
- ◆ 교사가 부모상담 시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유아관찰척도 및 놀이성척도)를 탑재함.



[그림 7] KICCE 유아관찰기록 앱의 구성

## 나. 유아관찰기록 앱의 주요 기능

- 모바일과 교사의 PC로 연동되어, 모바일로 입력한 관찰기록 결과를 PC에서 유아별로 분류해 저장하고, 개별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 제시
  - ◆ 첫째, 모든 메뉴는 모바일앱에서의 화면 그대로 PC에서도 사용 가능
  - ◆ 둘째, 관찰기록을 작성하면서 해당하는 유아가 누구인지 선택 가능하며, 그 후에는 유아별로 자료가 분류되어 Excel 파일로 저장할 수 있음. 또한 체크리스트의 경우 유아별로 문항을 체크할 수 있고, 그 결과도 유아별로 누적 저장되어 언제든지 확인 가능
  - ◆ 셋째, PC에서는 리포트사이트를 별도로 제공하며, 관찰기록 내보내기 기능으로 PC에 Excel 파일로 저장 가능하여 기록을 수정하거나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



[그림 8] 유아관찰기록 앱의 주요 기능

## 5 정책 제언

### 가. 교사의 관찰기록 역량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필요

- 교사의 관찰기록 역량은 개정 누리과정의 운영과 유아의 이해, 유아의 놀이지원을 위해 매우 기본적이며 요구도가 높음. 그러나 기존 업무에 추가될 소지가 있음. 이에 따라 교사의 디지털 도구를 활용한 관찰기록 앱과 프로그램이 개발됨.

- ◆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유아관찰기록 앱은 모바일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나 PC와 연동이 가능하도록 되었음. 그러나 앱을 보급하기 위해서 서버확보의 문제와 개인 정보보호 문제 등의 구체방안의 연결이 필요한 상황임.
- ◆ 본 연구의 관찰기록 앱 외에도 교육부에서 개발해 보급한 PC 기반의 “관찰기록을 담다”도 있음. 관찰기록을 저장해 다양한 관찰기록 양식에 출력물을 만들 수 있도록 양식도 함께 제공됨(이경화·구옥선·김미진·김병만 외, 2020). 그러나 PC 기반으로 만 제작되어 모바일이나 태블릿PC에서는 활용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음.

#### 나. 교사의 관찰기록 역량 지원을 위한 지속·연계 사업 추진 필요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관련 지원 연구가 일회적 연구로 그침에 따라 지속적인 후속 관리와 확대는 어려운 상황임. 이를 위해 정책 제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 ◆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의 관찰기록을 용이하게 도울 수 있는 모바일 및 PC 연동 앱에 대한 지속관리를 위한 플랫폼과 그에 대한 예산이 확보될 필요가 있음. 현재 유치원은 구글 클래스룸, 학교종이 앱을 활용하거나, 어린이집에서는 키즈노트를 활용해 유아의 관찰을 기록하고 학부모와의 소통에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 과정과 연계해 유아의 관찰을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유아 평가를 위해 누적할 수 있는 여건은 어려운 상황임. 이를 위해서는 한시적 연구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음.
  -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의 관찰기록을 위한 플랫폼에는 교사의 관찰기록역량, 디지털도구의 활용 능력을 위한 워크숍, 교사연수 등이 지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현재 아이누리포털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탑재되어, 현장에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음. 향후에는 콘텐츠의 탑재뿐만 아니라 교사의 재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 교사 역량 제고를 위한 컨설팅 운영 등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를 위한 소통기반 교육 플랫폼으로서 확대·운영될 필요가 있음.

## I 참고문헌 I

강원유아교육진흥원(2017). 자체평가 보고서.

교육부·보건복지부(2019a). 개정누리과정 해설서.

교육부·보건복지부(2019b). 개정누리과정 놀이이해자료.

교육부·보건복지부(2019c). 개정누리과정 놀이실행자료.

김은영·강은진·권미경·박원순·김혜진·정유나(2020). 유아원격교육을 위한 교사지원자료. 교육부·육아정책연구소.

배운진·강은진·엄지원(2020). 누리과정 효과성 검증(III): 유아관찰앱 개발 및 적용. 육아정책연구소.

서울시교육청 보도자료(2013.2.13.). 행복한 유아교육! 유치원이 만들어 갑니다.

이경화·구옥선·김미진·김병만 외(2020). 관찰기록을 담다. 교육부.

[웹사이트]

<https://coradvantage.com/assessment/> (2020. 7. 3. 인출)

<https://coradvantage.com/overview/> (2020. 7. 3. 인출)

<https://en.wikipedia.org/wiki/HiMama> (2020. 7. 3. 인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dreamtech.gwch> (2020. 7. 7. 인출)

<https://www.applegazette.com/apps/himama-childcare-app/>(2020. 7. 3. 인출)

<https://www.himama.com/features/preschool-assessment-tools> (2020. 7. 7. 인출)

<https://www.myece.org.nz/educational-curriculum-aspects/227-learning-stories>  
(2020. 7. 8. 인출)

<https://www.storypark.com/educators/> (2020. 7. 3. 인출)

| 이슈페이퍼 2021-02 |

# 영유아 부모의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과 어린이집 이용 시간

최효미

1.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연구 목적
2. 개편된 보육지원체계에 대한 부모의 인지 및 선호
3. 어린이집 이용 시간의 특징과 연장보육 이용 현황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 영유아 부모의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과 어린이집 이용 시간\*

최효미 연구위원

## ◆◆ 요약 ◆◆

- 2020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어, 보육시간이 기본보육시간(9:00~16:00)과 연장보육시간(16:00~19:30)으로 구분되어 운영됨.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육아 가구 부모의 인지 수준은 높지 않은 편이며, 제도 개편에 대해서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에 비해 많았음.
- 어린이집 하원시각은 대부분 17시 이전으로,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자가 많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영유아 부모들은 현재 이용시간에 대해서 80% 이상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보임.
- 보육지원체계 개편 전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변동되었다는 응답은 20% 이하로, 제도 개편 전후 큰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남. 또, 하원시각대별로 18시 이후 하원하는 영유아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제도 개편 전후 단축된 비중은 4%내외에 그침.
- 기본보육시간(9:00~16:00) 이내에 하원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필요 및 어린이집 입소 전 사전 연장보육 수요조사를 통한 '연장보육 특화 어린이집(가칭)' 지정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1

### 보육지원체계 개편과 연구 목적

- 2020년 3월 보육지원체계가 개편되어 시행되었음.
  - ◆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12시간(7:30~19:30)으로 유지하되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임(보건복지부 홈페이지).<sup>1)</sup>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인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 2020)」에 기반하여 작성되었음.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지원체계 개편.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 PAR\\_MENU\\_ID](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 PAR_MENU_ID)

- ◆ 기본보육시간은 9:00부터 16:00이며, 연장보육은 그 이후의 보육(16:00~19:30)을 의미함(보건복지부, 2020: 76).
- 이와 같은 보육지원체계의 개편은 보육교사의 초과근무 방지, 휴게시간 보장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함께 질 높은 보육을 제공, 아동과 교사, 부모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임(보건복지부 홈페이지).<sup>2)</sup>
- ◆ 보육시간을 기본보육시간과 연장보육시간으로 양분함에 따라 특히 연장보육시간에 대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담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도록 하였음(보건복지부 홈페이지).<sup>3)</sup>
- ◆ 2020년 변화된 보육지원체계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음.

	현재			개편(안)		
프로그램	〈표준보육과정〉			통합반	표준보육과정	지원강화
	맞춤반 (9:00~15:00)					연장과정
	통합반	종일반(7:30~19:30)				
인력	당번	담임교사	당번	당번	담임교사	연장전담교사
비용지원	맞춤형보육료					
	종일반보육료			보육료		인력지원
	누리과정보육료 운영비			〈-----〉 기본보육		
					〈---〉 연장보육	

자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지원체계 개편.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8&PAGE=8&topTitle](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8&PAGE=8&topTitle) (인출일: 2021. 4. 20).

[그림 1] 보육지원체계의 변화

=06&MENU\_ID=06400108&PAGE=8&topTitle (인출일: 2021. 4. 20).  
 2)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지원체계 개편 홍보자료-문고 답하기(부모용). [http://www.mohw.go.kr/upload/content\\_data/2020/qna\\_08\\_01.pdf](http://www.mohw.go.kr/upload/content_data/2020/qna_08_01.pdf) (인출일: 2021. 4. 20).  
 3)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지원체계 개편,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8&PAGE=8&topTitle](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8&PAGE=8&topTitle) (인출일: 2021. 4. 20).

- 영유아 가구 입장에서 보육지원체제의 개편은 기본보육시간의 단축 혹은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을 의미하는 변화라 할 수 있음.
  - ◆ 보육지원체제 개편에 따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있을 수도 있으나, 기본보육시간의 단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영유아 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음.
  - ◆ 연장보육 서비스는 기존 종일반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주로 맞벌이 가구, 돌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임. 단, 연장보육서비스 이용 자격은 기존 종일반 자격 기준에 비해서는 확대된 기준이 적용됨(보건복지부 홈페이지).<sup>4)</sup>
- 이에 본고는 육아 가구 부모의 보육지원체제 변화에 대한 인식과 제도 변화로 인한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변화에 대해 살펴봄.
  - ◆ 분석에 활용된 자료는 KICCE 소비실태조사 3차년도(2020년) 자료로서, 막내 자녀 연령이 초등 2학년(만8세) 이하인 가구 2,156가구를 대상으로 함.
  - ◆ 단, 제도가 개편되어 시행된 첫해인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조사 시점 및 어린이집에 따라 휴원, 긴급돌봄의 시행 등으로 정상적인 원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었음. 이로 인해 어린이집 이용률 자체가 전년 대비 다소 감소하였으며, 이용 시간 자체도 단축되었을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의를 요함.

## 2

## 개편된 보육지원체제에 대한 부모의 인지 및 선호

- 보육지원체제 개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60.9%에 그쳐, 이미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전반적으로 보육지원체제 개편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 맞벌이 가구 여부에 따라서 인식 정도에 큰 차이는 없었으며, 이는 맞벌이 가구 입장에서 연장보육시간 지원 등으로 이용에 큰 제약이 없었기 때문으로 사료됨.

4)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지원체제 개편.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8&PAGE=8&topTitle](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8&PAGE=8&topTitle) (인출일: 2021. 4. 20).

- ◆ 총 자녀수에 따라서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지는 높아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음. 특히 자녀가 한명인 경우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지가 51.4%로,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임.
- ◆ 막내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제도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에는 확실히 제도 변화에 대한 인지가 매우 낮았으며(초1 37.9%, 초2 33.2%), 영유아기 내에서도 영아 자녀가 있는 가구의 경우 인식 수준이 다소 낮게 나타남.

〈표 1〉 가구특성별 보육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인식 여부(2020년)

단위: %(명)

구분		인식함	인식하지 못함	계
전체		60.9	39.1	100.0 (2,15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60.8	39.2	100.0 ( 960)
	외벌이	60.9	39.1	100.0 (1,196)
	$\chi^2$	0.000		
총 자녀수	1명	51.4	48.6	100.0 ( 725)
	2명	65.2	34.8	100.0 (1,125)
	3명 이상	67.0	33.0	100.0 ( 306)
	$\chi^2$	40.869***		
막내자녀연령	2020년생(0세)	51.9	48.1	100.0 ( 154)
	2019년생(1세)	58.5	41.5	100.0 ( 313)
	2018년생(2세)	70.2	29.8	100.0 ( 289)
	2017년생(3세)	84.6	15.4	100.0 ( 234)
	2016년생(4세)	75.2	24.8	100.0 ( 222)
	2015년생(5세)	70.5	29.5	100.0 ( 237)
	2014년생(6세)	62.6	37.4	100.0 ( 230)
	2013년생(초1, 7세)	37.9	62.1	100.0 ( 248)
	2012년생(초2, 8세)	33.2	66.8	100.0 ( 229)
$\chi^2$	229.177***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200.

\*\*\*  $p < .001$ .

- 보육지원체제 개편에 대한 정책 선호도는 긍정적 37.0%, 매우 긍정적 15.4%였으며, 부정적 의견(부정적+매우 부정적)은 12.3%로 전체적으로는 긍정적 평가가 높음.
- ◆ 다만, 보통이라는 응답이 35.4%로, 제도에 대한 인지 자체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선호 또한 그다지 높지 않은 특징을 보임.
- ◆ 보육지원체제에 대한 만족도는 3.5점으로, 어린이집 서비스 만족도는 평균 4점, 어린이집 비용 지원 정책에 대한 만족도 4.1점인 것과 비교하여 낮은 수준을 보임(5점 만점)(최효미 외, 2020: 325).
- ◆ 보육지원체제 개편에 대한 정책 선호도는 맞벌이 가구들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매우 긍정적이라는 응답과 매우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높는데 반해, 외벌이 가구는 중간 수준(부정적, 보통, 긍정적)에 보다 밀집된 형태의 분포를 보임.
- ◆ 반면, 보육지원체제 변화에 대한 정책 선호도는 총 자녀수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자녀 연령에 따라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단, 막내자녀 연령이 초등 학령기인 가구의 경우 평균 점수가 다소 낮은 것으로 조사됨.

〈표 2〉 가구특성별 보육지원체제 변화에 대한 인식(2020년)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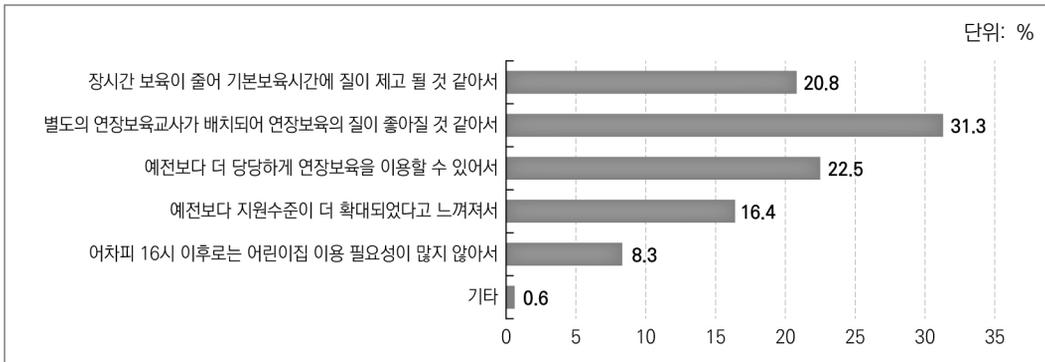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평균 점수	계	
전체	2.8	9.5	35.4	37.0	15.4	3.5	100.0 (2,156)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3.5	9.1	34.0	35.4	18.0	3.6	100.0 ( 960)
	외벌이	2.3	9.8	36.5	38.2	13.2	3.5	100.0 (1,196)
	$\chi^2/t$	13.548**				1.2		
총 자녀수	1명	2.8	9.1	36.0	39.2	13.0	3.5	100.0 ( 725)
	2명	2.4	9.5	34.9	36.4	16.7	3.6	100.0 (1,125)
	3명 이상	4.6	10.1	35.6	33.7	16.0	3.5	100.0 ( 306)
	$\chi^2/F$	10.508				1.4		
막내자녀 연령	2020년생(0세)	2.6	12.3	32.5	37.7	14.9	3.5	100.0 ( 154)
	2019년생(1세)	1.9	10.2	32.9	37.7	17.3	3.6	100.0 ( 313)
	2018년생(2세)	2.4	8.7	34.3	36.0	18.7	3.6	100.0 ( 289)
	2017년생(3세)	3.8	7.7	28.2	38.5	21.8	3.7	100.0 ( 234)
	2016년생(4세)	2.3	9.9	33.3	38.3	16.2	3.6	100.0 ( 222)
	2015년생(5세)	3.4	10.5	34.6	36.7	14.8	3.5	100.0 ( 237)

구분	매우 부정적	부정적	보통	긍정적	매우 긍정적	평균 점수	계
2014년생(6세)	3.5	8.7	35.2	36.1	16.5	3.5	100.0 ( 230)
2013년생(초1, 7세)	3.2	7.7	45.2	34.7	9.3	3.4	100.0 ( 248)
2012년생(초2, 8세)	2.6	10.5	41.9	37.6	7.4	3.4	100.0 ( 229)
$\chi^2/F$							46.990* 2.5*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201.

\*  $p < .05$ , \*\*  $p < .01$ .

-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긍정적이라고 본 경우(긍정적+매우 긍정적)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별도의 연장보육교사가 배치되어 연장보육의 질이 좋아질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1.3%로 가장 높음.
  - ◆ 다음으로 ‘예전보다 더 당당하게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어서(22.5%)’, ‘장시간 보육이 줄어 기본보육시간에 질이 제고될 것 같아서(20.8%)’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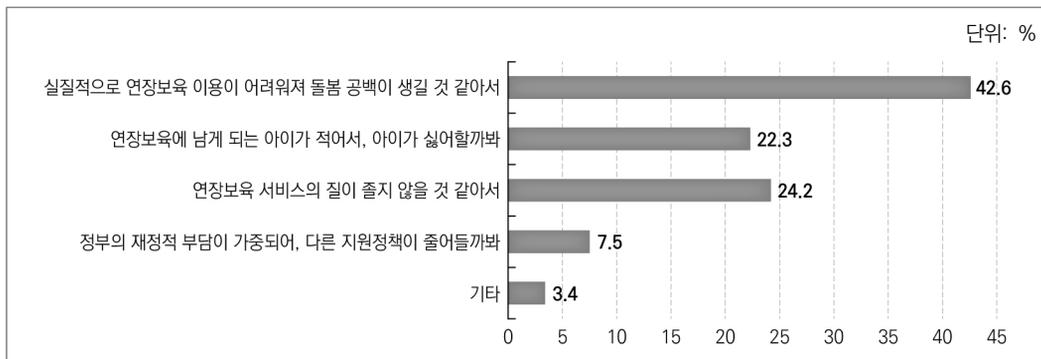


주: 전체 1,128가구 대상 응답 결과임.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202.

[그림 2] 보육지원체계 변화를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2020년)

-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부정적이라고 본 경우(부정적+매우 부정적)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실질적으로 연장보육 이용이 어려워져 돌봄 공백이 생길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42.6%로 가장 높음.
  - ◆ 다음으로 ‘연장보육 서비스의 질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24.2%)’, ‘연장보육에 남게 되는 아이가 적어서 아이가 싫어할까봐(22.3%)’ 순이었음.



주: 전체 265가구 대상 응답 결과임.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204.

[그림 3] 보육지원체제 변화를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2020년)

### 3

## 어린이집 이용 시간의 특징과 연장보육 이용 현황

### 가. 어린이집 주당 이용 시간

- 어린이집 주당 이용 시간은 전년에 비해 약간 길어진 것으로 조사됨.
  - ◆ 2020년(3차년도 조사) 기준 만1세의 어린이집 주당 이용시간은 32.2시간, 만2세 37.1시간, 만3세 37.7시간, 만4세 37.5시간, 만5세 38.0시간, 만6세 38.4시간임.
  - ◆ 표에는 제시하지 않았으나, 동 보고서(최효미 외, 2020)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린이집 이용률은 감소함.
  - ◆ 즉,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줄어들었으나, 이용하는 경우 이용 시간은 다소 길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어린이집을 단시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가정내 돌봄을 선택함에 따른 결과로 풀이됨.

〈표 3〉 연령별 및 연도별 어린이집 주당 이용시간(2018~2020년)

단위 : %(명)

	1차(2018년)	2차(2019년)	3차(2020년)
만0세	40.8 ( 3)	42.2 ( 3)	48.5 ( 3)
만1세	35.0 ( 94)	33.8 ( 70)	35.2 ( 57)
만2세	34.5 (283)	35.1 (266)	37.1 (227)
만3세	34.4 (348)	35.1 (355)	37.7 (315)
만4세	35.2 (190)	35.8 (254)	37.5 (221)
만5세	35.9 (125)	36.6 (160)	38.0 (180)
만6세	35.5 (120)	36.0 (128)	38.4 (137)

주: 1) 1, 2차년도 이용 시간은 평상시 하원시각에서 등원시각을 뺀 1일 기준의 계산 값을 주5일로 곱한 후 평균하여 산출한 결과이나, 3차년도의 이용 시간은 일주일의 시간표 형식의 문항을 통해 이용 기관별 이용 시간을 일주일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값이므로, 주의를 요함.

2) 연령은 생활연령 기준의 만나이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7세 1명을 만6세에 포함됨.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140~141, 158.

- 가구 특성별로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주당 영아 5.1시간, 유아 4.1시간가량 김.
  - ◆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외벌이 가구에 비해 길다고는 하나, 영유아 모두 주당 평균 39.9시간을 이용하고 있어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음.
  - ◆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로 적은 경우와 500만원 이상인 경우 데 이용시간이 길어지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해당 구간에 모가 취업 중인 경우가 많은 것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됨.
  - ◆ 총 자녀수와 지역규모에 따라서는 어린이집 이용자의 주당 이용시간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4〉 가구특성별 어린이집 주당 이용시간(2020년)

단위 : 시간, (명)

구분	영아		유아	
전체	37.3	(603)	37.9	(538)
맞벌이 여부	맞벌이	39.9 (288)	39.9 (270)	
	외벌이	34.8 (314)	35.8 (268)	
	<i>t</i>	8.2***	6.3***	

구분		영아		유아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4.8	( 37)	38.0	( 36)
	300~399만원 이하	35.1	(114)	36.0	(109)
	400~499만원 이하	36.8	(189)	37.1	(157)
	500~599만원 이하	38.2	(106)	39.0	(108)
	600만원 이상	39.3	(156)	39.5	(128)
<i>F</i>		6.4***		3.9**	
총 자녀수	1명	37.1	(129)	37.9	( 80)
	2명	37.2	(362)	37.6	(324)
	3명 이상	37.6	(111)	38.7	(133)
	<i>F</i>	0.1		1.0	
지역 규모	대도시	36.6	(235)	37.2	(210)
	중소도시	37.4	(267)	38.2	(243)
	읍면지역	38.4	(101)	38.7	( 85)
<i>F</i>		1.8		1.5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141, 159~160.

\*\*  $p < .01$ , \*\*\*  $p < .001$ .

- 영아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각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10시 전후 등원하여 16시 전후에 하원 하는 경우가 38.5%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10시 전후 등원하여 17시에 하원 하는 경우가 15.5%임.
  - ◆ 등원 시각을 기준으로 10시 등원이 가장 많았으며, 9시, 11시 순임.
  - ◆ 하원 시각을 기준으로는 기본보육시간 종료시각인 16시 하원이 가장 많고, 연장보육 시간 시작 전(연장보육 준비시간)에 해당하는 17시 하원 하는 경우가 다음으로 많아, 대부분의 영아가 연장보육 시작 전에 하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 실질적으로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18시 이후에 하원 하는 영아의 비중은 15.9%에 그침.

〈표 5〉 영아의 등원시간별 어린이집 하원시간(2020년)

단위 : %, (명)

하원 \ 등원	8:00	9:00	10:00	11:00	12:00	13:00	(수)
12:00	0.0	0.0	0.8	0.0	0.0	0.0	( 5)
13:00	0.0	0.2	1.5	0.6	0.0	0.0	( 14)
14:00	0.0	0.1	1.0	0.2	0.0	0.0	( 8)
15:00	0.0	0.7	6.2	1.6	0.2	0.0	( 52)
16:00	0.0	5.0	38.5	6.4	0.2	0.0	(301)
17:00	0.0	4.4	15.5	1.4	0.0	0.0	(127)
18:00	0.2	4.5	6.1	0.9	0.0	0.2	( 71)
19:00	0.6	1.0	1.2	0.2	0.0	0.0	( 18)
20:00	0.0	0.5	0.5	0.0	0.0	0.0	( 6)
(수)	( 5)	( 98)	(428)	( 67)	( 2)	( 1)	(602)

주: 등원 및 하원시간은 수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으며, 30분을 기준으로 반올림된 시각대임.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 142.

- 유아의 어린이집 등하원 시각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영아와 유사한 패턴을 보임.
  - ◆ 유아의 경우에도 등원 시각을 기준으로 10시 등원이 가장 많았으며, 하원 시각을 기준으로 는 기본보육시간 종료시각인 16시 하원이 가장 많고, 연장보육시간 시작 전(연장보육 준비시간)에 해당하는 17시 하원 하는 경우가 다음으로 많음.
  - ◆ 18시 이후에 하원 하는 유아의 비중은 16.3%로 영아에 비해서는 약간 높은 수준을 보임.
  - ◆ 기본보육시간이 종료되는 시점(16:00)과 연장보육시간이 시작되는 시점(17:00) 사이는 하원지도 시간으로 배정되어 있기는 하나, 17시에 하원하는 유아의 비중이 26.0%에 달함.

〈표 6〉 유아의 등원시간별 어린이집 하원시간(2020년)

단위 : %, (명)

하원 \ 등원	8:00	9:00	10:00	11:00	12:00	(수)
12:00	0.0	0.0	0.4	0.0	0.0	( 2)
13:00	0.0	0.0	1.3	0.0	0.0	( 7)
14:00	0.0	0.2	0.7	0.2	0.0	( 6)
15:00	0.4	0.6	4.8	1.8	0.0	( 40)

하원 \ 등원	8:00	9:00	10:00	11:00	12:00	(수)
16:00	0.2	5.2	36.1	6.0	0.0	(253)
17:00	0.0	5.9	17.7	2.4	0.0	(138)
18:00	0.2	4.0	6.2	1.0	0.0	( 61)
19:00	0.2	2.7	0.8	0.2	0.0	( 21)
20:00	0.0	0.2	0.2	0.2	0.0	( 3)
21:00	0.0	0.0	0.0	0.0	0.4	( 2)
(수)	( 5)	(100)	(363)	( 62)	( 2)	(532)

주: 등원 및 하원시간은 수요일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으며, 30분을 기준으로 반올림된 시각대임.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160.

- 한편, 영유아가 이용하는 이용기관별로 이용 시간 확대/축소에 관한 의견으로 ‘지금 수준 적당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임.
  - ◆ 이용기관별 이용시간에 대한 생각은 현재보다 조금 늘리고 싶다는 의견이 어린이집 12.7%, 유치원 12.8%, 반일제 이상 학원 17.5%임.
  - ◆ 어린이집 이용자들은 조금 늘리고 싶다(12.7%), 많이 늘리고 싶다(2.5%), 조금 줄이고 싶다(1.9%), 많이 줄이고 싶다(0.4%) 순이었음.
  - ◆ ‘지금 이용하는 시간 정도가 적당하다’는 의견은 어린이집 이용자의 82.5%로, 유치원 혹은 반일제 이상 학원 이용자에 비해 높았음.

〈표 7〉 이용 기관별 이용시간에 대한 생각(2020년)

단위 : %(명)

구분	많이 늘리고 싶음	조금 늘리고 싶음	지금 적당함	조금 줄이고 싶음	많이 줄이고 싶음	모름 /무응답	계
전체	3.1	12.8	81.8	2.0	0.2	0.1	100.0 (1,716)
이용 기관	어린이집	2.5	12.7	82.5	1.9	0.4	100.0 (1,140)
	유치원	4.6	12.8	80.8	1.8	0.0	100.0 ( 551)
	반일제 이상 학원	0.0	17.5	73.9	8.6	0.0	100.0 ( 24)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205.

## 나. 기본보육시간 변동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 시간 변화

- 가구특성별로 기본보육시간 변동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가구소득과 지역 규모에 따라 약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경우 변동 없다는 응답이 63.2%로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비중을 보이지만, 관측치가 25가구로 적으므로 해석에 유의해야 함.
  - ◆ 다음으로 가구소득이 400~499만원 하인 가구의 경우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단축되었다(10.2%)는 응답과 증가하였다(11.2%)가 비슷한 비중을 보인 반면, 가구소득이 300~399만원 이하인 가구와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경우 단축되었다는 응답 비중이 증가된 경우에 비해 높음.
  - ◆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응답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이 발견됨. 즉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기본보육시간변동 이후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응답이 16.6%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임.

〈표 8〉 가구특성별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변동(2020년)

단위 : %(명)

구분		단축되었음	변동없음	증가하였음	계
맞벌이 가구 여부	전체	10.2	82.8	6.9	100.0 (437)
	맞벌이	9.4	83.1	7.5	100.0 (217)
	외벌이	11.1	82.6	6.4	100.0 (220)
	$\chi^2$		0.479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16.6	63.2	20.3	100.0 ( 25)
	300~399만원 이하	12.1	84.2	3.7	100.0 ( 83)
	400~499만원 이하	10.2	78.5	11.2	100.0 (128)
	500~599만원 이하	7.9	85.7	6.4	100.0 ( 79)
	600만원 이상	9.2	88.5	2.3	100.0 (123)
	$\chi^2$		17.977*		
총 자녀수	1명	12.5	78.5	9.0	100.0 ( 89)
	2명	10.6	82.6	6.8	100.0 (269)
	3명 이상	6.5	88.4	5.1	100.0 ( 79)
	$\chi^2$		3.064		

구분		단축되었음	변동없음	증가하였음	계
지역 규모	대도시	6.0	84.3	9.6	100.0 (161)
	중소도시	11.2	84.8	4.0	100.0 (200)
	읍면지역	16.6	74.6	8.8	100.0 ( 76)
$\chi^2$		11.757*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144.

\*  $p < .05$

■ 한편, 유아의 경우에는 기본보육시간 변동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변동이 맞벌이 가구 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임.

- ◆ 외벌이 가구의 경우 맞벌이 가구에 비해 '변동 없다'는 응답이 낮은 반면, 단축되었다는 응답과 증가하였다는 응답 둘 다 맞벌이 가구에 비해 높은 특징을 보임.
- ◆ 맞벌이 가구 유아의 경우 기본보육시간 변동 이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단축되었다(8.5%)는 응답이 증가하였다(3.7%)에 비해 높게 나타나, 맞벌이 가구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데 제약이 생긴 것은 아닌지 우려를 갖게 함.
- ◆ 가구소득이 299만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경우 보육지원체제 개편 이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증가하였다(22.3%)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단, 관측치가 32 가구에 불과하므로 주의를 요함.

〈표 9〉 가구특성별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변동(2020년)

구분		단축되었음	변동없음	증가하였음	계
전체		10.0	83.5	6.5	100.0 (495)
맞벌이 가구 여부	맞벌이	8.5	87.8	3.7	100.0 (257)
	외벌이	11.7	78.9	9.5	100.0 (239)
	$\chi^2$	8.514*			
가구 소득	299만원 이하	3.1	74.6	22.3	100.0 ( 32)
	300~399만원 이하	12.5	79.8	7.7	100.0 ( 93)
	400~499만원 이하	7.7	88.9	3.4	100.0 (149)
	500~599만원 이하	15.3	77.0	7.6	100.0 ( 99)
	600만원 이상	8.4	87.3	4.3	100.0 (121)
$\chi^2$		22.794**			

	구분	단축되었음	변동없음	증가하였음	계
총 자녀수	1명	6.8	82.1	11.1	100.0 ( 76)
	2명	11.7	82.1	6.3	100.0 (300)
	3명 이상	8.0	87.8	4.2	100.0 (119)
	$\chi^2$		5.284		
지역 규모	대도시	11.7	82.5	5.8	100.0 (193)
	중소도시	9.5	82.7	7.7	100.0 (224)
	읍면지역	7.3	87.9	4.9	100.0 ( 79)
	$\chi^2$		2.279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163.

\*  $p < .05$ , \*\*  $p < .01$

-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전(2020년 2월 29일 이전)에도 어린이집을 다니던 경우, 보육지원체계 개편 이후(2020년 3월 1일 이후) 영아의 어린이집 주당 이용 시간이 변화했는지를 질문한 결과 변화 없다는 응답이 82.8%로 매우 높음.
  - ◆ 보육지원체계 개편 전후로 모두 어린이집을 다녔다는 영아는 72.5%로, 2020년 3월 이후 새롭게 어린이집을 다니게 된 영아는 주로 만2세 이하의 연령에 밀집됨.
  - ◆ 보육지원체계 개편 전후로 어린이집을 계속 다니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기본보육시간 변동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응답이 10.2%, 증가했다는 응답은 6.9%로, 단축되었다는 응답 비중이 다소 높음.
  - ◆ 연령별로 관측치가 매우 적은 만1세 이하를 차치하고, 만2세의 경우 기본보육시간 변동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증가했다는 응답(8.2%)이 단축되었다는 응답(7.6%)에 비해 약간 높음.
  - ◆ 반면, 만3세의 경우에는 기본보육시간 변동 전후로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단축되었다(11.0%)는 응답이 증가하였다(5.8%)에 비해 높았음.

〈표 10〉 보육지원체제 개편 이전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여부 및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이용시간 변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2월29일 이전 어린이집 이용 여부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이용시간 변동여부			
	네	아니오	계	단축 되었음	변동 없음	증가 하였음	계
전체	72.5	27.5	100.0 (603)	10.2	82.8	6.9	100.0 (437)
2020년생(0세)	30.6	69.4	100.0 ( 3)	0.0	100.0	0.0	100.0 ( 1)
2019년생(1세)	31.0	69.0	100.0 ( 57)	20.1	64.7	15.2	100.0 ( 18)
2018년생(2세)	62.0	38.0	100.0 (227)	7.6	84.2	8.2	100.0 (141)
2017년생(3세)	87.9	12.1	100.0 (315)	11.0	83.3	5.8	100.0 (277)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143.

■ 보육지원체제 개편 이전(2020년 2월 29일 이전)에도 어린이집을 다니던 유아의 경우에도 보육지원체제 개편 이후(2020년 3월 1일 이후) 어린이집 주당 이용 시간이 변화 없다는 응답이 83.5%에 달함.

- ◆ 보육지원체제 개편 전후로 모두 어린이집을 다녔다는 유아는 92.1%로, 대부분의 유아들은 만4세 이전에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함을 알 수 있음.
- ◆ 2020년 3월 이후 기본보육시간 변동에 따라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단축되었다는 응답이 10.0%, 증가했다는 응답은 6.5%로, 영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 ◆ 연령별로 만4세는 단축과 증가 비중이 비슷한 반면, 만5세와 만6세의 경우에는 단축되었다는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남.

〈표 11〉 보육지원체제 개편 이전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 여부 및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이용시간 변동 여부

단위 : %(명)

구분	2월 29일 이전 어린이집 이용여부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이용시간 변동여부			
	네	아니오	모름	계	단축 되었음	변동 없음	증가 하였음	계
전체	92.1	7.7	0.2	100.0 (538)	10.0	83.5	6.5	100.0 (495)
2016년생(4세)	93.3	6.7	0.0	100.0 (221)	7.2	85.0	7.8	100.0 (206)
2015년생(5세)	91.4	8.0	0.6	100.0 (180)	13.1	80.0	6.8	100.0 (164)
2014년생(6세)	91.1	8.9	0.0	100.0 (137)	10.6	85.5	4.0	100.0 (124)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162.

- 영아의 어린이집 하원시각대별로 기본보육시간 변동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변동을 살펴본 결과, 16시 이전에 하원 하는 경우 단축되었다는 응답이 16.5%로 높고, 18시 이후 하원 하는 경우에는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9.4%로 높음.
- ◆ 현재 하원 시각대를 기준으로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18시 이후 하원 영아의 경우 기본보육시간 변동 전후로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변동이 없다는 응답이 86.7%로 높게 나타남.
- ◆ 하원 시각대별 기본보육시간 변동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표 12〉 하원시각대별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변동(2020년)

단위 : %(명)

구분	단축되었음	변동없음	증가하였음	계	
전체	10.2	82.8	6.9	100.0 (437)	
하원 시간별	16:00 전	16.5	78.6	4.9	100.0 ( 43)
	16:00	10.9	83.0	6.1	100.0 (213)
	17:00	11.0	81.2	7.8	100.0 (101)
	18:00 후	4.0	86.7	9.4	100.0 ( 78)
	$\chi^2$		6.390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145.

- 유아의 어린이집 하원시각대별로 기본보육시간 변동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변동을 살펴본 결과 또한 영아와 경향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 ◆ 18시 이후에 하원 한다고 응답한 경우에 기본보육시간 변동 전후 이용시간이 증가하였다는 응답이 11.1%로, 보육지원체계 개편 전후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해서는 이전보다 더 긴 시간 기관 이용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임.
- ◆ 다만, 하원 시각대별 기본보육시간 변동에 따른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표 13〉 어린이집 하원시간별 기본보육시간변동에 따른 유아의 어린이집 이용시간 변동

단위 : %(명)

구분	단축되었음	변동없음	증가하였음	계	
하원 시간별	16:00 전	12.4	83.4	4.2	100.0 ( 48)
	16:00	11.3	82.9	5.8	100.0 (232)
	17:00	10.9	84.2	4.9	100.0 (132)
	18:00 후	3.9	85.0	11.1	100.0 ( 76)
$\chi^2$		7.167			

자료: 최효미 외(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Ⅲ). 육아정책연구소. p.163.

## 4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한 홍보 강화 및 기본보육시간 준수 노력 필요.
  - ◆ 기본보육시간이 종료되는 16시와 연장보육료 지원이 시작되는 시각인 17시 사이는 하원 지도 시간으로 운영됨. 즉, 연장보육을 받는 영유아는 16시 이후부터 연장보육 서비스를 받게 됨.
  - ◆ 17시 하원 비중은 영아 21.3%, 유아 26.0%이며, 18시 이후 하원 비중은 영아 15.9%, 유아 16.3%임. 즉, 기본보육시간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하원이 완료되는 비중은 영아 62.8%, 유아 57.7%에 그침.
  - ◆ 연장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지만 기본보육시간이 지난 후에 하원 하는 영유아가 많아, 담임교사들의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가 상쇄될 뿐 아니라 현장의 혼선(하원지도와 연장보육 서비스가 동시에 진행됨)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 ◆ 또, 연장보육료 지원은 17시 이후 30분 단위로 지원되기 때문에(보건복지부, 2020: 350~351), 실질적으로 기본보육시간이 16시가 아닌 17시에 종료된다고 볼 수 있음.
  - ◆ 가능한 기본보육시간 이내에서 하원지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개편에 대한 홍보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으며, 연장보육료 지원 기준 시간에 대한 조정이 요구됨.

### ■ 연장보육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예산 및 인력의 원활한 지원

-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시간에 제약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대다수의 부모들이 현재 어린이집 이용시간에 만족하고 있음.
-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18시 이후 하원 영유아 비중은 15% 내외로 많지 않은 수준임. 즉, 19시 30분까지 연장보육 서비스가 지원되지만 장시간 기관 보육을 이용하는 영유아는 많지 않음.
- ◆ 분석에 활용된 동 자료에서 전체 응답자 중 맞벌이 가구의 비중은 44.5%(최효미 외, 2020: 78)로, 맞벌이 가구의 상당수조차 18시 이전에 하원지도가 이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음.
- ◆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경우 ‘실질적인 연장보육 서비스의 이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가장 컸음.
- ◆ 본고의 분석 결과만으로는 맞벌이 가구의 영유아가 18시 이전에 하원 하는 명확한 이유를 특정할 수는 없으나, 어린이집에서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는 지점임.
- ◆ 한편, 기본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대해 맞벌이 가구가 외벌이 가구에 비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는데, 이는 연장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에 대한 기대감에 기반함.
- ◆ 보육지원체계 개편의 성공적 안착은 연장보육 서비스의 질이 제고되는 것에 있다고 할 것임. 연장보육 서비스가 제도의 취지에 맞춰 운영될 수 있도록 원활한 예산 지원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구됨.

### ■ 연장보육 특화 어린이집 지정 검토 및 입소대기 시스템 연계

- ◆ 장시간 기관 이용자(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자)가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기지 않도록 하면서 어린이집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서비스 제공 방식을 집약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이에 ‘연장보육 특화 어린이집’ 지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입소대기 시스템 연계를 통해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자 편의 제고 등의 조치 시행.

- ◆ ‘연장보육 특화 어린이집’ 지정은 기존의 거점형 어린이집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연장보육 서비스와 관련하여 특화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다른 어린이집은 연장보육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님. 특히, 영유아들이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 시간에 해당 어린이집으로 이동하는 것은 고려 사항이 아님.
- ◆ 영유아 부모들이 입소 당시 연장보육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어린이집을 인지하기 쉽도록 입소대기 시스템 등에서 구분하여 안내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체계의 하나임.
- ◆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특화 어린이집 중심으로 연장보육 서비스 이용자가 모이게 되면, 혼자 남는 영유아가 줄어들어 연장보육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제고될 뿐 아니라 어린이집 입장에서 규모의 경제로 인한 효율적 운영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I 참고 문헌 I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지원체계 개편 홍보자료-묻고 답하기(부모용). [http://www.mohw.go.kr/upload/content\\_data/2020/qna\\_08\\_01.pdf](http://www.mohw.go.kr/upload/content_data/2020/qna_08_01.pdf) (인출일: 2021. 4. 2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육지원체계 개편.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8&PAGE=8&topTitle](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00108&PAGE=8&topTitle) (인출일: 2021. 4. 20).

보건복지부(2020). 2020 보육사업안내.

최효미·이정원·박은정·김태우(2020). KICCE 소비실태조사: 양육비용 및 육아서비스 수요 연구 (Ⅲ). 육아정책연구소.

| 이슈페이퍼 2021-05 |

# 어린이집 맞춤형 다문화 보육 지원 방안

박은정

1. 서론
2. 보육교직원의 맞춤형 다문화 보육 지원에 대한 인식
3. 다문화 영유아 재원 어린이집 군집별 특성 및 정책욕구
4. 맞춤형 다문화 보육을 위한 정책 제언

참고문헌



## 어린이집 맞춤형 다문화 보육 지원 방안\*

박은정 부연구위원

### ◆◆ 요약 ◆◆

- 다문화 보육 현장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어린이집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보육 지원이 요구됨.
- 원장 및 보육교사 설문조사 결과, 어린이집 특성별 맞춤형 지원 시 재원 다문화 영유아 수, 어린이집의 지역규모, 지역 내 다문화 인구수 순으로 우선 반영되어야 한다고 응답함.
- 어린이집 조사결과를 토대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어 발달 지연 다문화 영유아 과밀 군집(1군집), 다문화 유아 과밀 농어촌 군집(2군집), 다문화 유아 과밀 도시 군집(3군집), 소규모 다문화 영아 중심 군집(4군집), 총 4개 군집이 도출됨.
- 한국어 발달 지연 다문화 영유아 과밀 군집(1군집)은 복합적 취약성을 가진 다문화 영유아가 밀집되어 있는 어린이집 군집으로, 다문화 보육 관련 원스톱 통합 서비스 기관 설치 및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 제도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다문화 유아 과밀 농어촌 군집(2군집)은 농어촌 소재 어린이집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확대 및 연계 강화에 대한 수요도 높음.
- 어린이집 특성별 맞춤형 다문화 보육 지원을 위한 농어촌형 다문화 보육 지원 모델, 다문화 영유아 언어발달 집중 지원 모델, 통합사례관리형 모델 구축과 이를 위한 맞춤형 다문화 보육 시범사업 실시를 제안하였으며, 개별적인 맞춤형 지원을 위해 다문화 보육 통합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다문화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을 제안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수시과제인 「다문화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박은정·박창현·조혜주, 2020)」의 내용 중 일부를 발췌·보완하여 작성한 것임.

## 1 서론

- 다문화 영유아의 수와 어린이집 이용률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 보육정책의 강화 및 내실화가 요구됨.
  - ◆ 보건복지부는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의 세부추진 과제로 ‘다문화 아동 통합보육을 위한 여건 개선’을 제시함(보건복지부, 2017).
  - ◆ 그러나 실질적인 어린이집 다문화 보육 관련 정책적 논의와 지원은 확장되지 못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내 다문화 보육을 위한 콘텐츠나 프로그램 개발도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
- 다문화 보육 지원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다문화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집별 특성을 진단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요구됨.
  - ◆ 지금까지 다문화 관련 실태조사는 주로 결혼이주여성 및 학령기 아동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도 영유아 대상 실태조사는 상당히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음(최은영, 2015; 김송이·심자영, 2019; 박은정·박창현·조혜주, 2020:18에서 재인용).
  -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다문화 영유아가 급증한 상황에서 어린이집 현장의 어려움도 증가하였으나, 다문화 보육 현장의 실태를 정밀하게 파악하고 특성별 다양성을 반영한 연구는 부족함.
- 따라서 본고는 어린이집의 맞춤형 다문화 보육 지원에 초점을 두어, 이에 대한 보육 교직원의 인식을 살펴보고, 어린이집 특성을 반영한 군집별 정책육구 분석을 토대로 맞춤형 다문화 보육 지원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 본고는 2020년 실시한 「다문화 영유아 재원 어린이집 보육 실태조사」 분석과 포커스 집단 면담 결과를 토대로 함. 실태조사는 어린이집 조사(원장 응답)와 보육교사 조사로 구분됨.

## 2 보육교직원의 맞춤형 다문화 보육 지원에 대한 인식

### 가. 어린이집별 필요에 따른 지원 요구

- 다문화 영유아 재원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의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의 필요 여부를 질문한 결과, 5점 만점에 원장은 2.9점, 보육교사는 3.2점으로 원장이 보육교사에 비해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의 필요성을 다소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 필요성에서 모두 동일하게 나타남.
  - ◆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원장 응답에서는 시설유형별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보육교사의 응답에서는 특히 이용 연령이 낮은 가정어린이집에서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의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1〉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의 필요성

단위: 점

구분	중앙정부 차원		지자체 차원		
	원장	보육교사	원장	보육교사	
전체	2.9	3.2	2.9	3.2	
시설유형	국공립	2.9	3.3	3.0	3.3
	민간	2.8	3.4	2.9	3.5
	가정	2.7	2.5	2.8	2.5
	기타	2.8	2.9	2.8	2.9
	<i>F</i>	7.589	3.908**	11.377	5.119**
지역유형	대도시	3.2	3.5	3.4	3.5
	중소도시	3.1	3.3	3.1	3.4
	농어촌	2.3	2.8	2.4	2.9
	<i>F</i>	31.234***	6.720**	41.452***	7.094**

자료: 박은정 외(2020). 다문화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37.

\*\*  $p < .01$ , \*\*\*  $p < .001$ .

- ◆ 원장과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한 FGI의 결과에서 살펴보면, 일괄적인 지정보다는 어린이집별 필요에 따른 서비스 지원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기를 희망하고 있음을 파악

할 수 있음.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은 오히려 다문화 아동을 구분하는 조치가 될 수 있으며 효율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음. 어린이집의 필요에 따라서 파견이나 프로그램 지원 등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음.

시설 유형보다 어린이집의 다문화 아이의 숫자에 대해 지원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라요. 저희는 민간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어린이집 이야기를 들을 만큼 정말 많이 다니는데 그에 대한 게 없어서 힘든 점이 많아요. 특정하기보다 아이의 숫자에, 가족 수에 조사를 많이 해서 이러한 부분에 도움이 되면 좋겠어요. (교사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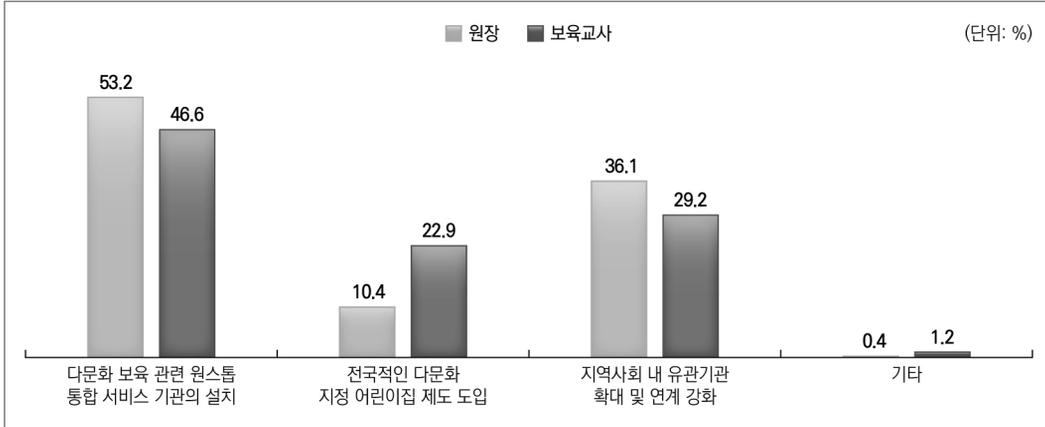
지금은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보다, 지정해 주는 것 보다 그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보조를 하고 지원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파견나와서 아이들 치료가 필요하거나 교육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좋겠어요. ...(중략)... 그걸 분리해서 다문화에 대한 진짜 어린이집의 부서를 만들어서, 파견 나갈 수 있는 교사라든지, 프로그램을 하든지 그런 센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파견할 때도 관리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잖아요. 전문 기관이 있되, 있으면 더 확대시켜서 넓혀 줬으면 좋겠어요. (원장 2)

저는 지정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사회가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굉장히 급속도로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다문화인데 지정하지 말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지원하면 좋겠어요. 지정해가지고는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부의 시책을 다 하려는 상태인데 다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따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원장 1)

대체로 다문화가 많아지므로 정책적 면에서 지원을 구분하기보다 전체적인 면에서 프로그램 활성화 또는 교사를 인적으로 상담을 했을 때 상담을 의뢰하거나 교사지원을 하거나. 원에게 파견을 문제 소지가 있으면 파견하고 효과적으로 원 운영이 될 수 있도록요. 학부모 의사전 달면에서도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면에서 보완해 주시면 이제 구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글로벌 시대이므로 많은 다문화가 탄생할 거고 구분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원장 4)

■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 제도보다는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다문화 보육 관련 원스톱 통합 서비스 기관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 비용 및 인력 지원, 다문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 이외에 다문화 보육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물어본 결과, 다문화 보육 관련 원스톱 통합 서비스 기관의 설치가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원장과 보육교사 응답에서 모두 가장 높았음.
- ◆ 원장 응답 비율은 53.2%로 절반을 상회하였음.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확대 및 연계 강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원장이 36.1%, 보육교사가 22.9%였음. 한편, 전국적인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원장 응답은 10.4%에 그침.



자료: 박은정 외(2020). 다문화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33을 토대로 구성함.

[그림 1] 다문화 보육 개선을 위한 우선 지원 정책

#### 나. 맞춤형 지원 시 우선 반영 특성

- 어린이집 특성별 맞춤형 지원을 할 경우 어린이집 내 다문화 영유아의 재원 수, 어린이집의 지역규모, 지역 내 다문화 인구수 순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 원장 응답에서는 어린이집 내 다문화 영유아의 재원 수가 48.9%로 매우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보육교사의 응답에서도 39.5%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의 지역규모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원장이 18.9%, 보육교사는 19.4%였으며, 지역 내 다문화 인구수를 응답한 비율은 원장이 16.1%, 보육교사는 18.2%였음.
  - ◆ 시설유형별로는 원장 응답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가정 어린이집에서 재원 다문화 영유아 수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가장 선호하였음. 기타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 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 선호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농어촌의 경우 법인·단체 등, 사회복지법인 형태의 어린이집 유형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됨(표 2 참조).
  - ◆ 지역유형별로는 도시지역과 다르게 농어촌 지역에서는 재원 다문화 영유아 수보다 어린이집의 지역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원장과 보육교사 응답에서 모두 동일하였음(표 2, 3 참조).
  - ◆ 재원 다문화 영유아 수(규모)에 따른 맞춤형 지원 선호에서는 보육교사응답만 유의

미한 차이를 보임. 재원 다문화 영유아가 10명 이상인 경우는 42.7%가 재원 다문화 영유아 수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선택하였음. 다문화 영유아가 1~4명인 어린이집은 재원 다문화 영유아 수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문화 인구수를 응답한 비율이 26.3%로 높게 나타났으며, 5~9명인 경우는 어린이집 지역 규모를 응답한 비율인 32.9%로 다른 규모의 어린이집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남. 이는 조사 대상 어린이집 중 5~9명 규모인 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농어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됨(표 3 참조).

〈표 2〉 맞춤형 다문화 보육 지원 시 우선 반영 특성(원장)

단위: %(명)

구분	원장 응답						계(수)	
	어린이집 시설유형	지역 내 다문화 인구수	어린이집 내 다문화 영유아 재원 수	어린이집 내 다문화 영유아의 국적	재원 중인 다문화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수준	어린이집의 지역 규모		
전체	3.6	16.1	48.9	2.9	9.6	18.9	100.0(280)	
시설 유형	국공립	2.0	15.8	50.5	4.0	12.9	14.9	100.0(101)
	민간	5.1	22.2	49.5	3.0	9.1	11.1	100.0(99)
	가정	0.0	16.7	66.7	0.0	0.0	16.7	100.0(18)
	기타	4.8	6.5	40.3	1.6	8.1	38.7	100.0(62)
	$\chi^2$	31.563**						
지역 유형	대도시	6.0	21.4	46.4	3.6	10.7	11.9	100.0(84)
	중소도시	2.0	19.0	63.0	2.0	8.0	6.0	100.0(100)
	농어촌	3.1	8.3	36.5	3.1	10.4	38.5	100.0(96)
	$\chi^2$	46.294***						
다문화 영유아 규모	1~4명	5.5	17.3	50.9	2.7	10.0	13.6	100.0(110)
	5~9명	3.6	18.1	45.8	1.2	10.8	20.5	100.0(83)
	10명 이상	1.1	12.6	49.4	4.6	8.0	24.1	100.0(87)
	$\chi^2$	8.795						

자료: 박은정 외(2020). 다문화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38.

\*\*  $p < .01$ , \*\*\*  $p < .001$ .

〈표 3〉 맞춤형 다문화 보육 지원 시 우선 반영 특성(보육교사)

단위: %(명)

구분	보육교사 응답						어린이집의 지역 규모	계(수)
	어린이집 시설유형	지역 내 다문화 인구수	어린이집 내 다문화 영유아 자원 수	어린이집 내 다문화 영유아의 국적	재원 중인 다문화 영유아 부모의 경제적 수준	어린이집의 지역 규모		
전체	7.9	18.2	39.5	4.0	11.1	19.4	100.0(253)	
시설 유형	국공립	10.2	20.4	42.9	3.1	8.2	100.0( 98)	
	민간	10.1	19.0	36.7	3.8	11.4	100.0( 79)	
	가정	11.8	23.5	35.3	5.9	11.8	100.0( 17)	
	기타	0.0	11.9	39.0	5.1	15.3	100.0( 59)	
	$\chi^2$	14.821						
지역 유형	대도시	13.9	16.5	45.6	5.1	10.1	100.0( 79)	
	중소도시	4.9	22.2	43.2	4.9	13.6	100.0( 81)	
	농어촌	5.4	16.1	31.2	2.2	9.7	100.0( 93)	
	$\chi^2$	30.716**						
다문화 영유아 규모	1~4명	7.1	26.3	37.4	5.1	15.2	100.0( 99)	
	5~9명	11.4	10.1	39.2	1.3	5.1	100.0( 79)	
	10명 이상	5.3	16.0	42.7	5.3	12.0	100.0( 75)	
	$\chi^2$	27.937**						

자료: 박은정 외(2020). 다문화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39.

\*\*  $p < .01$ .

### 3 다문화 영유아 자원 어린이집 군집별 특성 및 정책욕구

#### 가. 다문화 영유아 자원 어린이집 군집 특성

- 어린이집 조사에 응답한 어린이집 중 결측치가 없는 277개 사례를 대상으로 K-평균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군집을 도출함.
  - ◆ 어린이집 특성을 구분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도출된 변인들을 투입하여 분석한 결과, 재원 다문화 영유아 수, 재원 다문화 영유아 연령, 지역 유형(농어촌 더미), 다문화 영유아의 한국어 구사 능력 요인을 기준으로 분석하였을 때 모든 요인에서 유의미하

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남.

- ◆ 1군집은 ‘한국어 발달 지연 다문화 영유아 과밀 군집’으로 명명함. 재원 중인 다문화 영유아 수가 가장 많고, 한국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한국어가 지체된 영유아가 많은 어린이집임.
- ◆ 2군집은 ‘다문화 유아 과밀 농어촌 군집’으로,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어린이집이며, 재원 영유아의 연령이 다소 높아 유아가 많고, 재원 중인 다문화 영유아 수도 많은 편임.
- ◆ 3군집은 ‘다문화 유아 과밀 도시 군집’임. 대도시, 중소도시에 소재한 어린이집이며, 주로 만 4, 5세로 재원 중인 다문화 원아의 연령이 가장 높음.
- ◆ 4군집은 ‘소규모 다문화 영아 중심 군집’으로 다문화 영유아 수가 가장 적고 주로 영아가 이용하며, 지역 유형과 한국어 구사 능력에서 특징을 보이지 않음.

〈표 4〉 다문화 영유아 재원 어린이집 특성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단위: 명, %

군집요인	군 집				F
	1 (n=10)	2 (n=79)	3 (n=126)	4 (n=62)	
다문화 영유아 수	1.78722	.16912	.08389	-.67091	26.684***
다문화 영유아 연령	.08796	.20580	.53544	-1.36675	116.249***
농어촌 여부	-.30043	1.38196	-.72102	-.28008	384.923***
한국어 구사 능력(하)	4.18291	-.07156	-.17746	-.20199	171.369***
군집특성	한국어 발달 지연 다문화 영유아 과밀 군집	다문화 유아 과밀 농어촌 군집	다문화 유아 과밀 도시 군집	소규모 다문화 영아 중심 군집	

주: 1) 어린이집 조사(원장) 응답 총 277개를 분석한 결과임.

2) 농어촌 더미: 농어촌=1, 대도시·중소도시=0

3) 한국어 구사 능력 하(한국어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의사표현이 불가능함) 인원수 변수임.

자료: 박은정 외(2020). 다문화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40.

\*\*\*  $p < .001$ .

- 어린이집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재원 다문화 영유아 여부를 군집별로 분석한 결과, 한국어 발달 지연 다문화 영유아가 밀집되어 있는 어린이집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영유아가 있다는 응답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 ◆ 군집별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어 발달 지연 다문화 영유아 과밀 군집인 1군집에서 어린이집 적응 곤란 다문화 영유아가 있다는 응답이 60%로 두드러지게 높게 나타났고, 2, 3군집에서는 23% 내외였으며, 4군집은 11.3%로 가장 낮았음.
- ◆ 이는 한국어 발달 정도가 다문화 영유아의 어린이집 적응에 주요한 영향요인임을 방증하는 결과이며, 한국어 발달 지연 다문화 영유아가 다수 재원하는 어린이집의 특성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의미함.

〈표 5〉 군집별 어린이집 생활 적응 곤란 다문화 영유아 유무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계(수)
전체	21.7	78.3	100.0(277)
군집	1. 한국어 발달 지연 다문화 영유아 과밀 군집	60.0	100.0( 10)
	2. 다문화 유아 과밀 농어촌 군집	22.8	100.0( 79)
	3. 다문화 유아 과밀 도시 군집	23.0	100.0(126)
	4. 소규모 다문화 영아 중심 군집	11.3	100.0( 62)
$\chi^2$	12.787**		

자료: 박은정 외(2020). 다문화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41.

\*\*  $p < .01$ .

- 재원 다문화 영유아의 가구특성을 군집별로 분석한 결과, 외국인 노동자 가구와 한부모·조손가구에 속하는 재원 다문화 영유아의 수가 1군집에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남.
- ◆ 외국인 노동자 가구에 속하는 재원 영유아 수를 살펴보면, 1군집에서 어린이집당 평균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3군집이 2.1명, 2군집인 1.16명이었고, 4군집은 0.45명에 그침.
- ◆ 한부모·조손가구에 속하는 재원 다문화 영유아의 수에서도 1군집이 2.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2군집이 0.49명, 3군집은 0.48명이었고, 4군집은 역시 0.11명으로 가장 낮았음.
- ◆ 즉, 1군집에 속하는 어린이집에는 복합적인 취약성을 가진 다문화 영유아가 다수 재원하고 있음.

〈표 6〉 군집별 재원 다문화 영유아의 가구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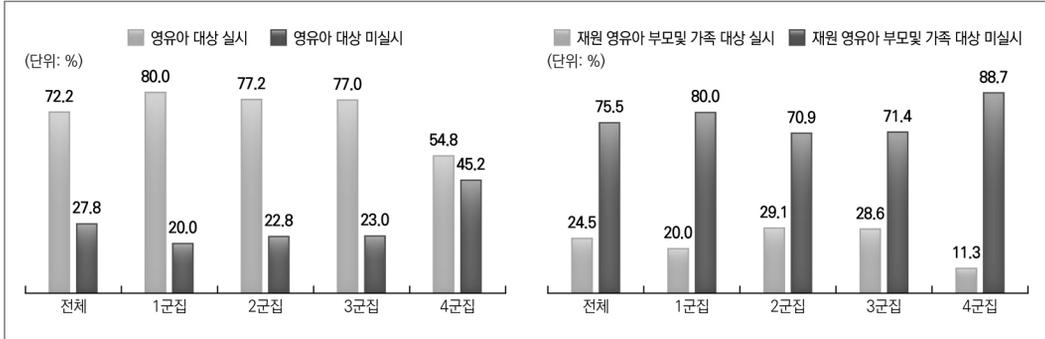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외국인 노동자 가구			한부모·조손가구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1. 한국어 발달 지연 다문화 영유아 과밀 군집	10.00	12.508		2.20	3.120	
2. 다문화 유아 과밀 농어촌 군집	1.16	2.478	14.733	0.49	0.918	11.299
3. 다문화 유아 과밀 도시 군집	2.10	5.034	***	0.48	1.071	***
4. 소규모 다문화 영아 중심 군집	0.45	0.986		0.11	0.367	
전체	1.75	4.640		0.46	1.115	

자료: 박은정 외(2020). 다문화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41을 토대로 재구성함.

\*\*\*  $p < .001$ .

- 어린이집에서 재원 영유아 대상 또는 부모 및 가족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이나 다문화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재원 영유아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은 72.2%가 실시하고 있으며, 부모 및 가족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은 24.5%만 실시하고 있음.
- ◆ 영유아 대상 다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여부를 군집별로 비교해보면, 1군집에서 8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2, 3군집은 77.2%, 77%로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4군집은 54.8%에 그침.
- ◆ 재원 영유아의 부모 및 가족 대상 교육 및 프로그램은 영유아 대상보다 낮은 실시 비율을 보이나, 다문화 유아가 집중되어 있는 어린이집인 2, 3군집에서 각각 29.1%, 28.6%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다문화 영유아가 많이 재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대상 다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자료: 박은정 외(2020). 다문화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43을 토대로 재작성함.

[그림 2] 군집별 어린이집 다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여부

다문화 영유아 자원 어린이집 군집별 특성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 <표 7>과 같음.

<표 7> 다문화 영유아 자원 어린이집 군집별 특성 종합

군집	어린이집 특성
1. 한국어 발달 지연 다문화 영유아 과밀 군집	지역유형 혼재 자원 다문화 영유아 수가 가장 많음 한국어 구사 능력이 또래에 비해 미흡한 다문화 영유아 다수 어린이집 생활 적응 곤란 다문화 영유아의 비중이 높음 다른 군집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 자녀수가 가장 많음 한부모·조손가구에 속하는 다문화 영유아 수가 가장 많음 자원 영유아 대상 다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비율이 가장 높음
2. 다문화 유아 과밀 농어촌 군집	농어촌 지역 소재 다문화 영유아의 연령이 높은 편임 자원 영유아 부모 및 가족 대상 다문화 교육 및 프로그램 실시 비율이 가장 높음
3. 다문화 유아 과밀 도시 군집	대도시, 중소도시 소재 다문화 영유아의 연령이 가장 높음(만 4, 5세 중심) 외국인 노동자 자녀수가 많은 편임
4. 소규모 다문화 영아 중심 군집	지역유형 혼재 다문화 영유아 수가 적고 자원 영유아의 연령이 낮음(영아 중심) 각 특성의 응답 비율 및 수가 가장 낮게 나타남

자료: 박은정 외(2020). 다문화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143~144.

## 나. 다문화 영유아 자원 어린이집 군집별 정책욕구

- 비용 및 인력 지원, 다문화 프로그램 및 서비스 지원 이외에 다문화 보육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물어본 결과, 군집별 정책욕구가 상이하게 도출됨.
  - ◆ 1군집에서는 다문화 보육 관련 원스톱 통합 서비스 기관 설치가 60%로 가장 높았으며, 전문적인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 제도 도입은 40%가 응답함. 1군집에서 한국어 발달 및 복합적 취약성을 가진 다문화 영유아 대상 보육 시 부담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할 때, 다문화 보육 원스톱 통합 서비스 기관의 설치에 대한 높은 욕구는 취약성을 가진 다문화 영유아의 필요에 따른 지원에 대한 욕구임을 추론할 수 있음.
  - ◆ 다문화 유아 과밀 농어촌 군집인 2군집에서는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확대 및 연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문화 보육 관련 원스톱 통합서비스 기관 설치가 38%로 나타남. 농어촌 지역은 활용 가능한 지역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유관기관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연계 강화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남.
  - ◆ 원장 FGI에서 농어촌 지역의 어린이집은 지리적 접근성의 문제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시골이니까 아이들 한 명 데리고 오려 해도 시골 깊숙이 들어와서 20~30분 데리고 와야 하는데. ...(중략)... 그런데 산골짜 아이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지라서. 그런 아이들이 우리가 가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 가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저희가 차 운행을 하는데 두 시간 반, 세 시간 걸려요. 한 차가 아니라 그 애를 데려다 주고 20, 30분을 갔다 오고 다섯 번을 움직이는데, 아이가 오래 차를 탈 수 없어서 요기 데려다 놓고 와서 또 데려다 놓으니까, 다섯 번을 운행하니까. 그 애기 하나도 20분 걸려요. 그런데 00군은 대부분 그래요. 농어촌은 다 그래요. 우리는 길이 막히는 게 아니라 거리가. (원장2)

- ◆ 3군집, 4군집은 1군집과 마찬가지로 다문화 보육 관련 원스톱 통합 서비스 기관 설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 제도에 대한 필요도는 낮게 나타났고,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확대 및 연계 강화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남.

〈표 8〉 군집별 다문화 보육 개선을 위한 우선 지원 정책

단위: %(명)

구분	다문화 보육 관련 원스톱 통합 서비스 기관 설치	전국적인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 제도 도입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확대 및 연계 강화	기타	계	
전체	53.4	10.1	36.1	0.4	100.0(277)	
군집	1. 한국어 발달 지연 다문화 영유아 과밀 군집	60.0	40.0	0.0	0.0	100.0(10)
	2. 다문화 유아 과밀 농어촌 군집	38.0	8.9	51.9	1.3	100.0(79)
	3. 다문화 유아 과밀 도시 군집	60.3	9.5	30.2	0.0	100.0(126)
	4. 소규모 다문화 영아 중심 군집	58.1	8.1	33.9	0.0	100.0(62)
$\chi^2$		12.787**				

자료: 박은정 외(2020). 다문화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45.

\*\*  $p < .01$ .

■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의 필요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질문한 결과, 1군집에서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 필요도를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문화 유아 과밀 농어촌 군집인 2군집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 ◆ 1군집은 중앙정부 지정 필요도에서 평균 3.6점, 지자체 지정 필요도에서 평균 3.7점으로 나타남. 한국어 발달 지연 및 어린이집 적응 곤란 등을 겪는 원아가 많은 어린이집에서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을 통한 추가적인 지원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 농어촌 군집인 2군집의 어린이집은 중앙정부 지정 필요도에서 평균 2.38점, 지자체 지정 필요도에서 평균 2.44점으로 응답함. 즉,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의 경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에 대한 욕구는 높으나,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은 거의 필요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 9〉 군집별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 필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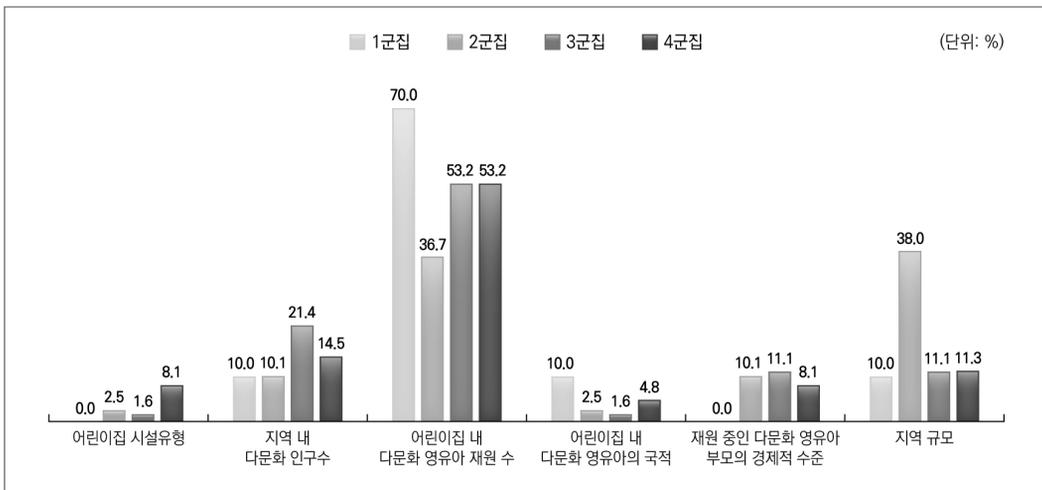
단위: 점

구분	중앙정부 지정			지자체 지정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군집	1. 한국어 발달 지연 다문화 영유아 과밀 군집	3.60	1.265	3.70	1.252	5.999**
	2. 다문화 유아 과밀 농어촌 군집	2.38	1.333	2.44	1.318	
	3. 다문화 유아 과밀 도시 군집	3.06	1.241	3.15	1.200	

구분	중앙정부 지정			지자체 지정		
	평균	표준편차	F	평균	표준편차	F
4. 소규모 다문화 영아 중심 군집	2.95	1.247		2.98	1.235	
전체	2.86	1.304		2.93	1.282	

자료: 박은정 외(2020). 다문화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146.  
 \*\*  $p < .01$ , \*\*\*  $p < .001$ .

- 어린이집 맞춤형 지원 시 우선적으로 반영해야할 어린이집 특성을 질문한 결과, 전체적으로 어린이집 내 다문화 영유아 재원 수를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농어촌 지역 군집인 2군집에서는 지역규모가 1순위로 나타남.
- ◆ 군집별 응답 양상을 살펴보면, 2군집의 응답 양상이 가장 상이하게 나타남. 2군집은 다문화 유아 과밀 농어촌 군집으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다문화 보육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재확인함.
- ◆ 1군집에서는 어린이집 내 다문화 영유아 재원 수에 따른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으며, 다문화 유아 과밀 도시 군집인 3군집에서는 지역 내 다문화 인구수에 따른 지원에 대한 욕구가 다른 군집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음. 3군집의 경우 공업단지와의 같은 다문화 밀집 지역에 위치한 어린이집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됨.



자료: 박은정 외(2020). 다문화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146~147을 토대로 구성함.

[그림 3] 군집별 맞춤형 지원 시 우선 반영 어린이집 특성

- 지금까지 분석한 다문화 영유아 재원 어린이집의 군집별 정책 욕구를 종합하면 다음 <표 10>과 같음.

<표 10> 다문화 영유아 재원 어린이집 군집별 정책 욕구 종합

군집	정책 욕구 특성
1. 한국어 발달 지연 다문화 영유아 과밀 군집	다문화 보육 관련 원스톱 통합 서비스 기관 설치에 대한 가장 높은 수요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 제도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필요도 맞춤형 지원 시 다문화 영유아 재원 수 우선 반영에 대한 압도적 선호
2. 다문화 유아 과밀 농어촌 군집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확대 및 연계 강화에 대한 높은 수요 다문화 지정 어린이집 제도에 대한 가장 낮은 선호 지역규모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에 대한 높은 수요
3. 다문화 유아 과밀 도시 군집	다문화 보육 원스톱 통합 서비스 기관 설치에 대한 상대적 높은 수요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확대 및 연계 강화에 대한 수요도 존재 지역 내 다문화 인구수에 따른 맞춤형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은 편
4. 소규모 다문화 영아 중심 군집	다른 군집에 비해 절대적으로 높은 수요를 보인 정책 욕구가 없음 다문화 보육 원스톱 통합 서비스 기관 설치에 대한 상대적 높은 수요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확대 및 연계 강화에 대한 수요도 존재

자료: 박은정 외(2020). 다문화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pp.144~147을 토대로 정리함.

## 4 맞춤형 다문화 보육을 위한 정책 제언

### 가. 어린이집 특성별 맞춤형 다문화 보육 지원 모델

- 지금까지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다문화 영유아가 재원 중인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소재지 및 다문화 영유아의 특성에 따라 상이한 정책 욕구를 가지므로 효과적인 다문화 보육 지원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특성별 맞춤형 지원이 요구됨.
- 어린이집 특성별 맞춤형 다문화 보육 지원을 위해 크게 3가지 모델을 제안함.
  - ◆ 맞춤형 다문화 보육지원 모델 1: 농어촌형 다문화 보육 지원 모델
    - 농어촌 지역 어린이집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다문화 보육 지원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음.

- 따라서 서비스 및 시설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지역사회 내 연계가 가능한 유관기관을 적극 개발하고 유관기관의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연계 모델을 구축하여 다문화 보육 지원을 실시하여야 함.
- ◆ 맞춤형 다문화 보육지원 모델 2: 다문화 영유아 언어발달 집중 지원 모델
  -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존의 언어발달지원 사업을 점검하고 확대하여 서비스 공급의 충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이 전제되어야 함.
  - 언어발달 진단 작업을 바탕으로 언어 발달 지연 다문화 영유아가 있는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언어발달 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한국어 발달 지연은 복합적 취약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러한 다문화 영유아가 밀집되어 있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인력 및 서비스 연계도 필요함.
- ◆ 맞춤형 다문화 보육지원 모델 3: 통합사례관리형 모델
  - 복합적 취약성을 가진 다문화 영유아에게는 개별적인 서비스 연계보다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지속적이고 다양한 개입이 필요함. 따라서 복합적 취약성을 가진 다문화 영유아가 밀집되어 있는 어린이집이 통합사례관리의 발걸을 위한 전달체계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지역 내 사회복지 전달체계를 활용하여야 함.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사업나 드림스타트의 아동통합지원서비스 등과 연계하거나 협업할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특성별 맞춤형 다문화 보육 지원 모델로 제시한 농어촌형 다문화 보육 지원 모델, 다문화 영유아 언어발달 집중 지원 모델, 통합사례관리형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맞춤형 다문화 보육 시범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나. 다문화 보육 통합 서비스 지원 방안

- 다문화 보육 통합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어린이집 특성별 맞춤형 다문화 보육 지원 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중앙 기구 차원에서 MOU를 체결하는 등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선제되어야 함.
  - ◆ 개별 어린이집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나 육아종합지원센터와의 서비스 연계를 추

진하기도 하나, 이는 개별 어린이집의 상황에 따라 격차가 큼.

- ◆ 따라서 중앙기구 차원에서 MOU를 체결하고 연계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전국 단  
위에서 체계적인 기관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새로운 원스톱 통합서비스 기관을 설치하는 것보다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서비스 확대 방안이 효율적이므로 다문화 코디네이터 제도 도입을 제안함.
  - ◆ 다문화 코디네이터는 다문화 보육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문화 보육 연계서비  
스를 담당하는 인력을 의미하며, 다문화 코디네이터는 어린이집 유관기관(육아종합  
지원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배치되어 지역사회 내 자원과 어린이집을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함.
  - ◆ 모든 지역 센터에 다문화 코디네이터를 배치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므로, 우선  
권역별로 배치하여 다문화 보육 통합서비스 사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제안함.

## I 참고 문헌 I

김송이·심자영(2019). 서울시 어린이집 취약보육 운영 내실화(II): 다문화보육을 중심으로. 서울 시여성가족재단.

박은정·박창현·조혜주(2020). 다문화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 연구소.

보건복지부(2017). 제3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2018-2022).

최은영(2015). 다문화가정 영유아 교육·보육정책 현황 및 과제. 현대사회와다문화, 5(2), 161-180.

PART

# 02

## 지역사회·직장의 양육 지원

▮ 직장 내 육아문화 진단과 과제  
권미경

▮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강은진



| 이슈페이퍼 2021-03 |

# 직장 내 육아문화 진단과 과제

권미경

1. 배경 및 문제점
2. 직장 내 육아문화 진단(Ⅰ): 직장인의 양육관과 양육현황
3. 직장 내 육아문화 진단(Ⅱ): 직장인의 양육관련 제도 활용
4. 직장 내 육아문화 진단(Ⅲ): 직장의 육아관련 문화 양상
5. 직장 내 육아문화 개선방안

참고문헌



## 직장 내 육아문화 진단과 과제\*

권미경 연구위원

### ◆◆ 요약 ◆◆

- 직장인들이 희망하는 이상적인 자녀수는 2.1명이나 실제 자녀수는 1.7명으로 직장인들이 자녀를 낳고 싶은 마음만큼 자녀를 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 직장에서 일·가정양립을 위한 제도가 있어도 직장에서의 분위기와 여건이 달라 자유로운 활용은 쉽지 않아 제도 도입 여부와 실제 활용은 차이가 있음이 확인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일·생활 균형제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이후 일제히 관련 제도(‘시차출퇴근제’, ‘자율출퇴근제’, ‘재택 및 원격근무제’, ‘가족돌봄휴가’ 등)의 도입 및 활용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코로나 상황이 일·생활 균형제도의 실행을 앞당기는 계기가 됨.
- 직장 내 육아문화의 진단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은 “제도는 있지만 그 사용은 쉽지 않다.”, “양육자가 자녀를 돌볼 시간이 필요하다.”,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제도 활용 격차가 크다.”, “직장 내 육아지원 활용 시 눈치 보이는 상황이 많다.”, “직장 육아지원 제도의 도입과 사용은 경영진에 의해 좌우된다.” 등으로 요약됨.

### 1

## 배경 및 문제점

- 본고는 우리사회에서 육아와 관련한 문화가 긍정적 측면보다는 부정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저출산 기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이는 정책적인 노력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함.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인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II): 직장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권미경·김나영·김아름·최인화·김영민·신하은·강민정·이승현·권소영, 2020)」 내용을 토대로 작성되었음.

- 2020년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II)」에서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설문조사, 육아문화 크리에이티브 워크숍 등을 통해 그 결과로 입증된 가설인 ‘우리의 일터에서는 육아하는 가정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고, 일·가정양립 지원정책,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은 쉽지 않다.’에 주목함.
  - ◆ 양육자의 일터인 직장은 양육자에게는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미시체계가며, 자녀에게는 직접적 상호작용이나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외체계(exosystem) 환경으로 기능함.
- 직장에서의 근로여건은 양육자의 물리적 시간의 확보, 심리 정서적 지원, 경제적 측면을 아우르는 양육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므로 양육자의 일터를 중심으로 형성된 육아관련 문화 양상을 진단하고 긍정적 방향으로의 변화를 도모하는 노력을 경주해야할 시점임.
- 본고는 양육자의 일터인 직장을 중심으로 아동과 부모가 존중받는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사회 직장에서 형성된 육아문화를 진단하여 제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 ◆ 이를 위해 민간 기업에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전국 20세 이상 49세 이하의 상용직 근로자 2,031명을 대상으로 육아에 대한 인식과 그 배경이 되는 영향 요인,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변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하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 논의에 앞서 본고에서 ‘육아문화’는 아동을 기르는 행위와 과정에 대한 총체로 관습(기술), 생각이나 언어, 가치, 규범이나 제도, 물리적 환경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함.
  - ◆ ‘육아(育兒)’는 아동을 기르는 행위와 과정으로 ‘양육(養育)’과 유사한 개념임.
  - ◆ ‘문화’란 사회적으로 전이되거나 구성되는 덩어리로, 이는 관습, 생각, 도식, 상징, 가치, 규범, 제도, 목표, 입법규칙, 인공물, 수정된 물리적 환경과 같은 것들로 구성됨 (Fiske, 2002; 85).

## 2 직장 내 육아문화 진단(Ⅰ): 직장인의 양육관과 양육현황

### 가. 결혼과 자녀

#### 1) 결혼에 대한 생각

■ ‘결혼은 해도 좋고 안해도 상관없다(44.6%)’는 중립적 생각이 가장 많았고, ‘결혼은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34.5%)’, ‘결혼은 꼭 해야 한다(10.9%)’로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45.4%를 차지하였고, 반면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부정적 인식은 7.9%에 불과함.

- ◆ 남성이 여성에 비해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여성은 ‘결혼은 해도 좋고 안해도 상관없다’ 56.0%,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13.1%로 나타난 반면, 남성은 각각 36.3%, 4.1%로 훨씬 적었고, 남성 중에서는 ‘결혼은 꼭 해야 한다’가 15.1%인데 여성은 5.0%에 불과함.
- ◆ 연령대별로는 20대의 결혼에 대한 부정적 생각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가 12.8%로 40대 5.9%보다 2배 이상 많았고, ‘결혼은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는 28.9%로 40대 37.2%에 비해 적었음.

〈표 1〉 결혼에 대한 생각

단위: %(명)

구분	결혼은 꼭 해야 한다	결혼은 가능하면 하는 것이 좋다	결혼은 해도 좋고 안해도 상관 없다	결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잘 모르겠다	계(수)
전체	10.9	34.5	44.6	7.9	2.1	100.0 (2,031)
성별						
남성	15.1	42.2	36.3	4.1	2.3	100.0 (1,176)
여성	5.0	24.0	56.0	13.1	1.9	100.0 ( 855)
$\chi^2(df)$	188.643(4)***					
연령						
20대	12.4	28.9	44.0	12.8	1.9	100.0 ( 477)
30대	10.4	35.1	45.4	7.0	2.1	100.0 ( 718)
40대	10.4	37.2	44.3	5.9	2.3	100.0 ( 836)
$\chi^2(df)$	27.452(8)***					

자료: 권미경 외(2020).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p.177.

\*\*\*  $p < .001$ .

2) 자녀에 대한 생각

■ 자녀에 대한 생각은 ‘자녀는 가능하면 있는 것이 좋다’가 35%로 가장 많았고, ‘자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29.8%, ‘자녀는 꼭 있어야 한다’ 22.0%로 긍정적 응답이 57.0%로 나타남.

- ◆ 여성은 ‘자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13.2%에 불과하나 남성은 28.4%이고, 여성 중 14%가 ‘자녀는 없는 것이 좋다’인데 비해 남성은 6.2%로 결혼과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생각도 남성이 더 긍정적임.
- ◆ 연령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녀는 꼭 있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고, ‘자녀는 없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줄어듦.
- ◆ 자녀연령을 기준으로 보면, 자녀가 없는 경우(미혼 포함)에는 ‘자녀는 없는 것이 좋다’ 15.3%로 자녀가 있는 다른 응답자가 2%대인 것에 비해 훨씬 많았고, 이에 비해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응답자 중 35.0%가 ‘자녀는 꼭 있어야 한다’고 답함.

〈표 2〉 자녀에 대한 생각

단위: %(명)

구분	자녀는 꼭 있어야 한다	자녀는 가능하면 있는 것이 좋다	자녀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	자녀는 없는 것이 좋다	잘 모르겠다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계(수)
전체	22.0	35.0	29.8	9.5	3.7	100.0 (2,031)
성별						
남성	28.4	38.8	24.1	6.2	2.5	100.0 (1,176)
여성	13.2	29.7	37.5	14.0	5.5	100.0 ( 855)
$\chi^2(df)$			137.404(4)***			
연령						
20대	14.7	27.7	33.3	18.4	5.9	100.0 ( 477)
30대	23.7	37.6	28.4	7.9	2.4	100.0 ( 718)
40대	24.8	36.8	28.9	5.7	3.7	100.0 ( 836)
$\chi^2(df)$			91.501(8)***			
막내자녀연령						
자녀 없음	13.0	29.0	36.7	15.3	5.9	100.0 (1,113)
영아	29.3	45.3	22.2	2.7	0.4	100.0 ( 225)
유아	33.0	42.6	20.1	2.7	1.5	100.0 ( 333)
초등 저학년	35.0	39.7	21.9	2.2	1.1	100.0 ( 360)
$\chi^2(df)$			276.951(12)***			

자료: 권미경 외(2020).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178.

\*\*\*  $p < .001$ .

3) 이상적인 자녀수와 실제 자녀 수

- 앞서 질문에서 ‘자녀는 없는 것이 좋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를 제외하고,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수가 몇 명인지 물어본 결과, 평균 2.1명으로 나타남. 이상적인 자녀의 수는 2명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70.8%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3명 이상 16.5%, 1명 12.7%로 나타남.

〈표 3〉 이상적 자녀수

단위: %(명), 명

구분	1명	2명	3명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12.7	70.8	16.5	100.0 (1,762)	2.1	0.6
연령						
20대	18.3	71.5	10.2	100.0 ( 361)	2.0	0.6
30대	13.4	70.2	16.5	100.0 ( 644)	2.0	0.6
40대	9.5	70.9	19.6	100.0 ( 757)	2.1	0.6
<i>F</i>					10.7***	
막내자녀연령						
자녀 없음	16.9	70.8	12.3	100.0 ( 877)	2.0	0.6
영아	9.2	69.7	21.1	100.0 ( 218)	2.1	0.6
유아	9.4	69.9	20.7	100.0 ( 319)	2.1	0.6
초등 저학년	7.5	72.1	20.4	100.0 ( 348)	2.2	0.6
<i>F</i>					12.4***(a)	

자료: 권미경 외(2020).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179.  
 \*\*\*  $p < .001$ .

- 실제 응답자의 자녀수는 2명이 47.9%로 가장 많았고, 1명 43.4%, 3명 이상은 8.7%로, 평균 1.7명으로 나타났고, 연령대별로는 40대는 2명이 56.9%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20대는 1명이 89.3%이었고,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음.
- 결과는 이상적인 자녀수 2.1명이나 실제 자녀수는 1.7명으로 직장인들이 자녀를 낳고 싶은 마음만큼 자녀를 두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표 4〉 응답자의 자녀수

단위: %(명)

구분	1명	2명	3명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43.4	47.9	8.7	100.0 (918)	1.7	0.7
연령						
20대	89.3	10.7	0.0	100.0 ( 28)	1.1	0.3
30대	53.2	40.0	6.8	100.0 (410)	1.5	0.6
40대	32.3	56.9	10.8	100.0 (480)	1.8	0.7
<i>F</i>					29.8***(a)	

자료: 권미경 외(2020).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167.

\*\*\*  $p < .001$ .

## 나. 직장인의 양육 현황

### 1) 남편과 아내의 하루 평균 자녀 돌봄시간

■ 남편과 아내의 하루 평균 자녀 돌봄시간을 비교해 보면 아내는 275.6분에 비해 남편은 91.7분으로 아내의 약 1/3 수준임.

- ◆ 연령대가 낮을수록 남편과 아내 모두 돌봄시간이 길어졌으나, 아내 대비 남편의 돌봄시간의 비율은 20대 37.2%로 40대 30.6%보다 높았음.
- ◆ 영아인 경우 아내의 평균 돌봄시간은 364분으로 가장 긴데, 남편의 돌봄시간 비율은 아내의 돌봄시간의 30.4%에 그쳐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중 가장 낮았음.
- ◆ 맞벌이인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의 절반 정도는 돌봄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외벌이는 남편이 아내의 약 20%정도로 차이가 큼.
- ◆ 결국 여성들은 남성과 동일하게 풀타임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돌봄에 있어서 남편보다 몇 배 이상의 시간을 투입하고 있으며, 일·생활 균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짐작됨.

〈표 5〉 남편과 아내의 하루 평균 자녀 돌봄시간 비교

단위: 분, %

구분	남편(A)		아내(B)		A/B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91.7	71.8	275.6	210.9	33.3
성별					
남성	96.4	68.3	314.8	227.5	30.6
여성	82.9	77.4	201.5	150.1	41.1
연령					
20대	114.4	87.9	307.7	197.4	37.2
30대	102.5	75.7	285.2	220.2	35.9
40대	81.2	65.7	265.5	203.3	30.6
막내자녀연령					
영아	110.7	77.7	364.1	246.9	30.4
유아	91.0	64.4	270.9	200.8	33.6
초등 저학년	80.1	72.0	223.1	174.1	35.9
맞벌이 여부					
맞벌이	90.9	74.1	193.4	144.0	47.0
외벌이	93.2	67.1	436.8	228.1	21.3

자료: 권미경 외(2020).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173.

## 2) 남편과 아내의 역할분담 정도(자녀양육)

- 자녀양육에 있어서의 역할분담을 살펴보면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은 27.5%였고, 주로 아내가 담당한다는 응답이 56.2%, 전적으로 아내가 담당한다는 응답은 10.8%로, 대체로 아내가 담당한다는 응답이 67.0%임.
- ◆ 연령대가 낮을수록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답이 많아, 20대는 46.2%가 공평하게 분담한다고 하였고, 40대는 아내가 담당한다는 응답이 71.5%임.
- ◆ 맞벌이 여부에 따라 차이를 보여, 외벌이인 경우에는 아내가 담당한다는 응답이 83.3%로 맞벌이의 58.8%보다 훨씬 많았고, 특히 맞벌이는 공평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이 34.2%로 외벌이 14.4%보다 2배 이상임.

〈표 6〉 부부의 역할분담 정도(자녀양육)

단위: %(명)

구분	① 전적으로 남편이	② 주로 남편이	①+② 남편	③ 공평하게 분담	④ 주로 아내가	⑤ 전적으로 아내가	④+⑤ 아내	계(수)
전체	0.3	5.1	5.4	27.5	56.2	10.8	67.0	100.0 (904)
성별								
남성	0.3	5.6	5.9	26.2	59.6	8.3	67.9	100.0 (591)
여성	0.3	4.2	4.5	30.0	49.8	15.7	65.5	100.0 (313)
<i>t</i>				-1.3				
연령								
20대	0.0	3.8	3.8	46.2	38.5	11.5	50.0	100.0 ( 26)
30대	0.5	5.4	5.9	31.1	54.3	8.6	63.0	100.0 (405)
40대	0.2	4.9	5.1	23.5	58.8	12.7	71.5	100.0 (473)
<i>F</i>				4.3*				
맞벌이 여부								
맞벌이	0.2	6.8	7.0	34.2	47.9	10.9	58.8	100.0 (599)
외벌이	0.7	1.6	2.3	14.4	72.5	10.8	83.3	100.0 (305)
<i>t</i>				-6.1***				

자료: 권미경 외(2020).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175.

\*  $p < .05$ , \*\*\*  $p < .001$ .

3

직장 내 육아문화 진단(II) : 직장인의 양육관련 제도 활용

- 직장에서 양육하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들은 ‘가족친화(family- friendly)’, ‘일·가정양립(work-family reconciliation)’, ‘일·생활 균형(work- life balance)’ 등으로 통칭되는 내용으로, 이러한 제도들은 고용노동부는 ‘일·가정양립’,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라는 정책으로 추진 중임.

가. 직장인의 근무 현황

- 출근시간 및 근로시간, 연월차 등 휴가의 사용은 일·생활 균형, 특히 육아시간 확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1) 총 근로시간

■ 지난 1주간을 기준으로 총 근로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45.8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40시간 보다 약 5.8시간 정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보임.

-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이 평균 47.3시간으로 여성 43.6시간보다 약 3.7시간 더 길게 나타나 주 52시간 근무제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성의 장시간 근로가 많음을 알 수 있음.
- ◆ 직무별로는 생산직이 평균 47.6시간으로 다른 직무에 비해 약 2시간 정도 더 길었고, 맞벌이보다 외벌이인 경우 근로시간이 긴 경향을 보임.

〈표 7〉 총 근로시간 분포

단위: %(명), 시간

구분	40시간 미만	40~45시간 미만	45~50시간 미만	50~6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3.8	44.2	21.9	24.2	5.9	100.0 (2,031)	45.8	7.5
성별								
남성	2.1	36.6	23.0	30.0	8.3	100.0 (1,176)	47.3	7.5
여성	6.1	54.7	20.4	16.3	2.6	100.0 ( 855)	43.6	7.0
<i>t</i>							11.5***	
직무								
사무직	2.7	48.4	22.4	21.7	4.8	100.0 (1,423)	45.3	7.0
판매직	15.2	33.8	17.2	24.5	9.3	100.0 ( 204)	45.0	10.3
생산직	2.0	34.7	22.3	32.9	8.2	100.0 ( 404)	47.6	7.4
<i>F</i>							15.4***(a)	
맞벌이 여부								
맞벌이	4.1	48.0	19.8	23.3	4.8	100.0 ( 752)	45.3	7.6
외벌이	0.8	39.1	23.2	28.9	7.9	100.0 ( 353)	47.1	7.2
<i>t</i>							-3.8***	

자료: 권미경 외(2020).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158.

\*\*\*  $p < .001$ .

## 2) 출근 소요시간

- 출근시간을 조사한 결과, 편도로 평균 약 4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 성별이나 연령대별로는 차이가 없었고, 거주지에 따라서는 차이를 보여 수도권외의 경우, 평균 출근시간이 48.5분으로 수도권 외 지역 32분보다 길게 나타남.
  - ◆ 이는 수도권이 대중교통 환경은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거주지와 근무지가 분리된 경우가 많고, 도로혼잡도 등이 심하기 때문으로 보임.

〈표 8〉 출근시간 분포

단위: %, (명), 분

구분	30분 미만	30분 이상 60분 미만	60분 이상 90분 미만	90분 이상	계(수)	평균	표준편차
전체	29.8	42.7	21.0	6.5	100.0 (2,031)	40.8	24.1
거주 지역							
수도권	18.1	43.0	29.1	9.8	100.0 (1,085)	48.5	24.8
수도권 외	43.3	42.4	11.6	2.6	100.0 ( 946)	32.0	19.8
<i>t</i>						16.6***	
직무							
사무직	25.1	44.3	23.5	7.2	100.0 (1,423)	43.2	24.0
판매직	32.4	39.7	21.1	6.9	100.0 ( 204)	40.6	26.0
생산직	45.3	38.9	12.1	3.7	100.0 ( 404)	32.5	21.4
<i>F</i>						32.4***(a)	

자료: 권미경 외(2020).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156.  
 \*\*\*  $p < .001$ .

## 3) 연월차의 사용

- 연월차 사용 역시 일·생활 균형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년 1년간 주어진 연월차와 실제 사용한 연월차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한 결과, 주어진 연월차는 평균 16일이었고 이 중 8.6일을 사용하여 사용률은 53.8%로 연월차를 모두 소진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 사용률은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 주어진 연월차는 남성이 여성보다 약 1.6일 더 긴데 비해 사용한 연월차는 여성이 남성보다 0.3일 더 사용하여, 사용률에 있어 남성은 50.9%, 여성은 58.3%로 나타남.

- ◆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근속기간에 따라 연월차가 늘어나므로 20대는 13.9일, 30대 16.1일, 40대 17.2일로 사용한 연월차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늘어나 사용률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
- ◆ 기업규모별로는 주어진 연월차수는 규모가 클수록 늘어나, 300인 이상은 18.1일, 10~29인은 13.8일로 약 4일 정도 차이를 보였고, 사용한 연월차도 규모가 클수록 늘어나 사용률에 큰 차이는 없었음.
- ◆ 직무별로는 생산직은 사용률이 47.0%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주어진 연월차가 16.6일로 다른 직무에 비해 가장 길었지만, 사용한 연월차는 7.8일로 다른 직무에 비해 가장 짧아 근로시간도 길고 연월차 사용도 저조한 등 일·생활 균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9〉 연월차 사용현황

단위: 일, %

구분	주어진 연월차		사용한 연월차		사용률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16.0	5.6	8.6	6.4	53.8
성별					
남성	16.7	5.6	8.5	6.5	50.9
여성	15.1	5.4	8.8	6.3	58.3
연령					
20대	13.9	5.2	7.3	5.7	52.5
30대	16.1	5.1	8.7	6.4	54.0
40대	17.2	5.8	9.4	6.7	54.7
기업규모					
10인~29인	13.8	5.6	7.4	6.2	53.6
30인~49인	15.1	5.5	8.1	6.1	53.6
50인~99인	15.4	4.9	8.1	6.1	52.6
100인~299인	16.3	4.9	9.3	6.4	57.1
300인 이상	18.1	5.5	9.5	6.7	52.5
직무					
사무직	16.0	5.4	8.9	6.3	55.6
판매직	14.8	5.8	8.5	7.2	57.4
생산직	16.6	5.9	7.8	6.5	47.0

자료: 권미경 외(2020).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161.

## 나. 직장인의 일·가정 양립제도의 활용

### 1) 직장 내 일·가정 양립제도 유무와 사용경험, 활용의 용이성

- 본 설문에서는 일·생활 균형 제도로 모성보호와 관련된 ‘출산전후휴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제도’, ‘임출산 선물 또는 축하금’, ‘수유시설 및 수유시간 제공’ 등과 함께 근로시간 혹은 근로방식과 관련된 ‘재택 및 원격근무제’, ‘시차출퇴근제’, ‘자율출퇴근제’ 등 총 15개의 제도에 대한 제도 유무와 사용여부, 활용 용이성을 확인함.
- 직장 내 일·생활 균형 제도의 유무를 살펴보면 ‘출산전후휴가’가 68.7%, ‘육아휴직제도’가 63.5%, ‘연차휴가사용분할제도’가 67%로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제도가 ‘있다’고 응답함.
  - ◆ 그러나 ‘출산 전후 휴가’나 ‘육아휴직 제도’의 경우 법정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응답이 60%대에 그치고 ‘모름’이나 ‘없음’에 응답한 비율이 30% 내외인 것을 보면 현실적으로 상당수의 응답자들이 회사에서 활용된 사례가 없거나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 다음으로 많이 도입된 제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38.1%, ‘임출산 선물 또는 축하금’이 41.1%의 응답자들이 ‘있다’고 답하였고, 반대로 가장 소수의 응답자들이 ‘있다’고 응답한 제도는 ‘자녀양육에 관한 정보, 프로그램 운영’이 7.6%, ‘초등입학기 10시 출근제도’가 10.5%로 나타남.
- 일·생활 균형제도의 사용 경험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응답자들이 활용한 제도는 단연 ‘연차 휴가 사용 분할제도’로 72.9%가 활용한 경험이 있었고, ‘시차출퇴근제’가 53.6%, ‘재택 및 원격근무제’가 48.3%, ‘자율 출퇴근제’가 44.7% 등으로 활용도가 높은 편임.
  - ◆ 그러나 법정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활용률이 14.9%, ‘육아휴직제도’의 활용률이 14.9%로 매우 낮은 상황이었는데, 물론 두 제도는 임신 혹은 출산경험이 있는 응답자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해당자가 각각 54.1%와 59%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활용률은 매우 낮은 편이라고 할 수 있음.
- 제도 활용 용이성을 살펴보면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는 제도는 ‘임출산선물 또는 축하금’이 78.3%, ‘연차휴가 사용 분할제도’가 72.9%로 나타나 출산 시 단발적 이벤트

가 회사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연차휴가’를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 법정제도인 ‘출산전후휴가’의 경우 활용이 용이하다는 응답이 62.6%로 높은 편이었고, 그 외 법정제도인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는 55.7%,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56.3%, ‘육아휴직 제도’는 53.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48.4% 등의 응답자들이 활용이 용이하다고 답함.
- ◆ 나머지 제도들에 대해서는 제도가 있어도 자유로운 활용은 어렵거나 아예 활용이 어렵다는 제도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제도 도입 여부와 활용은 별개인 것이 확인되기도 했는데 특히 ‘재택 및 원격근무제’의 경우 자유로운 활용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26.2%로 모든 제도들 중 가장 활용이 어려운 상황임을 보임.

〈표 10〉 현재 직장 내 제도유무와 사용경험 및 제도 활용의 용이성

단위: %(명)

구분	현재 제도 유무			계(수)	본인의 사용 경험			제도 활용 용이성			계(수)
	있음	없음	모름		사용 경험 있음	사용 경험 없음	해당 없음	원하면 자유롭게 활용가능	자유로운 활용은 어려움	활용 하기 어려움	
사차출퇴근제	29.1	57.3	13.6	100.0 (2,031)	53.6	46.4	-	43.0	42.8	14.2	100.0 ( 591)
자율출퇴근제	20.9	68.8	10.3	100.0 (2,031)	44.7	55.3	-	43.3	38.4	18.4	100.0 ( 425)
재택 및 원격근무제	26.5	63.7	9.8	100.0 (2,031)	48.3	51.7	-	26.2	47.2	26.6	100.0 ( 538)
출산전후휴가	68.7	16.4	14.9	100.0 (2,031)	30.1	21.4	48.5	62.6	29.0	8.5	100.0 (1,395)
배우자 출산 휴가제도	53.9	25.4	20.7	100.0 (2,031)	31.6	35.1	33.3	55.7	33.2	11.1	100.0 (1,095)
임신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38.1	32.8	29.1	100.0 (2,031)	14.9	39.2	45.9	56.3	33.0	10.7	100.0 ( 773)
육아휴직제도	63.5	20.7	15.8	100.0 (2,031)	14.9	43.1	42.0	53.6	34.0	12.4	100.0 (1,290)
임출산 선물 또는 축하금	41.1	35.0	24.0	100.0 (2,031)	38.4	21.9	39.7	78.3	17.9	3.8	100.0 ( 834)
수유시설 및 수유시간 제공	12.3	67.4	20.4	100.0 (2,031)	20.0	41.8	38.2	63.5	27.7	8.8	100.0 ( 249)
직장보육시설	13.2	75.6	11.2	100.0 (2,031)	10.4	52.0	37.5	45.7	36.4	17.8	100.0 ( 269)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23.0	52.8	24.2	100.0 (2,031)	9.6	52.7	37.7	48.4	38.1	13.5	100.0 ( 467)
가족돌봄휴가	27.7	48.0	24.3	100.0 (2,031)	10.5	51.2	38.3	50.5	37.5	11.9	100.0 ( 562)
초등 입학기 10시 출근제도	10.5	61.8	27.6	100.0 (2,031)	14.5	43.9	41.6	60.7	26.6	12.6	100.0 ( 214)
연차휴가사용 분할제도	67.0	20.0	13.0	100.0 (2,031)	72.9	27.1		72.9	23.9	3.2	100.0 (1,360)
재난양육에 관한 정보, 프로그램 운영	7.6	66.4	26.0	100.0 (2,031)	19.5	33.8	46.8	64.3	31.2	4.5	100.0 ( 154)

자료: 권미경 외(2020).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185.

## 2) '코로나 19' 전후 일·가정 양립제도 시행의 변화

- 직장 내 일·생활 균형제도와 관련하여 코로나19 사태 전후를 비교하여 앞으로 기업 내 일·생활 균형제도의 변화 및 대응 방향을 예측하고자 함.
- 설문에서는 코로나 전후로 도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제도인 '시차출퇴근제', '자율출퇴근제', '재택 및 원격근무제', '가족돌봄휴가' 등에 대해 앞선 일·생활 균형제도 도입 유무 설문에서 본 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에게만 코로나19 이전의 도입상황과 코로나19 이후 도입상황을 각각 질문한 결과, 코로나19 이후 일제히 관련 제도의 도입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시차출퇴근제'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전체 직원 대상 도입 비율이 55.3%였던 것이 코로나19 이후 82.7%로 증가하였고, '자율출퇴근제' 역시 코로나19 이전 55.5%의 도입 비율이 코로나19 이후 82.6%로 크게 증가함.
- 코로나19 이전 도입 비율이 30.5%에 불과했던 '재택 및 원격근무제'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79.2%의 도입 비율을 보여 약 2.5배 이상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가족돌봄휴가'의 경우 코로나19 이전 44.3%였던 도입비율이 코로나19 이후 66.5%로 증가하여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 기업들이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의 유연화를 높이는데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줌.
- 이러한 상황에서 주목할 부분은 기업들이 본 네 가지 제도에 대해 자녀가 있는 남녀 직원 혹은 자녀가 있는 여성 직원에게만 도입 혹은 활용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식으로 소극적인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을 했으나 대상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도입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음.
  - ◆ 이러한 경향은 기업들이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는 방법으로 이들 제도를 가능한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다음으로 코로나19 감염 사태 이후 '유급휴가'나 '무급휴가 혹은 병가' 등에 대한 도입 상황에 대해 물은 결과, '유급휴가'의 경우 전체 직원 대상으로 41.8%, 자녀가 있는 남녀 직원 대상으로 7.6%, 자녀가 있는 여성 직원 대상으로 3.2%가 도입했다고 본 설문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도입되었다'고 응답하여 '유급휴가' 제도가 코로나19 이후 상당수 도입되었음.

- ‘무급휴가 혹은 병가’ 등 기타 제도들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이후 전체직원 대상으로 도입되었다는 응답이 55.2%, 자녀가 있는 남녀 직원 대상으로 도입되었다는 응답이 5.6%, 자녀가 있는 여성 직원 대상으로 도입되었다는 응답이 2.6%로 총 63.4%가 ‘도입되었다’고 응답하여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본 제도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활용하고 있음이 확인됨.
- ‘유급휴가’ 제도와 ‘무급휴가 혹은 병가’ 제도 등에 대해서도 대상을 한정하기보다는 전체 직원 대상으로 도입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다른 제도들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인 활용 상황임을 보여줌.

〈표 11〉 코로나19 사태 전후 일·생활 균형제도 시행 여부

단위: %(명)

구분	코로나19 이전				코로나19 이후				계(수)	
	전체 직원 대상	자녀가 있는 남녀직원 대상	자녀가 있는 여성직원 대상	코로나19 이전에는 시행하지 않았음	전체 직원 대상	자녀가 있는 남녀직원 대상	자녀가 있는 여성직원 대상	시행하지 않음		
제도 있는 경우	시차출퇴근제	55.3	8.8	5.6	30.3	82.7	10.0	7.3	-	100.0 ( 591)
	자율출퇴근제	55.5	7.8	6.1	30.6	82.6	10.8	6.6	-	100.0 ( 425)
	재택 및 원격근무제	30.5	5.0	3.9	60.6	79.2	11.9	8.9	-	100.0 ( 538)
	가족돌봄 휴가	44.3	19.0	5.5	31.1	66.5	25.6	7.8	-	100.0 ( 562)
전 체	유급휴가			-		41.8	7.6	3.2	47.4	100.0 (2,031)
	기타(무급휴가, 병가 등)			-		55.2	5.6	2.6	36.5	100.0 (2,031)

자료: 권미경 외(2020).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p.187.

## 4 직장 내 육아문화 진단(Ⅲ) : 직장의 육아관련 문화 양상

- 육아를 중심으로 형성된 직장의 문화를 살펴보기 위해 상사와 동료의 인식, 육아를 어렵게 하는 부정적 요소, 현재 직장 육아문화에의 평가, 긍정적 방향으로의 변화 노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 가. 육아에 대한 직장 구성원의 인식

### 1) 직장 상사의 인식

- 육아하는 팀원과 육아에 대한 직장상사의 인식, 반응에 대해 4점 척도로 그 동의정도를 살펴보았는데, 직장상사는 ‘팀원들의 육아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다’라는 진술에 48.3%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답하여, 평균 2.4정도의 동의를 보였고, ‘육아를 위한 제도를 사용하는 데에 업무상 불이익을 주거나 눈치를 준다’는 진술에는 33.8%가, ‘육아가 필요한 자녀를 둔 팀원과 함께 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31.6%가 동의함.
- 이러한 결과는 직장에서 육아하는 팀원에 대한 직속상사의 인식이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3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서 부정적 진술에 대한 응답비율이 높아 소규모 기업에서 상대적으로 육아에 대한 지지적인 분위기가 형성되어있지 못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표 12〉 팀원의 육아에 대한 직속상사의 인식

단위: %, 점, (명)

구분	팀원들의 육아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편이다		육아를 위한 제도를 사용하는 데에 업무상 불이익을 주거나 눈치를 준다		육아가 필요한 자녀를 둔 팀원과 함께 일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		수
	동의 비율	평균(표준편차)	동의 비율	평균(표준편차)	동의 비율	평균(표준편차)	
전체	48.3	2.4 (0.8)	33.8	2.3 (0.8)	31.6	2.2 (0.7)	(2,031)
직무							
사무직	50.1	2.4 (0.8)	34.4	2.3 (0.8)	33.0	2.3 (0.7)	(1,423)
판매직	50.0	2.5 (0.8)	27.9	2.2 (0.8)	27.0	2.2 (0.7)	( 204)
생산직	41.1	2.3 (0.8)	34.4	2.3 (0.7)	28.7	2.2 (0.7)	( 404)
<i>F</i>	6.1**		2.8		1.8		
기업규모							
10-29인	44.2	2.4 (0.8)	37.9	2.3 (0.8)	33.7	2.3 (0.7)	( 523)
30-49인	46.5	2.4 (0.8)	30.5	2.2 (0.7)	27.9	2.2 (0.7)	( 226)
50-99인	50.0	2.4 (0.8)	35.8	2.4 (0.7)	36.9	2.4 (0.7)	( 274)
100-299인	50.0	2.4 (0.8)	33.1	2.3 (0.8)	29.9	2.2 (0.7)	( 402)
300인 이상	50.7	2.5 (0.8)	31.0	2.2 (0.7)	29.9	2.2 (0.7)	( 606)
<i>F</i>	1.1		2.8*		4.5**		

주: 4점 척도임. 동의비율은 ‘매우 그렇다+그렇다’를 합산한 비율임.

자료: 권미경 외(2020).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233.

\*  $p < .05$ , \*\*  $p < .01$ .

2) 동료의 인식

- 직장동료는 ‘자녀를 돌보아야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업무일정 조정에 협조적이다’라는 진술에 79.2%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로 답하였고, 특히 기업의 규모가 100인 이상의 경우에 그 동의비율이 80%를 상회함.
- 직장동료가 ‘육아제도를 사용하는데 눈치를 준다’는 진술에는 33.3%가 동의하였고 50인~99인 규모에서 40.9%로 다른 규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답한 반면, 300인 이상의 규모에서는 28.2%로 낮게 나타남.
- 직장동료와 함께 ‘회사에서 육아문제를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진술에는 69.9%가 ‘동의하였고, 기업의 규모가 100인~299인 경우에 70.6%, 300인 이상인 경우는 74.3%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표 13〉 동료의 육아에 대한 직장동료의 인식

단위: %, 점, (명)

구분	자녀를 돌보아야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업무일정 조정에 협조적이다		육아제도를 사용하는데 눈치를 준다		회사에서 육아문제를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다		수
	동의 비율	평균(표준편차)	동의 비율	평균(표준편차)	동의 비율	평균(표준편차)	
전체	79.2	2.9 (0.6)	33.3	2.3 (0.7)	69.9	2.8 (0.7)	(2,031)
연령							
20대	78.6	2.9 (0.6)	31.7	2.2 (0.8)	70.4	2.8 (0.7)	( 477)
30대	78.0	2.9 (0.7)	35.9	2.3 (0.8)	71.2	2.8 (0.7)	( 718)
40대	80.5	2.9 (0.6)	32.1	2.3 (0.7)	68.5	2.7 (0.6)	( 836)
<i>F</i>	0.9(a)		1.5(a)		3.3*		
기업규모							
10~29인	77.1	2.9 (0.6)	35.0	2.3 (0.7)	67.7	2.7 (0.7)	( 523)
30~49인	74.8	2.8 (0.7)	35.4	2.3 (0.8)	68.1	2.7 (0.7)	( 226)
50~99인	75.2	2.8 (0.6)	40.9	2.4 (0.7)	65.0	2.7 (0.7)	( 274)
100~299인	81.1	2.9 (0.6)	32.6	2.3 (0.8)	70.6	2.8 (0.7)	( 402)
300인 이상	83.2	2.9 (0.6)	28.2	2.2 (0.7)	74.3	2.9 (0.7)	( 606)
<i>F</i>	2.8*(a)		5.2***		3.5**(a)		

주: 4점 척도임. 동의비율은 ‘매우 그렇다+그렇다’를 합산한 비율임.

자료: 권미경 외(2020).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235.

\*  $p < .05$ , \*\*  $p < .01$ , \*\*\*  $p < .001$ .

## 나. 직장 내 육아문화 평가와 부정적 요소

### 1) 직장 내 육아관련 제도와 문화 평가

- 현재 재직 중인 직장 내 육아 관련 제도와 문화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100점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전체 2,031명 응답자의 평균은 54.8점으로 조사됨.
- ◆ 직무를 기준으로 판매직의 경우가 57.9점으로 높은 점수를 준 반면, 생산직의 경우는 50.8점에 그쳤고,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평가 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고, 소득을 기준으로 200만원에서 400만원 이상으로 소득 수준이 높아질수록 직장의 육아 관련 제도와 문화에 대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근속 기간을 중심으로 2년 미만에서 10년 이상까지 근속기간이 증가할수록 직장의 육아 관련 제도와 문화에 대한 점수를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표 14〉 현재 직장의 육아 관련 제도 및 문화에 대한 종합적 평가(100점 만점)

단위: %(명), 점

구분	20점 미만	20점 이상 40점 미만	40점 이상 60점 미만	6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계(수)	평균(표준편차)
전체	10.4	11.5	24.7	31.7	21.7	100.0 (2,031)	54.8 (24.8)
직무							
사무직	9.3	11.6	24.7	32.3	22.1	100.0 (1,423)	55.5 (24.4)
판매직	8.8	8.8	26.0	31.9	24.5	100.0 ( 204)	57.9 (24.2)
생산직	15.1	12.4	24.3	29.2	19.1	100.0 ( 404)	50.8 (26.1)
<i>F</i>							7.6***
기업규모							
10~29인	14.9	12.4	27.7	26.6	18.4	100.0 ( 523)	50.4 (26.1)
30~49인	15.9	14.2	22.6	30.5	16.8	100.0 ( 226)	50.2 (26.6)
50~99인	11.3	16.1	25.5	31.0	16.1	100.0 ( 274)	51.0 (24.9)
100~299인	8.0	12.2	26.6	34.6	18.7	100.0 ( 402)	55.2 (22.8)
300인 이상	5.8	7.1	21.3	34.8	31.0	100.0 ( 606)	61.8 (22.5)
<i>F</i>							20.6***
본인소득							
200만원 미만	14.1	12.5	21.4	28.4	23.7	100.0 ( 384)	53.1 (27.0)
200~250만원 미만	13.1	16.8	24.8	27.6	17.7	100.0 ( 464)	50.3 (25.9)
250~300만원 미만	11.1	10.3	29.7	28.3	20.6	100.0 ( 360)	53.8 (24.8)
300~400만원 미만	9.2	8.2	24.9	36.0	21.7	100.0 ( 489)	56.8 (23.5)

구분	20점 미만	20점 이상 40점 미만	40점 이상 60점 미만	6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계(수)	평균(표준편차)
400만원 이상 <i>F</i>	3.6	9.0	22.8	38.3	26.3	100.0 ( 334)	61.3 (20.7) 11.2*** <sup>(a)</sup>
근속기간							
2년 미만	12.5	13.4	25.3	29.9	19.0	100.0 ( 479)	52.1 (25.6)
2-4년 미만	12.9	12.2	25.1	29.2	20.6	100.0 ( 442)	52.8 (26.2)
4-6년 미만	12.7	11.1	20.8	34.5	20.8	100.0 ( 307)	54.2 (25.6)
6-10년 미만	8.4	9.0	26.4	34.2	22.0	100.0 ( 345)	56.9 (23.0)
10년 이상 <i>F</i>	5.9	10.9	25.1	32.1	26.0	100.0 ( 458)	58.5 (22.7) 5.4*** <sup>(a)</sup>

자료: 권미경 외(2020).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243.

\*\*\*  $p < .001$ .

## 2) 직장 내 육아지원 관련 부정적 요소

- 직장에서 육아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얼마나 육아를 어렵게 한다고 생각하는지 4점 척도로 그 동의 정도를 질의한 결과가 <표 15>임.
- ‘일·가정양립제도의 미비’가 78.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일·가정양립제도의 사용이 어려운 직장분위기’ 77.8%, ‘직장 경영진의 육아하는 직원에 대한 배려 부족’ 77.7%, ‘육아에 대한 가치 저평가’ 74.9%, ‘직장 동료의 육아에 대한 배려 부족’ 69.3%의 순서로 높게 나타나, 여전히 직장 근로자들은 일·가정양립제도 미비가 직장에서의 육아문화와 관련하여 가장 부정적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 ◆ 모든 문항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육아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 요소에 대한 체감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생산직보다 사무직과 판매직에서 영아자녀를 둔 경우와 유아자녀를 둔 경우에 육아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 요소에 대한 어렵다고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임.

〈표 15〉 육아를 힘들게 하는 부정적 요소에 대한 평가

단위: 점, (명)

구분	육아에 대한 가치 저평가		직장 동료 배려 부족		직장 경영진 배려 부족		일·가정양립제도의 미비		제도사용 어려운 직장분위기		수
	동의 비율	평균 (표준편차)	동의 비율	평균 (표준편차)	동의 비율	평균 (표준편차)	동의 비율	평균 (표준편차)	동의 비율	평균 (표준편차)	
전체	74.9	2.9 (0.7)	69.3	2.8 (0.7)	77.7	3.1 (0.8)	78.9	3.0 (0.7)	77.8	3.0 (0.7)	(2,031)
성별											
여성	79.4	3.0 (0.7)	75.0	2.9 (0.7)	83.0	3.2 (0.7)	81.5	3.1 (0.7)	81.4	3.1 (0.7)	( 855)
남성	71.7	2.8 (0.7)	65.1	2.7 (0.7)	73.8	3.0 (0.8)	77.0	3.0 (0.7)	75.3	3.0 (0.7)	(1,176)
<i>t</i>		-4.7***		-5.3***		-4.8***		-2.6**		-4.3***	
직무											
사무직	77.5	2.9 (0.7)	72.1	2.9 (0.7)	79.6	3.1 (0.8)	80.0	3.1 (0.7)	80.5	3.1 (0.7)	(1,423)
판매직	77.0	2.9 (0.7)	71.6	2.9 (0.7)	80.4	3.1 (0.8)	78.9	3.0 (0.7)	74.0	2.9 (0.8)	( 204)
생산직	64.9	2.7 (0.7)	58.2	2.7 (0.8)	69.8	2.9 (0.8)	74.8	3.0 (0.7)	70.3	2.9 (0.8)	( 404)
<i>F</i>		13.8***(a)		13.0***(a)		9.2***		3.1*		6.3***(a)	
자녀											
자녀 없음	73.0	2.9 (0.7)	70.5	2.8 (0.7)	77.6	3.1 (0.8)	77.8	3.0 (0.7)	77.3	3.0 (0.7)	(1,113)
영아	83.1	3.1 (0.6)	73.8	2.9 (0.7)	80.9	3.2 (0.7)	84.0	3.2 (0.7)	81.8	3.1 (0.8)	( 225)
유아	80.2	3.0 (0.7)	69.1	2.8 (0.7)	79.6	3.1 (0.8)	81.1	3.1 (0.7)	79.3	3.0 (0.7)	( 333)
초등 저학년	71.1	2.8 (0.7)	62.8	2.7 (0.7)	74.2	3.0 (0.8)	76.9	3.0 (0.7)	75.8	3.0 (0.8)	( 360)
<i>F</i>		7.3***(a)		4.1**		2.1		5.3**		3.3*	

주: 4점 척도임. 동의비율은 '어렵게 한다+매우 어렵게 한다'를 합산한 비율임.

자료: 권미경 외(2020).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242.

\*  $p < .05$ , \*\*  $p < .01$ , \*\*\*  $p < .001$ .

#### 다. 긍정적 직장 육아문화로의 변화 가능성과 변화요소

##### 1) 긍정적 직장 육아문화로의 변화 가능성

■ 사회적 합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직장 내 육아문화가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5.5%가 가능하다고 답하여 육아문화 개선 가능성에 기대가 높음을 보여줌.

- ◆ 그러나 실제 영아와 유아의 양육을 담당하고 있을 30대에서 82.9%로 20대(86.2%)와 40대(87.3%) 보다 낮았고, 생산직에서 80.4%로 사무직(86.5%), 판매직(88.2%) 보다 낮았고, 소득을 기준으로 200만원 미만(88.3%)과 400만원 이상(91.6%)에서 변화가능성에 대한 동의가 높았음.

〈표 16〉 긍정적 육아문화로의 변화 가능성

단위: %(명)

구분	예	아니오	계(수)
전체	85.5	14.5	100.0 (2,031)
연령			
20대	86.2	13.8	100.0 ( 477)
30대	82.9	17.1	100.0 ( 718)
40대	87.3	12.7	100.0 ( 836)
$\chi^2(df)$	6.403(2)*		
직무			
사무직	86.5	13.5	100.0 (1,423)
판매직	88.2	11.8	100.0 ( 204)
생산직	80.4	19.6	100.0 ( 404)
$\chi^2(df)$	10.705(2)**		
본인소득			
200만원 미만	88.3	11.7	100.0 ( 384)
200~250만원 미만	80.4	19.6	100.0 ( 464)
250~300만원 미만	84.4	15.6	100.0 ( 360)
300~400만원 미만	84.7	15.3	100.0 ( 489)
400만원 이상	91.6	8.4	100.0 ( 334)
$\chi^2(df)$	22.823(4)***		

자료: 권미경 외(2020). 육아준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254.

\*  $p < .05$ , \*\*  $p < .01$ , \*\*\*  $p < .001$ .

## 2) 긍정적 직장 육아문화로의 변화를 위한 요소

■ 육아문화가 긍정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1순위와 2순위로 응답한 결과, 1순위를 기준으로 보면, 국가 수준의 지원확대(26.9%), 육아 관련 제도의 안착(24.1%), 양육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정(21.6%), 직장 내 육아제도 활용가능 분위기 조성(15.5%) 등으로 높게 나타남.

- ◆ 20대에서는 육아 관련 제도의 안착에, 30대와 40대에서는 국가 수준의 지원확대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여성의 경우는 육아 관련 제도의 안착에, 남성의 경우는 국가 수준의 지원확대에 가장 많이 답함. 직무를 기준으로서는 사무직에서는 육아 관련 제도의 안착에, 판매직과 생산직은 국가 수준의 지원확대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표 17〉 육아문화가 긍정적으로 전환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1순위/1+2순위)

단위: %(명)

구분	국가 수준의 지원확대	육아 관련 제도의 안착	양육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정	직장 내 육아제도 활용가능 분위기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의 확보	지역 내 지원적 양육 환경구축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 실현	기타	(수)
전체	26.9	24.1	21.6	15.5	4.6	3.5	3.4	0.4	(2,031)
연령									
20대	21.0	25.6	20.3	22.2	4.6	2.5	3.6	0.2	( 477)
30대	27.3	25.1	21.9	13.1	5.0	4.0	3.2	0.4	( 718)
40대	29.9	22.4	22.0	13.8	4.2	3.6	3.6	0.6	( 836)
$\chi^2(df)$				33.273(14)**					
성별									
여성	19.9	27.7	21.1	18.4	4.0	4.3	4.3	0.4	( 855)
남성	32.0	21.4	21.9	13.4	5.0	2.9	2.8	0.5	(1,176)
$\chi^2(df)$				50.683(7)***					
직무									
사무직	24.7	25.9	20.4	16.5	4.2	3.8	3.9	0.6	(1,423)
판매직	28.4	18.1	29.9	14.7	3.4	1.0	4.4	0.0	( 204)
생산직	33.7	20.8	21.5	12.4	6.4	3.7	1.5	0.0	( 404)
$\chi^2(df)$				45.058(14)***					
1+2순위	46.6	49.6	32.3	37.8	13.8	10.1	9.1	0.6	(2,031)

자료: 권미경 외(2020).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p.256.

\*\*  $p < .01$ , \*\*\*  $p < .001$ .

5

## 직장 내 육아문화 개선방안

### 가. 직장 내 육아지원의 문제점

- 직장 내 육아문화의 진단을 통해 대표되는 문제점은 “제도는 있지만 그 사용은 쉽지 않다.”, “양육자가 자녀를 돌볼 시간이 필요하다.”, “기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제도 활용 격차가 크다.”, “직장 내 육아지원 활용 시 눈치 보이는 상황이 많다.”, “직장 육아지원 제도의 도입과 사용은 경영진에 의해 좌우된다.”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자료: 권미경 외(2020).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p.327.

[그림 1] 직장 내 육아지원의 문제점과 정책화 방향

### 나. 직장 내 육아문화 조성위한 정책화 방안

- 이를 중심으로 직장 내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 이미 지원되고 있는 직장 내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들의 실효성 있는 활용이 필요함. **지원 제도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장 근로감독, 노무관리 지도 시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지도하고, 기업 분위기의 변화를 유도하며, 범부처 협업 강화, 각 부처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에 적극 도입을 안내할 것을 제안함.
  - ◆ 장시간 근로 해소 및 유연근로를 확대해야함. **시간 지원 확대**를 위해 주 52시간 상한제, 가족돌봄휴가 확대, 외출 및 반차제도를 활용한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 원격·재택근무 확대,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정착 등 근로시간 및 휴가 관련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맞물려 활성화를 도모해야함.
  - ◆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육아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일·생활 균형 지원정책이 소규모 기업에 더욱 집중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중소기업 지원 집중**을 위해 지원금뿐만 아니라 근무혁신 인센티브나 일터혁신 컨설팅, 일·생활 균형 사업주단체 협력사업 등 현재 일·생활 균형 확산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기업대상 사업들 역시 소규모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비하는 등 일·생활 균형 지원정책을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할 필요가 있음.

- ◆ 직장에서의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은 결국 ‘남성’의 육아참여 확대를 토대로 성평등한 일·생활 균형, 성평등한 노동시장이 함께 조성되어야 가능함. **육아지원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직장 내 근무환경 개선, ‘직장문화 혁신팀’ 구성을 추진하며, 정부의 지속적인 홍보와 우수 사례의 공유 기회 확대가 필요함. 또한 다양한 기업의 특성을 살린 직장 내 육아문화의 조성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안내가 필요함.
- ◆ 직장의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제도화 추진과 더불어 기업의 능동적인 실행이 필요함. **기업의 능동적 참여 유도**하기 위해 육아지원의 확대, 직장에서의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이 근로자의 근무역량을 강화하고, 우수한 인력의 유치, 이직율 감소 등으로 나타나 궁극적으로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함. 개별 기업마다 여건이 다르고 적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직장의 긍정적 육아문화의 조성이 근로자의 근로여건 향상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기업에 유익이 된다는 신념에 근거한 기업의 능동적 실천이 요구됨.

## I 참고 문헌 I

권미경·김나영·김아름·최인화·김영민·신하은·강민정·이승현·권소영(2020). 육아존중문화로의 패러다임 전환과 긍정적 육아문화 조성방안 연구(II): 직장에서의 육아존중문화 조성. 육아정책연구소.

Fiske, A. P. (2002). Us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to compare cultures-a critique of the validity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s: comment on Oyserman et al.(2002). *Psychological Bulletin* 128(1), 78-88.



| 이슈페이퍼 2021-07 |

#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강은진

1. 배경 및 문제점
  2. 지역의 육아친화 정도 조사 결과
  3. 정책제언
- 참고문헌



# 수도권 인구집중 문제 해결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강은진 선임연구위원

## ◆◆ 요약 ◆◆

- 지역 불균형 문제는 젊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귀결되고, 이는 지역의 인구소멸, 낮은 삶의 질, 저출생과도 연결됨.
- 신도시, 도시재생, 도농복합 지역을 선정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인지를 점검하는 육아친화성을 살펴본 결과, 도시재생지역, 도농복합의 읍·면지역, 신도시의 입주가 시작된 지역의 육아환경 공급수준이 낮으며, 체감도 역시 낮은 것을 알 수 있었음.
- 본고에서는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따라 신도시형, 도시재생형, 도농복합형 육아친화마을 조성의 필요성과 강조점을 제시함.
-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준비단계로서 유관사업 점검, 지자체의 관련 TF 팀 구성 및 주민참여 워크숍을 통한 육아친화성 진단과 육아친화마을 추진 지자체의 협의체 구성 등을 제안함.

## 1

### 배경 및 문제점

#### 가. 저출생과 지역균형발전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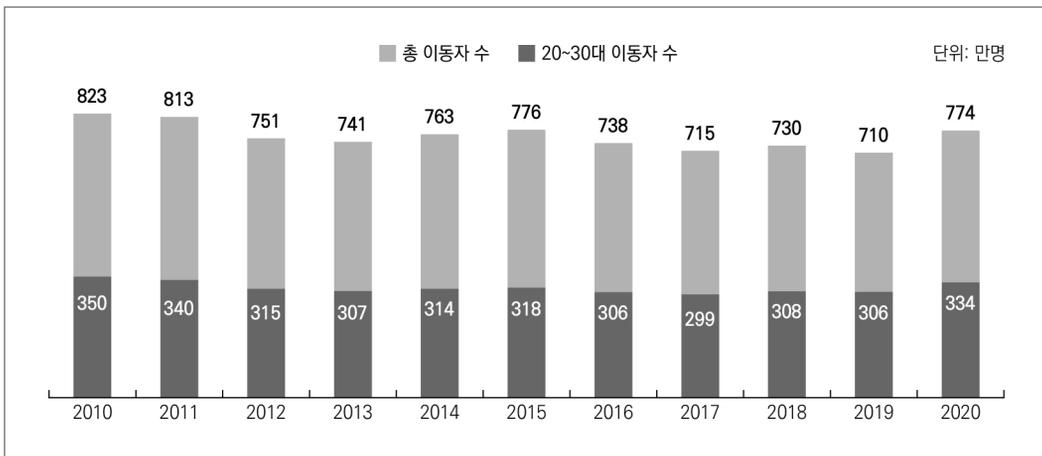
- 현 정부는 5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제시하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함.
- ◆ 정부는 ‘[전략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sup>1)</sup>과 ‘[전략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인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I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지역별 맞춤형 시범 진단 및 적용(강은진·권미경·김보미·황명화·김희교, 2020)」의 일부를 정리하여 작성함.

1) [전략 2]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의 '78.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통해 강력한 균형발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혁신도시, 산업단지, 생활 SOC 확충 등의 창업, 혁신, 문화, 복지가 어우러진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함. '79. 도시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을 통해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의 생활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쇠퇴지역의 혁신화를 꾀하고자 함.

에서 지역의 고른 발전<sup>2)</sup>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지역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함.

- 지역의 불균형은 인구, 사회-경제 전 분야와 직결되며,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
- ◆ 그러나 최근 발표된 국내인구통계(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21: 5)에 따르면, 20~30대 청년인구의 수도권 인구가동 현상은 점점 심각해지지는 추세임.



[그림 1] 총 이동자 수 및 20~30대 이동자 수 추이, 2010~2020

자료: 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2021. 1. 26).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p.5.

- ◆ 시도별 순유입률을 보면 세종과 경기도 전 연령층에서 높아진 반면, 대구와 대전은 순유출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순유입률이 높은 시군구는 경기 과천시, 김포시, 하남시 순이며, 순유출률이 높은 시군구는 경기 광명시, 경북 울릉군 등임(통계청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 2021: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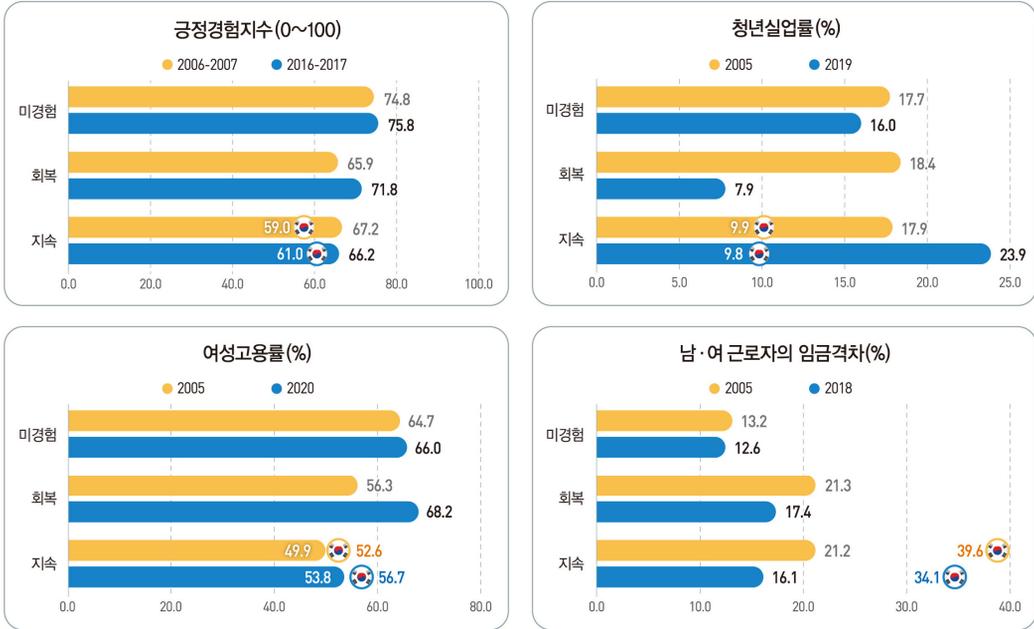
2) [전략 3]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에서는 '81.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을 통해 농산어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기초적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안을 제시함.

- 일반적인 취업가능성 보다 양질의 일자리 비중, 교육기회와 문화시설 접근성, 주거여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 편익이 청년인구이동의 결정 요인이며, 결정 요인이 높은 지역일수록 청년인구 순유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특히 청년인구가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집중적으로 이동하는 원인은 양질의 일자리와 문화시설 접근성으로 분석됨(김유현, 2021: 361).
- ◆ 비수도권 거주 청년인구의 수도권 이동은 지방의 고령화뿐만 아니라 일자리와 문화시설의 질 저하, 지역에 남은 주민과 청년들의 삶의 질 저하, 지방소멸 등 연쇄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 나. 초저출산 시대 육아친화 가치관의 중요성

- 수도권 30대 남녀의 특성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비혼을 선택한 골드미스’와 ‘품질남이 된 전문직 남성’을 비교하여 제시하였는데, 비교 근거로 고학력, 전문직 30대 여성의 혼인 지연 현상과 30대 후반의 고학력 전문직 남성의 낮은 미혼율을 제시하고 있음(박시내, 2021).
- ◆ 특히, 여성의 비혼 선택 이유는 저출산 극복 국가들에게 시사점을 제시함.
- 최근 통계청에서 실시한 「초저출산 경험 및 회복 국가의 특성 분석(김수영·송현정, 2021)」에 따르면, 초저출산을 미경험하였거나, 혹은 경험 후 회복한 국가의 ‘공공지출, 삶의 질, 경제적 부담, 양성평등’ 등 저출산 관련 지표를 살펴보면(그림 2 참조), 초저출산 지속국가에 비해 삶에 대한 긍정적 경험지수나 청년 실업률이 낮았다고 보고함.<sup>3)</sup>
- ◆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삶에 대한 낮은 긍정적 경험지수(61.0%), 줄어들지 않는 청년 실업률(9.9%→9.8%), 낮은 여성 고용률(56.7%), 여전히 큰 남성·여성 근로자의 임금 격차(34.1%)를 보이고 있음.

3) - 초저출산 경험 후 지속국가: 2019년 이전 합계출산율이 1.3명 이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1.3이하인 경우(한국, 스페인, 이탈리아)  
 - 초저출산경험 후 회복국가: 일본, 독일, 체코, 슬로바키아 등  
 - 초저출산 미경험 국가: 미국, 프랑스, 스웨덴 등임



[그림 2] 초저출산 지속·회복·미경험 국가의 저출산 관련 지표별 평균추이 비교

자료: OECD(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data, Jobs & ILO.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보도자료(2021. 9. 29) p.7에서 재인용

- 우리나라와 비교적 유사한 일본은 지방소멸에 대비해 2060년까지 1억 인구를 목표로, 청년 실업률의 감소, 여성고용의 확대 출산 및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 연계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분리해 각 정책이 명확한 목적을 갖도록 한 것에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음(김수영·송현정,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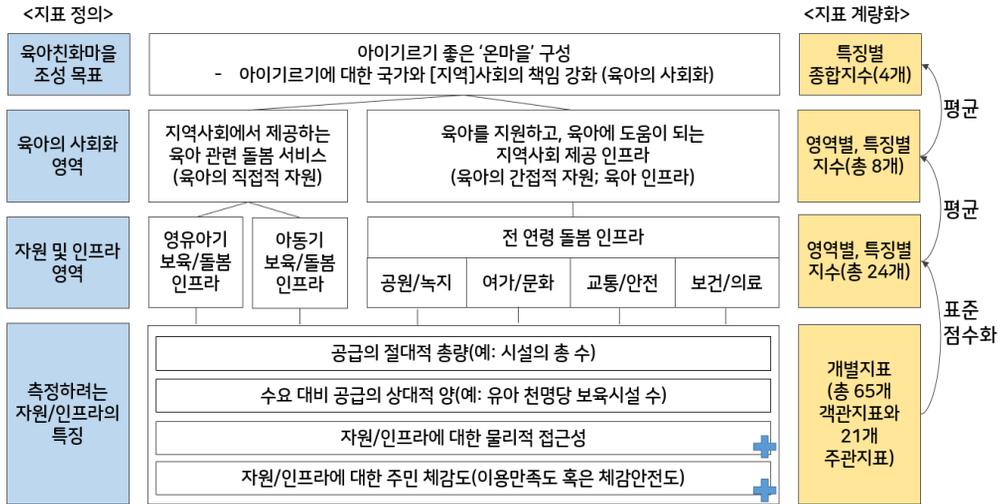
## 2 지역의 육아친화 정도 조사 결과<sup>4)</sup>

- 육아정책연구소는 2019년부터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지역 육아친화성 지표 개발 연구를 진행함. 2020년에는 신도시, 도시재생, 도농복합 지역 중 세 지역을 선정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즉 육아친화적 환경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음.
- 신도시는 인구순유입률 상위지역인 경기도 남양주시를 선정하였으며, 입주 초기인 별내동을 포함하였음. 반대로 도시재생지역은 인구순유출률 상위지역인 경기도 광명시로 선정하여, 인구가 많은 철산동·하안동과 도시재생이 진행 중인 광명3·5·7동을 포함해 조사하였음. 마지막으로 도농복합지역인 충청남도 공주시를 선정함. 공주시는 대전, 세종, 아산, 천안과 같은 중소도시가 면해 있어 인구 유출의 애로점을 지닌 곳으로, 신관동·월송동과 신평면·유구읍을 포함해 조사하였음.

### 가. 육아인프라의 지역 간 격차

- 본 연구는 아이키우기 좋은 육아환경(육아인프라)에 대해 살펴보고, 설문조사 및 주민 워크숍을 통해 지역의 육아공동체 문화를 살펴봄.
  - ◆ 육아친화마을은 1차년도 연구에서 진행한 ‘아이 기르기 좋은 온마을 구성’ 목표를 근거로 하여, 2차년도인 본 연구에서는 육아친화마을 조성 지표를 수정·보완하여 체계화함. 육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의 직접 자원과 놀이공간, 문화시설, 병의원 등의 간접 자원을 포괄하여 총 6개 영역에 대한 24개 지표로 구성함.
  - ◆ 각 지표는 절대적 공급지수와 수요대비 상대적 공급지수, 자원/인프라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자원/인프라에 대한 주민 체감도 등 크게 4개 측면에서 살펴보았으며, 총 65개 객관지표와 21개 주관지표로 구성함. 주민 체감도는 별도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것임.

4)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I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지역별 맞춤형 시범 진단 및 적용 (강은진·권미경·김보미·황명화·김희교, 2020)」의 결과를 인용함.



[그림 3] 육아친화마을 조성 지표

■ 육아친화 영역별 및 종합 지수를 산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함.

- 영유아기 보육/돌봄 인프라, 아동기 보육/돌봄 인프라, 공원/녹지 육아인프라, 여가/문화 육아인프라, 교통/안전 육아인프라, 보건/의료 육아인프라의 6대 영역에 관한 지수는 지표 종류별 해당 영역에 관한 세부지표들의 백분위 점수의 평균으로 도출하며, 이를 위한 산식은 <표 1>과 같음.

<표 1> 영역지수 산출 방법

구분	산출 방법
영역지수 산출방법	$A_{ij} = \frac{\sum_{i=1}^{n_k} a_{ij}}{n_k}$ <p> <math>A_{ij}</math>: j읍면동의 i영역(영유아기 보육/돌봄 인프라, ..., 보건/의료 육아인프라) 지수 값  <math>n_k</math>: 지표 종류(절대적 공급/상대적공급/물리적접근성/주민체감도)별 i영역을 구성하는 변수의 수                 </p>

- 6대 영역을 포괄하는 2대 상위영역 및 2대 상위영역을 합산한 최종 종합지수도 유사한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산식은 <표 2>와 같음.

〈표 2〉 최종 종합지수 산출 방법

산출 방법	
(육아의 직접적 자원) <sub>ij</sub>	$\frac{(\text{영유아기 보육/돌봄 인프라 영역지수})_{ij} + (\text{아동기 보육/돌봄 인프라 영역지수})_{ij}}{2}$
(육아의 간접적 자원) <sub>ij</sub>	$\frac{(\text{공원/녹지 영역지수})_{ij} + (\text{여가/문화 영역지수})_{ij} + (\text{교통/문화 영역지수})_{ij} + (\text{보건/의료 영역지수})_{ij}}{4}$
(육아친화성 종합지수) <sub>ij</sub>	$\frac{(\text{육아의 직접적 자원 지수})_{ij} + (\text{육아의 간접적 자원 지수})_{ij}}{2}$

■ 이상의 방법을 통해 육아친화성 종합지수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육아친화성 종합지수는 육아의 직접적 자원과 간접적 자원 지수를 포괄적으로 고려한 것임.
- ◆ 신도시(남양주), 광명시(도시재생), 공주시(도농복합)의 육아친화성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절대적 공급지수는 남양주시가 30.96으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광명시(26.91)가 높게 나타남.
- ◆ 상대적 공급 지수는 공주시가 23.36로 가장 높게 나타남. 상대적 공급 지수는 육아 인프라를 이용하는 인원 대비 공급비율을 살펴본 것으로 공주시의 영유아 인구수에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음.
- ◆ 물리적 접근성은 육아인프라에 접근하는 편의성을 살펴보는 것임. 광명시의 절대적, 상대적 공급지수는 낮지만, 실제로 육아인프라를 이용하기 위한 물리적 접근성을 우수함을 알 수 있었음.

〈표 3〉 지역 유형별 육아친화성 종합지수

지역	기술통계	육아친화성 종합지수		
		절대적 공급	상대적 공급	물리적 접근성
남양주시 (신규조성, N=16)	평균	30.96	21.68	57.88
	표준편차	18.36	9.72	20.65
	왜도	1.34	0.13	-0.79
	변동계수	0.61	0.45	0.36
광명시 (도시재생, N=18)	평균	26.91	20.79	73.45
	표준편차	19.45	8.28	20.62
	왜도	1.24	-0.14	-2.31
	변동계수	0.72	0.40	0.28

지역	기술통계	육아친화성 종합지수		
		절대적 공급	상대적 공급	물리적 접근성
공주시 (도농복합, N=16)	평균	22.71	23.36	40.31
	표준편차	15.50	10.93	23.84
	왜도	1.01	0.91	0.64
	변동계수	0.68	0.47	0.59

#### 나. 지역의 육아친화정도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

- 주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유형별 육아인프라에 대한 주민 체감도를 살펴봄.
  - ◆ 설문조사 지역은 신도시지역(남양주), 도시재생지역(광명시), 도농복합지역(공주시)의 영유아 및 초등저학년 부모 각각 364명, 391명, 343명으로 총 1,098명임. 각 지역 중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동’을 표집하여 특징을 파악하고자 하였음.<sup>5)</sup>

〈표 4〉 지역 유형별 설문조사 대상

단위: 명

지역 및 연령비율	남양주(신도시)			광명시(도시재생)				공주시(도농복합)		
	별내 신도시 (신축단지)	그 외 별내지구	계	철산동	하안동	광명 3·5·7동	계	유구읍· 신평면	신관동· 월송동	계
영아	17	69	86	39	64	17	120	25	66	91
유아	33	133	166	53	69	51	173	26	108	134
초등저학년	16	96	112	29	36	33	98	39	79	118
합계	66	298	364	121	169	101	391	90	253	343

- 각 지역의 육아인프라 중에 육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원에 대한 체감도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인프라에 대한 체감도는 다음과 같음.
  - ◆ 전반적 육아친화성 지수는 남양주시(78.66)와 공주시 중 신관동/월송동(77.71), 광명시 중 철산동(78.30) 및 하안동(77.32) 주민들에게 높게 나타난 반면, 공주시의 유구읍과 신평면(67.85), 광명시의 광명3·5·7동(74.96)은 낮게 나타남.

5) 설문조사는 1차년도 연구인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1):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권미경 외, 2019)」에서 육아친화마을의 단위가 ‘동’이나 ‘단지’라는 주민들의 인식에 근거해, 시청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동을 추천받아 설문을 진행하였음. 남양주시에서도 입주초기인 별내신도시 신축단지를, 광명시에서도 현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 중인 광명3,5,7동을, 공주시에서는 유구읍과 신평면을 표집함.

〈표 5〉 지역 유형별 영역별 체감도 지수

지역		육아의 직접적 자원 영역			육아의 간접적 자원 영역					육아 친화성 종합 지수
		영유아기 보육/돌봄 인프라 영역	아동기 보육/돌봄 인프라 영역	상위 영역 지수	공원/녹지 육아 인프라 영역	여가/문화 육아 인프라 영역	교통/안전 육아 인프라 영역	보건/의료 육아 인프라 영역	상위 영역 지수	
공주시	유구읍·신평면	76.63	76.67	76.65	54.50	50.00	82.07	49.66	59.06	67.85
	신관동·월송동	80.64	76.12	78.38	73.37	77.75	86.80	70.24	77.04	77.71
남양주시	별내동·별내면	77.58	78.46	78.02	79.19	78.62	88.35	71.06	79.31	78.66
광명시	광명3·5·7동	73.15	71.06	72.11	73.77	80.96	87.92	68.57	77.81	74.96
	철산동	77.42	77.07	77.25	74.21	80.19	88.48	74.56	79.36	78.30
	하안동	76.69	74.69	75.69	73.63	79.25	87.89	75.07	78.96	77.32

■ 자녀양육 시 가장 큰 어려움을 질문한 결과, ‘급할 때 아이를 봐줄 곳이 없다’가 33.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개인 시간이 부족해 내 시간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23.5%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 특히 ‘급할 때 아이를 봐줄 곳이 없다’는 응답은 공주시에서 도시지역 거주 부모들이 읍·면지역 부모들에 비해 많았고, 광명시에서 도시재생 지역 거주 부모들에게서 많이 나타남.
- ◆ 한편 ‘양육 및 교육 비용의 부담’은 남양주의 별내동, 공주시의 도시지역(신관동, 월송동)에서 많았음.
- ◆ 남양주시 내에서도 타 지구보다 신축단지의 부모들은 ‘이용가능한 기관이 부족하다’ ‘개인 시간이 부족해 내 시간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는 응답이 많았음.
- ◆ 공주시는 ‘양육 및 교육에 대한 의견을 구하거나 상담할 곳이 없다’는 의견은 읍·면지역 부모들에게 많이 나타난 반면,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동지역 부모들에게서 나타남.

〈표 6〉 지역 유형별 자녀양육 시 애로점

단위: %(명)

구분	급할 때 돌봐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이용 가능한 기관이 부족하다	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체력적으로 힘들다	개인시간이 부족하여 내 시간이 없다는 느낌을 받는다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한 문제를 상담하거나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다	양육 및 교육과 관련하여 고립감을 느낀다	양육 및 교육 비용이 부담된다	없음	계(수)
전체	33.3	5.2	5.7	23.5	9.7	3.2	16.4	3.0	100.0 (1,098)
남양주시	28.3	7.7	6.6	23.4	8.5	3.0	20.3	2.2	100.0 ( 364)
별내동	28.2	6.0	7.0	21.8	9.1	2.7	22.5	2.7	81.9 ( 298)
별내위스데이	28.8	15.2	4.5	30.3	6.1	4.5	10.6	0.0	18.1 ( 66)
$\chi^2(df)$									14.730(7)*
광명시	34.3	5.4	5.6	25.6	9.7	3.6	14.3	1.5	100.0 ( 391)
철산동·하안동	33.8	6.2	4.8	26.9	10.3	3.1	13.8	1.0	74.2 ( 290)
광명3·5·7동	35.6	3.0	7.9	21.8	7.9	5.0	15.8	3.0	25.8 ( 101)
$\chi^2(df)$									6.791(7)
공주시	37.6	2.3	5.0	21.3	10.8	2.9	14.6	5.5	100.0 ( 343)
신관동·월송동	41.5	0.8	4.0	21.3	9.5	2.4	16.6	4.0	73.8 ( 253)
유구읍·신평면	26.7	6.7	7.8	21.1	14.4	4.4	8.9	10.0	26.2 ( 90)
$\chi^2(df)$									25.257(7)***

\*  $p < .05$ , \*\*\*  $p < .001$ .

- 현재 살고 있는 마을/동네로 이사 온 주된 이유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2.6%가 ‘남편(아내)이나 나의 직장이 가까워서’를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아이의 외조부모 집(처가)과 가까워서(15.4%)’, ‘자연환경이 좋아서(11.7%)’로 응답됨.
- ◆ 광명시와 공주시 각 지역 모두 ‘직장이 가깝다’는 이유가 많았으며, 공주시 내에서도 동지역보다 읍·면지역에서는 ‘아이의 친조모가 가까워서’라는 응답이 많았음. 반면 광명시는 ‘아이의 외조모가 가까워서’라는 응답이 많았음. ‘자연환경이 좋아서’라는 응답은 남양주시 별내동 거주자에게 많이 나타남.
- ◆ 광명시 내에서도 철산동, 하안동 부모가 광명3·5·7동 부모보다 ‘남편이나 나의 직장이 가까워서’로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 공주시 내에서도 읍·면지역의 부모보다 동지역 부모가 ‘어린이집이 가까워서’를 많이 응답한 것도 특징적임.

〈표 7〉 지역 유형별 거주 이유

단위: %(명)

구분	남편(아내)이나 나의 직장이 가까워서	아이의 친조부모 집(시가)과 가까워서	아이의 외조부모 집(처가)과 가까워서	조부모 외 자녀를 돌봐 줄 지인이 가까이 있어서	자연 환경이 좋아서	어린이집/유치원이 가까워서	근린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기타	계
전체	32.6	7.8	15.4	4.6	11.7	5.0	5.6	17.1	100.0 (1,098)
남양주시	19.5	3.8	13.5	5.5	25.5	3.0	7.1	22.0	100.0 ( 364)
별내동	20.8	4.0	13.8	4.4	27.2	3.0	5.7	21.1	81.9 ( 298)
별내위스데이	13.6	3.0	12.1	10.6	18.2	3.0	13.6	25.8	18.1 ( 66)
$\chi^2(df)$									12.500(7)
광명시	36.8	10.2	22.5	3.8	5.4	3.3	3.3	14.6	100.0 ( 391)
철산동·하안동	41.4	10.0	21.0	2.8	5.9	3.1	3.8	12.1	74.2 ( 290)
광명3·5·7동	23.8	10.9	26.7	6.9	4.0	4.0	2.0	21.8	25.8 ( 101)
$\chi^2(df)$									17.109(7)*
공주시	41.7	9.3	9.3	4.7	4.4	9.0	6.7	14.9	100.0 ( 343)
신관동·월송동	41.5	4.7	9.1	3.6	3.2	11.9	9.1	17.0	73.8 ( 253)
유구읍·신평면	42.2	22.2	10.0	7.8	7.8	1.1	0.0	8.9	26.2 ( 90)
$\chi^2(df)$									47.175(7)***

\*  $p < .05$ , \*\*\*  $p < .001$ .

- 현재 살고 있는 마을의 양육환경에 대해 평가한 결과, 4점 만점에 평균 2.9점으로 나타남. 특히 광명시 중 도시재생지역(광명3·5·7동)과 공주시의 평가 점수가 2점대로 낮게 나타남. 공주시 내에서도 읍·면지역의 점수가 동지역 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남.

〈표 8〉 지역 유형별 마을의 양육 환경

단위: %(명), 점

구분	매우 좋은 환경이다	비교적 좋은 환경이다	대체로 좋지 않은 환경이다	매우 좋지 않은 환경이다	계(수)	평균
전체	11.5	71.9	15.3	1.3	100.0 (1,098)	2.9
남양주시	16.8	75.5	7.7	0.0	100.0 ( 364)	3.1
별내동	16.1	75.2	8.7	0.0	81.9 ( 298)	3.1
별내위스데이	19.7	77.3	3.0	0.0	18.1 ( 66)	3.2
$\chi^2(df)/t$						-1.4
광명시	11.5	70.8	15.3	2.3	100.0 ( 391)	2.9
철산동·하안동	13.8	76.2	9.3	0.7	74.2 ( 290)	3.0
광명3·5·7동	5.0	55.4	32.7	6.9	25.8 ( 101)	2.6
$\chi^2(df)/t$						5.9***
공주시	5.8	69.4	23.3	1.5	100.0 ( 343)	2.8
신관동·월송동	7.1	77.5	14.6	0.8	73.8 ( 253)	2.9
유구읍·신평면	2.2	46.7	47.8	3.3	26.2 ( 90)	2.5
$\chi^2(df)/t$						6.1***

\*\*\*  $p < .001$ .

- 거주 중인 마을의 육아친화적 공동체 문화에 대해 평가하게 한 결과, ‘우리 마을/동네는 자녀 키우기에 안전하다’와 ‘우리 마을의 이웃들은 신뢰할 만하다’는 4점 만점 중 각각 3.7점, 3.1점으로 분석됨. 각 지역에 따라 평가 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
  - ◆ 남양주에서는 별내위스태이가 전반적으로 별내동에 비해 육아친화적 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음. 광명시에서는 철산동, 하안동이 도시재생 지역보다 긍정적이었음.
  - ◆ 공주시는 ‘안전성’에 대한 부분만 제외하고 ‘우리 마을/동네는 이웃이 서로 아이들을 봐준다’, ‘우리 마을 동네는 급할 때 이웃끼리 서로 돕는다’, ‘우리 마을/동네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부분에서 읍·면지역 부모의 평가가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남. 공주시의 읍·면지역에서는 양육환경 자체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간의 공동체 문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그러나 아이키우기 안전하다는 면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점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음.

〈표 9〉 지역 유형별 마을에 대한 평가

단위: 점

구분	우리 마을/동네는 자녀 키우기에 안전하다	우리 마을/동네는 이웃이 서로 아이들을 봐준다	우리 마을/동네는 급할 때 이웃끼리 서로 돕는다	우리 마을의 이웃들은 신뢰할 만하다	우리 마을/동네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전체	3.7	2.4	2.5	3.1	2.6
남양주시	3.9	2.8	3.0	3.4	2.9
별내동	3.9	2.6	2.8	3.2	2.7
별내위스태이	4.1	3.6	3.6	3.9	4.0
<i>t</i>	-2.1*	-6.4***	-5.2***	-5.6***	-10.0***
광명시	3.6	2.1	2.2	2.9	2.3
철산동·하안동	3.8	2.1	2.2	3.0	2.3
광명3·5·7동	3.0	1.9	2.1	2.8	2.1
<i>t</i>	7.9***	1.7	1.1	2.3*	2.8**
공주시	3.5	2.3	2.3	3.0	2.5
신관동·월송동	3.6	2.1	2.2	2.9	2.4
유구읍·신평면	3.4	2.7	2.7	3.1	2.8
<i>t</i>	2.2*	-3.6***	-3.6***	-1.8	-2.9**

\*  $p < .05$ , \*\*  $p < .01$ , \*\*\*  $p < .001$ .

### 3 정책제언

#### 가. 지역불균형 상황에 따라 육아문제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는 “육아친화마을” 조성 필요

##### ■ 신도시형 육아친화마을

- ◆ 입주 초기 제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신도시에는 영유아 인구가 밀집되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같은 직접적 자원 외의 육아 인프라는 가장 늦게 형성됨. 이에 따라 정착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POP UP형 육아인프라”와 신규 육아가구에게 지역의 육아정보를 알려주고 연계해주는 “찾아가는 육아코디네이터” 지원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 ◆ 신도시 입주가 예정된 시·군·구청은 입주민들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출산을 앞둔 첫아이 부모, 영유아 부모, 학령기 아동의 부모에게 육아 상담을 제공하고, 육아공동체가 형성될 수 있도록 장소와 인력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도시재생형 육아친화마을

- ◆ 도시재생지역은 육아인프라에 대한 접근성이 좋은 반면, 노후화된 환경과 지역 주민의 육아공동체로서의 인식은 부족한 특징이 있음. 노후화된 육아인프라의 개보수와 함께 지역의 육아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이 보완될 필요가 있음.
- ◆ 시·군·구청은 먼저 해당 지역의 육아친화성을 진단하고, 지역주민과 아동참여 워크숍을 개최하여, 해당지역에 맞는 육아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부모와 지역주민 아동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다기능적인 복합공간의 마련과 프로그램을 계획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환경개선과 함께 마을의 육아친화적 공동체 문화가 함께 조성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 도농복합형 육아친화마을

- ◆ 영유아 및 젊은 인구가 적고 초고령 인구나 다문화가구가 많은 것이 특징임. 그러다 보니 육아관련 인프라 자체의 공급 수준이 낮고, 지역 간 편차도 큼. 주로 일자리 때문에 거주하는 부모들에게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공간과 공동체도

- 적은 상황이므로 농촌형 육아친화 공간 및 인력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 이용자 수가 적고, 아동의 생애주기변화에 따라 필요 인프라가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육아와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갖추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존재함. 그러므로, 지역에 기 설치된 보건소, 어린이집, 유치원,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나 건강 가정·다문화지원센터 등을 거점으로 육아관련 서비스의 인력과 사업을 연계 및 보강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해당 시·군·구청 및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협의기구”를 구성해 공동사업을 추진하여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함.
  - ◆ 현재 추진 중인 LH의 농촌 마을·학교 살리기 사업(예: 경남 작은학교 살리기 사업)은 시·도와 시·도교육청의 협력사례로 마을 조성 시 육아친화적 인프라 구성과 육아 공동체가 함께 구성될 수 있도록 “농촌형 육아친화마을”의 구성을 제안함.

## 나. 육아친화마을 조성 시작을 위한 컨설팅 방향

### ■ 육아친화마을 추진을 위한 조직 구성 및 구성원 워크숍

- ◆ 육아친화마을 추진은 해당 시·도나 군·구청 단위에서 업무협력을 위한 조직이 필요함. 단체장 직속 TF팀을 마련하고, 해당 지역의 육아친화성을 진단하여 여건에 맞는 사업을 기획하는 것이 필요함.
- ◆ 육아친화마을 조성 초기에 육아친화마을과 유사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 후(예: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생활SOC 복합화사업, 농촌유토피아사업), 유사사업이 있다면 예산과 조직을 공유할 수 있는지 판단함.
- ◆ 주민참여 워크숍을 통해 마을의 육아친화성 점검하고(KICCE 육아친화마을 체크리스트 풀 활용), 우리 마을에 적용할 수 있는 육아친화마을 사업을 기획한 후, 해당 사업의 주체와 협력 부서 협조 구하는 절차를 취함.

### ■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한 조례 재정 및 조직 협력 구체화

- ◆ 육아친화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 가치와 협력, 조직 구성 및 역할 등의 내용을 포함한 조례를 재정하여 업무 추진을 위한 체계를 갖추.

## 다. 지자체 육아친화마을 조성 협의체 구성을 통한 정보 공유

- 육아친화마을은 관련 부처가 있거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정책이 아님. 그러나 아이 키우기 좋고 가족이 살기 좋은 지역이라는 것은 모두의 삶의 질을 고려하고 있다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라 할 수 있음.
  - ◆ 육아친화마을 조성은 우리나라의 건강한 육아문화 확산의 기초라 볼 때, 인프라 확대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육아를 위한 필수 인프라 공급과 육아 공동체 문화 확산이 함께 보급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라 여겨짐.
  - ◆ 이를 위해서는, 육아친화마을 조성에 관심을 갖는 지자체의 협의체를 구성해 공동 컨설팅과 사업 추진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음. 협의체를 통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필요정보를 연수와 컨설팅을 통해 진행하도록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육아정책연구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할 것을 제안함.<sup>6)</sup>
- 청년인구들이 거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데 있어 지역 불균형의 해소를 위해서, 육아친화마을의 조성은 필수 인프라의 개보수와 함께 육아공동체 문화 확산을 포함할 것을 제안함.
  - ◆ 수도권 인구집중 현상과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임. 이에 더해 해당 지역의 정주 여건의 개선과 문화시설 등 삶의 질을 위한 환경이 조성 역시 중요한 요건임.
  - ◆ 특히 청년인구의 삶의 질 개선과 향후 미래 준비를 돕기 위해서는 편안하고 안정적 이어서 살기 좋은 마을, 계속 거주하고 싶은 마을, 더 나아가 자녀도 함께 살길 원하는 마을이 되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노력이 필요함.
  - ◆ 그런 점에서 ‘육아친화마을’은 사회적 약자인 아이들도 행복하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도 살기 편안한 마을을 조성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음. 육아친화마을은 모두가 살기 좋은 마을이 되도록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육아존중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공동체를 강조하며, 이를 위한 지방정부의 육아친화적 정책이 필수적임.
  - ◆ 최근 울산과 부산에서 육아친화마을 시범적용 사례가 연구를 통해 시도되고 있어, 향후 타지역에서의 확대도 기대됨.

6) 2021년에 진행 중인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Ⅲ): KICCE 육아친화마을 인증사업 시범 적용(김나영 외, 진행 중) 연구에서 육아친화마을 인증절차에 대한 자세를 안내할 예정이다.

## I 참고 문헌 I

- 강은진·권미경·김보미·황명화·김희교(2020).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I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지표 지역별 맞춤형 시범 진단 및 적용. 육아정책연구소.
- 권미경·황선영·이혜민·Morita Akemi·박지윤·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9). 초저출산 사회 극복을 위한 육아친화마을 조성 방안 연구(I): KICCE 육아친화마을 조성 1단계 기초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김수영·송현정(2021). 초저출산 경험 및 회복 국가의 특성 분석.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KOSTAT 통계플러스, 가을호, 4-21.
- 김유현(2021). 지역의 경제·생활여건이 청년인구이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55(2), 337-367.
- 박시내(2021). 저[低]혼인 시대, 미혼남녀 해석하기.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KOSTAT 통계플러스, 봄호, 24-47.
- 사회통계국 인구동향과(2021. 1. 26). 2020년 국내인구이동통계 결과.
- 통계개발원 경제사회통계연구실 보도자료(2021. 9. 29)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가을호 발간: 코로나19 시대 소비변화를 민간·공공 빅데이터로 분석, 데이터과학을 활용한 「감염확산 예측모델링」은 방역정책 지원에 효과적.
- OECD(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data, Jobs & ILO.

PART

03

## 포용적 육아 지원

▮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지원 요구 분석 및 지원방안  
이정림



| 이슈페이퍼 2021-04 |

#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지원 요구 분석 및 지원방안

이정림

1. 연구 개요
  2. 영유아 빈곤가정 양육실태 요구 분석
  3.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지원방안
- 참고문헌



#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지원 요구 분석 및 지원방안\*

이정림 선임연구위원

## ◆◆ 요약 ◆◆

- 빈곤가정의 영유아는 다차원적 영역(보육·교육, 보건, 복지 분야 등)에서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해결하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빈곤가정 특성별 양육실태 및 요구를 살펴보았음.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 빈곤가정과 미혼모 빈곤가정은 양부모가 있는 빈곤가정보다 양육 스트레스 및 우울을 높게 경험하고, 지난 1년간 돈이 부족한 경험이 많았음.
-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미혼모 빈곤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은 양부모가 있는 빈곤가정보다 모유 수유의 비율이 낮음.
- 조손가정의 경우 문화생활 경험(영화 또는 공연 관람)을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이 79.2%로 조손가정 외 유형에 비해 매우 높음.
- 이상의 결과 등을 토대로 '빈곤가정 영유아에 대한 조기 투자'와 '빈곤가정 특성별 맞춤형 지원 제공'의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을 제안하였음.

## 1

### 연구 개요

####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방향에 입각하여 보편적 복지를 통하여 경제 생활, 주거환경, 보육 및 교육 기회, 영양과 건강, 문화생활 등과 같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격차를 줄여나가고자 함.
- 그러나 보편적 복지를 통하여 빈곤가정의 다각적인 결핍이 해소되지 않고 있음이 밝

\*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인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연구(II):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 요구 분석(이정림·구자연·최윤경·정정호, 2020)」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혀지면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해서 격차가 발생하는 영역에 대한 집중과 선택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이 대두되고 있음.

- ◆ 예를 들어 이정림, 김아름, 엄지원(2018)의 연구에서 보편적 복지의 한계점을 부분적으로 제기하였음.
- ◆ 이정림 외(2018)의 연구에 따르면, 취약계층 만4~5세 유아들의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와 같은 누리과정 5개 영역에 대한 관찰척도 점수가 전반적으로 비취약 계층 유아들보다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 빈곤가정 영유아의 보육·교육에서의 격차 이외에도 빈곤 가정 유아의 영양 및 건강에 대한 격차도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하였음(방경숙·양수·현혜진·김지수, 2008; 이정림·민정원·조혜주, 2014).
- 보편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가구소득, 가정유형에 따른 격차가 존재하며, 낮은 가구소득, 가정유형에 따른 영유아의 다차원적 영역(보육·교육, 보건, 복지 분야 등)에서의 열악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려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 빈곤가정 아동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에서 영유아를 위한 통합적 지원사업 내용이 줄어든 사회적 배경 및 원인 등을 분석하여 지원사업 보강에 대한 고찰 필요
  - ◆ 최근 빈곤가정 영유아를 지원하는 여러 형태의 현금 및 현물지원, 서비스 지원, 시간정책 등에 대한 빈곤가정 수요자들의 만족도 및 요구사항 등도 파악 필요
  - ◆ 이상의 빈곤가정 실태 및 요구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빈곤 가정유형별 맞춤형 맞춤형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보다 실효성 있는 영유아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
- 이상과 같은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음.
  - ◆ 생애 초기의 신생아·영유아시기부터 가구소득 및 가구특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양육환경의 격차와 빈곤가정의 양육실태 파악을 위한 최근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 빈곤가정 영유아의 불리한 양육환경으로부터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지원 방안을 가구 특성별로 세분화하여 제안하고자 함.
-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방안 2차년도에 걸친 연구로써 본 연구는 2차년도 연구에 해당함.

- ◆ 2019년(1차년도) 주요 연구내용은 전반적인 빈곤가정 영유아의 양육실태를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파악하고 분석하였으며, 국내외 통합적 지원 사례 분석 등을 통하여 영유아 양육에 있어 성장 및 발달에서의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도출하였음(유해미·박은정·엄지원·정은희, 2019).
- ◆ 2020년(2차년도) 주요 연구내용은 빈곤가정을 가족 유형별(양부모가 있는 일반 저소득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 조손가정)로 구분하여 양육실태를 파악하였고, 더 촘촘한 맞춤형 양육 지원방안을 도출하였음(이정림·구자연·최윤경·정정호, 2020).

## 나.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 ■ 연구의 범위

- ◆ 본 연구에서 빈곤가정을 일반 빈곤가정, 한부모 빈곤가정, 미혼모(부) 빈곤가정, 조손 빈곤가정으로 구분하였으나 이상의 가정유형은 기본적으로 모두 저소득으로 한정하였음.
- ◆ 이러한 전제하에 각 가정의 범주는 다음과 같음.
  - 일반 빈곤가정은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소득이 낮은 가정으로 한정
  - 한부모 및 미혼모부 빈곤가정의 경우 부와 모 모두 대상에 포함
  - 조손 빈곤가정의 경우 주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와 대리 양육 가정위탁을 포함
- ◆ 본 연구에서 빈곤가정의 기준은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수급가구를 포함하여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으로 하였음.

### ■ 연구의 제한점

- ◆ 본 연구에서 조손가정은 지역 사회복지관에서 조손가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협조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조손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파악은 하지 못함.
- ◆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설문조사 진행의 어려움으로 전체 설문조사 응답자를 축소하였고, 빈곤가정 유형별에 따른 영유아 양육에 관한 전반적 요구에 대한 분석에 중점을 둬.

## 2 영유아 빈곤가정 양육실태 요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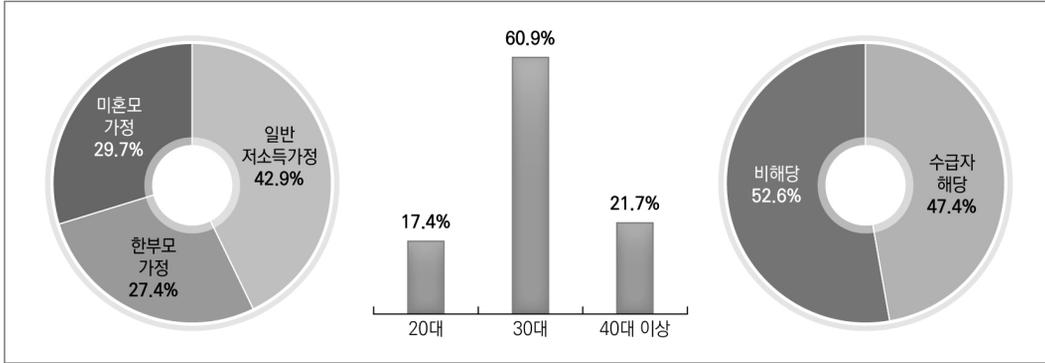
### 가. 응답자 특성

- 양부모가 있는 일반 빈곤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의 주양육자 350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음.
  - ◆ 일반 빈곤가정이 42.9%(150명), 한부모 가정이 27.4%(96명), 미혼모 가정이 29.7%(104명)임.
  - ◆ 양육자의 연령은 30대가 60.9%로 가장 많았으며, 40대 이상은 21.7%, 20대는 17.4%를 차지하였음.
  -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47.4%, 아닌 경우는 52.6%로 대략 절반 정도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이었음.
  - ◆ 학력은 고졸 이하가 36.6%, 대졸 이상이 63.4%로 나타났고,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수도권이 54.6%, 비수도권이 45.4%로 비슷한 비율이었음.

〈표 1〉 일반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 미혼모 가정의 응답자 특성

단위: %(명)

구분	계	(수)	구분	계	(수)
전체	100.0	(350)	전체	100.0	(350)
자녀 연령			학력		
영아	67.4	(236)	고졸 이하	36.6	(128)
유아	32.6	(114)	대졸 이상	63.4	(222)
가정유형			지역 구분		
일반 저소득 가정	42.9	(150)	수도권	54.6	(191)
한부모 가정	27.4	( 96)	비수도권	45.4	(159)
미혼모 가정	29.7	(104)			
양육자 연령			수급자 여부		
20대	17.4	( 61)	해당	47.4	(166)
30대	60.9	(213)	비해당	52.6	(184)
40대 이상	21.7	( 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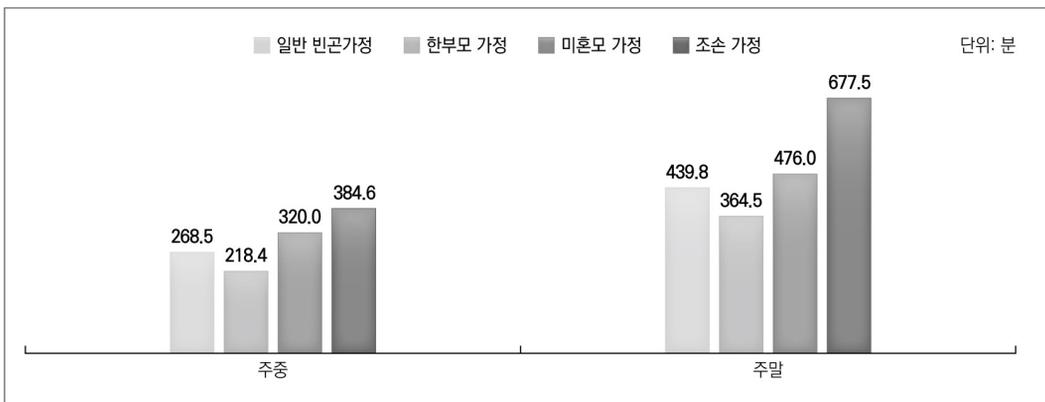
[그림 1] 가정유형별, 연령 및 수급자 여부에 따른 응답자 분포

- 조손가정의 설문 응답자 24명으로 사례 수가 적어서 가정유형별 비교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분석하였음.
- ◆ 가정위탁 형태로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17명(70.8%), 가정위탁이 아닌 경우는 7명(29.2%)으로 나타났음.

#### 나. 빈곤가정 특성별 설문조사 결과 및 시사점

##### ■ 자녀 양육

- ◆ 주중과 주말의 돌봄시간이 한부모 가정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남.



주: 조손가정의 조사 참여 인원은 24명으로 사례수가 적음. 이에 차이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음.

[그림 2] 빈곤가정 유형별 주중 및 주말 가정 돌봄 시간 비교

- ◆ ‘아이가 생긴 이후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스트레스로 응답하였음. 큰 차이는 없었지만 전반적으로 한부모와 미혼모 가정이 일반 저소득 가정 보다 양육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양육스트레스

단위: 점, (명)

구분	아이가 생긴 이후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거의 할 수 없다	자녀와 잘 지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아 괴롭다	자녀를 위한 노력이 크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	양육자가 되는 것은 생각한 것만큼 만족스럽지 않다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럽게 여겨진다	(수)
전체	4.1	3.1	3.0	3.1	2.1	(350)
가정유형						
일반 저소득 가정	4.0	2.9	2.8	2.8	1.9	(150)
한부모 가정	4.0	3.2	3.2	3.3	2.2	( 96)
미혼모 가정	4.2	3.2	3.1	3.3	2.3	(104)
<i>F</i>	2.1	2.2	3.3*	6.1**	6.4**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한 결과의 평균값임.

\*  $p < .05$ , \*\*  $p < .01$ .

- ◆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은 일반 빈곤가정보다 우울을 높게 경험함.

〈표 3〉 우울(PHQ-2)

단위: %(명), 점

구분	0~2점	3~6점	계(수)	평균
전체	64.3	35.7	100.0 (350)	2.4
가정유형				
일반 저소득 가정	75.3	24.7	100.0 (150)	2.0
한부모 가정	56.3	43.8	100.0 ( 96)	2.7
미혼모 가정	55.8	44.2	100.0 (104)	2.8
$\chi^2(df)/F$		13.959(2)***		8.3***

주: 본 척도는 ① 지난 한 달 동안 자주 기분이 처지거나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는 느낌으로 고민하고 있다 ② 지난 한 달 동안 자주 일상적인 활동에 흥미나 즐거움의 감소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두 문항을 “전혀 없다” = 0점, “며칠 동안” = 1점, “일주일 이상” = 2점, “거의 매일” = 3점으로 평가하여 두 문항의 합을 제시함.

자료: 신재현·김희철·정철호·김정범·정성원·조현주·정성훈(2013). 한글판 우울증 선별 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2)의 표준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52(3), 115-121.

\*\*\*  $p < .001$ .

- ◆ 빈곤가정 유형별 양육의 어려움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미혼모 가정이 일반 저소득 가정, 한부모 가정에 비해 양육 어려움을 좀 더 크게 경험하는 것으로 보여짐.

〈표 4〉 양육의 어려움

단위: 점, (명)

구분	양육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근로시간에 맞게 아이를 맡길 시설이 마땅치 않다	장시간 노동 등으로 자녀를 직접 돌볼 시간이 없다	급할 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	아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거나 조언을 구할 사람이 없다	아이에게 제공되는 정부지원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수)
전체	4.0	3.7	3.2	3.5	3.0	2.8	(350)
가정유형							
일반 저소득 가정	3.9	3.7	3.2	3.1	2.6	2.9	(150)
한부모 가정	3.9	3.7	3.1	3.6	3.2	2.7	( 96)
미혼모 가정	4.2	3.9	3.3	3.9	3.5	2.8	(104)
F	2.9	1.1	0.5	9.4***	22.6***	0.5	

주: 전혀 그렇지 않다(1점)~매우 그렇다(5점)로 평정한 결과의 평균값임.

\*\*\*  $p < .001$ .

#### ■ 경제적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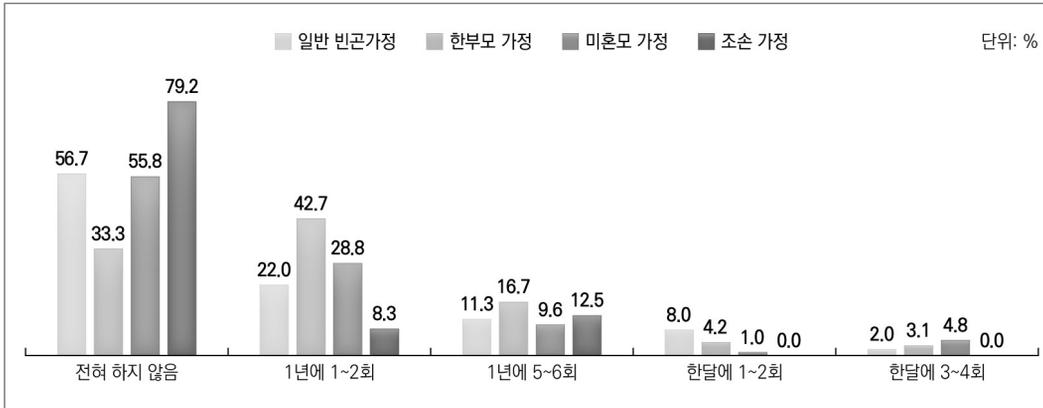
- ◆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은 일반 빈곤가정보다 지난 1년간 돈이 부족한 경험이 많았음.

#### ■ 건강 및 영양, 식생활

- ◆ 미혼모 가정과 수급자 가정은 일반 빈곤가정보다 모유 수유의 비율이 낮음.
- ◆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은 일반 빈곤가정보다 영양상 균형 있는 음식 제공 비율이 낮음.

#### ■ 문화생활

- ◆ 조손가정의 경우 문화생활 경험(영화 또는 공연 관람)을 전혀 하지 않은 비율이 79.2%로 조손가정 외 유형에 비해 매우 높음.
- ◆ 한부모 가정과 미혼모 가정은 일반 빈곤가정보다 문화생활 경험(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이 적고, 문화생활 지출액도 적음.



주: 조손가정의 조사 참여 인원은 24명으로 사례수가 적음. 이에 차이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음.

[그림 3] 빈곤가정 유형별 영유아의 문화생활 경험(영화 또는 공연 관람)

#### ■ 영유아 자녀의 일과 활동

- ◆ 빈곤가정은 영유아 자녀의 일과 활동 중 영상시청 시간이 책읽기, 게임에 보내는 시간에 비해 많음.
- ◆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은 일반 빈곤가정보다 영상시청 시간이 많음.

#### ■ 양육지원정책

- ◆ 본 조사 참여 빈곤가정은 비용지원(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보육·교육료) 이용 경험이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 ■ 주거지원 정책

- ◆ 본 조사 참여 빈곤가정은 난방비·연료비·전기요금지원 수혜 경험이 많았으며, 전반적으로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 ■ 양육지원제도에 관한 개선 요구

- ◆ 현재 당면한 가장 큰 어려움이 경제적 어려움이며, 영유아 양육을 위한 양육비 지원과 같은 현금지원을 가장 필요로 한다고 요구하였음.
- ◆ 경제적 여건 개선 시 일반 빈곤가정,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은 여가 및 문화생활에, 조손가정은 학원/특별활동에 투자하고 싶다고 응답하였음.

### ■ 시사점

- ◆ 자조 모임은 강력한 지지체계로 한부모, 미혼모 가정을 위한 자조 모임 지원과 확대가 필요함.
- ◆ 한부모, 미혼모 가정을 위한 상담전화, 가족상담, 법률상담 등의 홍보 및 내실화, 수혜 대상을 늘리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 미혼모 정신 건강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함.
- ◆ 미혼모 가정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비율이 높아 경제적 악순환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미혼모의 자립, 자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정보 제공이 필요함.
- ◆ 생애 초기부터 모유 수유와 식생활 개선에 대한 안내 및 교육이 지원,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
- ◆ 한부모, 미혼모 가정에서는 한 명의 부모가 양육, 부양책임을 감당함으로 양육 지원 인력, 생활비 등이 충분하지 않아 문화생활의 어려움 및 자녀 영상시청에 대한 관리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음.

## 다. 빈곤가정 특성별 주양육자 (손)자녀 양육 관련 면담 분석 결과

- 심층 면담 조사대상은 취학 전 영유아 자녀를 둔 양부모 빈곤가정 주양육자 3명, 한부모 혹은 한모인 한부모 빈곤가정 주양육자 7명, 미혼모 빈곤가정 주양육자 3명, 취학전 영유아 손자녀를 둔 조손가정 주양육자 2명으로 총 15명이었음.
- 다음에서 빈곤가정 특성(양부모 빈곤가정, 한모 빈곤가정, 미혼모 빈곤가정, 한부모 빈곤가정, 조손가정)별로 (손)자녀 양육 관련 경험에 관한 면담 내용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음.
- 일반 빈곤가정의 자녀 양육 경험
  - ◆ 모가 가정내 양육자 역할, 부는 생계부양의 역할을 하였고, 가정보육, 코로나 19로 인한 변화, 소극적인 남편의 태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 및 양육 스트레스를 경험함.
  - ◆ 부모 역할에 대한 죄책감과 부담감을 느낌.

“저는 많은 스트레스 받아요. 부담감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이런 스트레스 오는 게 내가 이 아이를 책임져야 하고 이 아이를 계속 봐야 하고, 이 아이가 잘못될 경우에도 다 내 책임이니까 그래서 긴장을 못 놓겠고... 그런 부분들이 나한테 스트레스를 계속 주는 것 같아요.”

#### ■ 한부모가정(한모)의 자녀 양육 경험

- ◆ 모가 양육자와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고, 이혼 전에 남편의 무관심, 경제적 무능력, 폭력과 외도, 부부 갈등을 경험하였음
- ◆ 이혼 후 경제적 어려움, 주거 및 취업 문제, 사회서비스 도움의 한계를 경험함.

“진짜 나와서는 무보증 원룸, 반지하에 진짜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다 싶는데를 가서 돌도 안 된 애를 데리고 살았거든요. 진짜 안 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애기 가정 어린이집 보내놓고 식당 서빙하고 또 청소하는 것도 해보고 학원 행정알바도 하고...”

#### ■ 미혼모 가정의 자녀 양육 경험

- ◆ 모가 양육자와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고, 조건부 수급자로 생활을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함
- ◆ 사회서비스 도움의 한계, 원 가족과의 단절, 지지체계 부족, 사회적 편견 등을 경험함.

“사실은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잖아요. 배신감도 많이 들 거고. 분명히 부모님도 시간이 필요할 거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이라고 집을 나왔죠.”

#### ■ 한부 가정의 자녀 양육 경험

- ◆ 부가 양육자와 생계부양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였고, 자녀 육아 및 교육지원의 어려움을 경험함.
- ◆ 근로 중단과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함.

“집에서 혼자 애 키우다 보니까 일 못하고. 그래서 인제 방법을 찾아봤죠. 찾아보면 자기한테 맞는 기회는 무조건 있더라고요. 뭐든지. 그래서 뭐죠 영세민? 옛날 말로 영세민이죠. 그 영세민 신청해서 되기도 하고...”

■ 조손가정의 손자녀 양육 경험

- ◆ 자녀의 가출(본 연구의 주양육자: 외조모), 경제적 어려움 및 육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병을 얻음.
- ◆ 사회서비스(가정위탁, 보육 서비스)의 도움의 한계, 위기 시 지원 체계 부족을 경험함.

“힘들 때는 마이 보채고 울고 막 이래 할 때. 아프고 할 때 아이가 마이 아프고 할 때 그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제가 병원에 한 3번 입원시키고 했는데. 그 때가 제일 힘들었고.”

### 3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지원방안

#### 가. 기본 방향

■ 빈곤가정 영유아에 대한 조기 투자

- ◆ 빈곤가정에 대한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특히 투자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조기 투자가 필요함.
- ◆ 전반적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빈곤가정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양육지원을 위한 외부 인적 자원 및 정보 부족에 따른 어려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
  - 빈곤가정 영유아의 건강과 영양, 적절한 놀이 환경 제공으로 기대할 수 있는 신체 발달 및 언어·인지 발달, 건전한 생활 습관 형성, 문화적 체험을 통한 사회·정서 발달 등과 같은 영역에서의 총체적 부실은 빈곤가정 영유아의 건강하고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가 있음.
- ◆ 이러한 초기의 사회적 격차에 대한 조기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후 격차는 점점 커져서 이로 인한 부정적 발달 궤적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더 커진다는 것은 이미 많은 선행연구로 밝혀진 바임(김수정·정익중, 2017; Heckman, 2008; Wößmann, 2008; Heckman & Corbin, 2016; Doyle, Harmon, Heckman, & Tremblay, 2009).

### ■ 빈곤가정 특성별 맞춤형 지원 제공

- ◆ 한부모와 미혼모의 경우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등을 더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특히 미혼모의 경우에는 결혼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넘어서 자녀를 양육함으로써 인한 사회적 고립이 다른 가정유형에 비해 더 심한 상황으로, 제반 영역에서 열악한 상황으로 나타났다.
- ◆ 조손가정의 경우에는 노부모의 육체적 노쇠함, 사회변화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인한 손자녀의 훈육 및 교육과 관련된 제반 영역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가정 특성별 차이를 반영하여 빈곤가정 지원정책이 이루어질 때 정책의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여겨짐.

## 나.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 ■ 드림스타트 사업에서의 영유아 지원 사업 특성화 및 활성화

- ◆ 사례중심의 영유아 관리를 질적으로 잘 운영 될 수 있도록 사례관리에 대한 슈퍼비전 제공, 사례관리 담당자 교육 기회 제공 등이 필요
- ◆ 빈곤가정의 경우 자신과 가족에 대한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고, 한부모나 미혼모의 경우에는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고, 조부모의 경우에는 정책이나 정보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가정방문 등을 통한 찾아가는 부모교육 실시
- ◆ 한부모나 미혼모의 배우자가 양육비를 부담하고 있는지 등에 관한 모니터링 및 조손가정의 손자녀 부모가 양육비를 제공하고 있는 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례관리 필요
- ◆ 전국에 소재하고 있는 드림스타트 기관을 통해 해당 지역 빈곤가정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적 특성 반영한 지원이 필요하며, 예를 들어 교통취약지역에 거주할 경우에는 자가용 소지에 대한 비용을 재산에 포함하지 않고 법정소득기준을 설정하는 조례 등이 필요함.

- 영아 및 임신부와 태아를 위한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드림스타트 활성화 뿐 아니라 조기드림스타트 사업의 시작도 필요함.
  - ◆ 조기드림스타트 기반 마련을 위한 중장기 방안 수립이 필요
- 빈곤 특성에 따른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 ◆ 식비 바우처 제도 도입
    - 영유아 시기가 신체적 성장과 발달뿐 아니라 뇌 발달이 이루어지는 주요한 시기임을 감안한다면 이들 가정에 식비 제공 등이 필요함.
  - ◆ 문화생활 지원을 위한 바우처 연령 확대 및 활성화
    - 문화바우처 지원 등이 주로 6세 이상의 아동과 청소년 대상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더 어린 연령으로 확대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 ◆ 조손 및 한부모(미혼모부) 가구의 수당 적정성 제고
    -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한부모 및 미혼모부의 경우에는 영유아 양육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으로 고소득의 정규직 형태의 직업을 구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가정이 영유아를 양육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준의 양육 수당이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 빈곤가정 영유아를 위한 책꾸러미 선물, 방문을 통한 영유아와의 책읽기, 어린이 대상 책읽기 프로그램 연계 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빈곤가정 영유아가 책과 친숙해질 수 있도록 조성하는 환경 제공
  - ◆ 빈곤가정의 영유아 대상의 특기활동 및 특별활동에 대한 비용 지원
- 빈곤가정 영유아 통합지원사업 간의 연계 및 관리 체계
  - ◆ 지역사회와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공무원, 드림스타트가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빈곤가정의 상황을 확인하고 연계하는 것이 필요함.
  - ◆ 지역사회와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공무원, 드림스타트와 같은 기존체계 기관 간의 유기적인 관계 형성과 협력을 통하여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이 필요함.

## 다.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

### ■ 일반 빈곤가정 지원 방안

- ◆ 양부모가 있는 일반 빈곤가정의 경우 배우자(남편)의 술 문제 등으로 어머니 혼자 독박육아를 하며 아버지의 경제력과 양육에 대한 도움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이들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등을 통한 지원 필요
- ◆ 저소득 가정의 경우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이용이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이정림·이미화·오유정, 2013)를 감안한다면, 저소득 가정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기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권장할 필요가 있음.

### ■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 지원 방안

- ◆ 한부모 및 미혼모(부)를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 한부모와 미혼모(부) 가정의 자립과 자존감, 양육에 대한 양육효능감 등의 향상을 위해서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집단의 사람들로 구성된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지원함.
  - 같은 미혼모(부)나 한부모 중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잘 극복한 사례들로부터 얻는 교훈이나 조언 등으로 해결 방안을 삼아서 현재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게 된다 점에서 고무적임.
  - 이에, 이러한 자조모임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공간 및 비용 지원 등이 필요함.
- ◆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프로그램 제공
  - 일반적인 부모교육이 양부모 위주의 교육임을 고려하여 한부모와 미혼모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며, 편부는 양육기술과 양육 능력을 조장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한편, 한부모와 미혼모, 편부로서 경험하게 되는 사회적 고립감 및 양육스트레스 등과 관련된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담 프로그램이나 힐링 프로그램 등의 제공이 필요함.
  - 이상과 같은 부모교육이나 부모상담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위해 부모교육 매뉴얼 책자 제공, 거주지에서 가까운 공공센터활용, 가정 방문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과 다양한 장소에서 부모교육이나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 긴급 시 활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우선 연계 방안 마련
  - 돌봄 서비스가 가장 필요한 한부모, 미혼모와 같은 경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서비스 등을 포함한 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필요함.
- ◆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 한부모와 미혼모(부)의 경우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책임지고 끝까지 양육하려고 하는 성인이라는 점에서 사회가 지지하고 지원해주어야 함.
  - 이러한 과정에서 미혼모의 인권에 대한 존중과 보호가 없이 좋은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전달할 경우, 오히려 당사자의 상처를 건드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재고도 필요함.

#### ■ 조손 가정 지원 방안

- ◆ 복지멤버십 제도를 도입해서 직접 조손가정을 찾아가서 복지 정책에 대한 포괄적 신청을 받고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 조손가정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수행 방안 마련
- ◆ 조손가정에 대한 주관 기관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련 기관이 협력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p>빈곤특성에 따른 영유아 양육지원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비 바우처 제도 도입</li> <li>• 문화생활을 위한 바우처 연령 확대 및 활성화</li> <li>• 조손 및 한부모(미혼모부)가구의 수당 적정성 제고</li> <li>• 책임기 프로그램 등의 참여 연계 및 활성화</li> <li>• 특기활동 및 특별활동에 대한 지원</li> </ul>
<p>조기 드림스타트 사업기반마련을 위한 중장기 방안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혼모 가정의 경우, 임신 시 출산 결정여부, 출산 준비 등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함</li> <li>• 미혼모 빈곤가정을 포함한 대부분의 빈곤가정의 경우 임신과 출산, 신생아 시기의 생애 초기의 주요 시점에서 정책적 지원과 개입이 필요</li> </ul>
<p>드림스타트 사업에서의 영유아 지원사업 특성화 및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 연계 중심이 아닌 실효성 있는 맞춤형 사례중심의 영유아 관리</li> <li>• 찾아가는 부모교육 실시</li> <li>• 빈곤가정의 양육비 등에 관한 사례관리</li> <li>• 전국소재 드림스타트 기관을 통해 해당빈곤가정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원</li> </ul>
<p>빈곤가정 유형별 영유아 양육지원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 저소득 가정: 일반 저소득 가정의 사례관리, 어린이집 및 유치원과 같은 기관 이용 권장</li> <li>• 한부모 및 미혼모 가정: 한부모 및 미혼모(부)를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부모교육 및 부모상담 프로그램 제공, 긴급 시 활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우선 연계 방안 마련,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li> <li>• 영유아 자녀를 둔 미혼모의 자동차에 보유에 대한 소득 인정액 완화</li> <li>• 조손가정: 복지멤버십 제도 도입 등을 통한 찾아가는 서비스 지원 체계 마련, 조손가정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수행 방안, 조손가정에 대한 관리 부처 및 기관 간의 연계 및 업무 명확화</li> </ul>
<p>빈곤가정 영유아 통합지원사업 간의 연계 및 관리체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린이집과 같은 보육기관과의 유기적 연계 강화</li> <li>• 기존체계의 기관 간 연계 및 협력 활성화</li> </ul>

[그림 4]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방안

## I 참고 문헌 I

- 김수정·정익중(2017). 아동 빈곤의 사회경제적 비용 추계. *한국사회복지학*, 69(3), 9-33.
- 방경숙·양수·현혜진·김지수(2008). 경기도 위스타트 사업을 위한 미취학 빈곤 아동 건강 및 양육 실태. *한국모자보건학회지*, 12(1), 104-115.
- 신재현·김희철·정철호·김정범·정성원·조현주·정성훈(2013). 한글판 우울증 선별 도구(Patient Health Questionnaire-2)의 표준화 연구. *신경정신의학*, 52(3), 115-121.
- 유해미·박은정·엄지원·정은희(2019).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연구(I):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실태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구자연·최윤경·정정호(2020).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빈곤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방안 연구(II): 빈곤가정 특성별 영유아 양육 요구 분석.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김아름·엄지원(2018). 누리과정 효과성 분석 연구: KICCE누리과정 유아 관찰척도 활용을 중심으로.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민정원·조혜주(2014).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신·수유부의 건강과 영양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림·이미화·오유정(2013). 「5세 누리과정 유아관찰척도」 활용을 통한 누리과정 효과 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Heckman, J. J. (2008). The case for investing in disadvantaged young children. *CESifo DICE Report*, 6(2), 3-8.
- Heckman, J. J., & Corbin, C. O. (2016). Capabilities and skills.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and Capabilities*, 17(3), 342-359.
- Doyle, O., Harmon, C. P., Heckman, J. J., & Tremblay, R. E. (2009). Investing in early human development: timing and economic efficiency. *Economics & Human Biology*, 7(1), 1-6.
- Wößmann, L. (2008). Efficiency and equity of European education and training policie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15(2), 199-230.



PART

# 04

---

## 중국 영유아 부모

▮ 저출생 시대, 중국 영유아 부모의 한국 육아용품 구매  
경험과 선호  
최효미



| 이슈페이퍼 2021-08 |

# 저출생 시대, 중국 영유아 부모의 한국 육아용품 구매 경험과 선호

최효미

1. 문제제기
  2. 중국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비용 지출 및 소비 성향
  3. 중국 영유아 부모들의 육아용품 구매 행태
  4. 중국 영유아 부모들의 육아용품에 대한 선호 및 구매의사
  5. 정책적 시사점
- 참고문헌



# 저출생 시대, 중국 영유아 부모의 한국 육아용품 구매 경험과 선호\*

최효미 연구위원

## ◆◆ 요약 ◆◆

- 저출생 현상의 심화로 한국 육아용품 시장의 확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중국은 성장 가능성이 큰 거대 시장으로 중국 시장 개척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중국 영유아 부모들은 한국과 유사한 소비 성향을 보이지만, 한국과 달리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함. 이는 중국 시장 개척 시 중국 부모의 소비 성향을 잘 파악하여 접근해야하는 주된 이유가 됨.
- 육아용품 구매 시 안전성 인증을 가장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며, 여전히 오프라인 구매가 주된 구매 경로임.
- 수입 육아용품 구입 경험이 96.6%에 달할 정도로 글로벌 제품에 대한 높은 선호를 보이며, 한국 육아용품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은 편임.
- 한국 육아용품을 구매할 의사가 없는 주된 이유는 A/S 등이 번거로울 것 같다는 응답이 가장 높음.
- 중국 시장 확장 및 개척을 위해 국제 표준 인증 획득 지원 및 중국 인증 제도 변화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이 요구되며, 육아박람회 및 한국 육아용품 체험관 등을 통해 다양한 한국 육아용품의 중국 내 제품 판매 경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또한, 육아용품 공동 A/S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을 고려해야 함.

## 1

### 문제제기

#### 가.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중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2016년 전면적인 두자녀 출산을 허용하고, 2021년에는 세자녀 출산까지 확대하는 등<sup>1)</sup> 저출산 정책이 변화되고 있음.

\* 본고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협동연구인 「중국의 육아 소비문화와 한국 엔젤산업의 대응전략: 육아용품을 중심으로(최효미·최은영·박은영·권일숙·정상은, 2020)」를 기반으로 작성됨.

- ◆ 중국은 2000년 초반까지도 ‘한가구, 한자녀’ 계획 출산을 기본 정책으로 표방하고 엄격한 산아 제한을 실시해 왔으나, 저출산 심화로 지속적으로 산아 제한을 완화하고 있음.
- 국가 경제의 초고도 성장으로 인해 경제력을 갖춘 중국 영유아 부모들은 인터넷 등의 활용이 높고, 기존 세대와는 다른 소비 양태를 보임(KOTRA, 2019: 18).
  - ◆ 장기간 이어진 산아 제한 정책의 영향으로 일명 식스포켓(six pockets)<sup>2)</sup> 현상이 발견되고, 멜라민 분유 파동 등으로 인해 안전한 제품에 대한 선호가 폭증하면서, 글로벌 제품과 프리미엄 육아 상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급증함(비티타임즈, 2018: 11).
- 중국은 신생아 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육아용품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KOTRA, 2019: 15).
  - ◆ 2015년 6월 체결된 한·중 FTA 이후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 시 주목해야하는 유망품목에는 항상 육아용품이 포함되어 있음.
  - ◆ 중국 육아 시장의 규모는 2018년에는 3조위안(RMB)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지속적인 확장세를 보이며 16.5%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됨(CBBC, 2019: 3).
- 중국 영유아 부모들의 육아용품 구입과 관련된 소비 성향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중국 육아용품 시장 공략의 기반을 마련코자 함.

## 나. 분석 자료

- 본고에서 활용된 자료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육아정책연구소가 2020년 협동연구로 수행한 「중국의 유아 소비문화와 한국 엔젤산업의 대응전략: 육아용품을 중심으로」에서 중국 현지(북경, 상해, 서안)의 영유아 부모 1,000명에 실시한 실태조사 자료임.
  - ◆ 비교를 위해 제시한 한국 자료는 ‘KICCE 소비실태조사(육아정책연구소) 2차년도 (2019년) 자료<sup>3)</sup>이며, 상기 보고서에 제시된 자료임.

1) 연합뉴스(2021. 8. 22 보도), 중국, 세자녀 정책 정식입법...“출산 제한 → 장려전환”,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2023200083> (인출일 : 2021. 12.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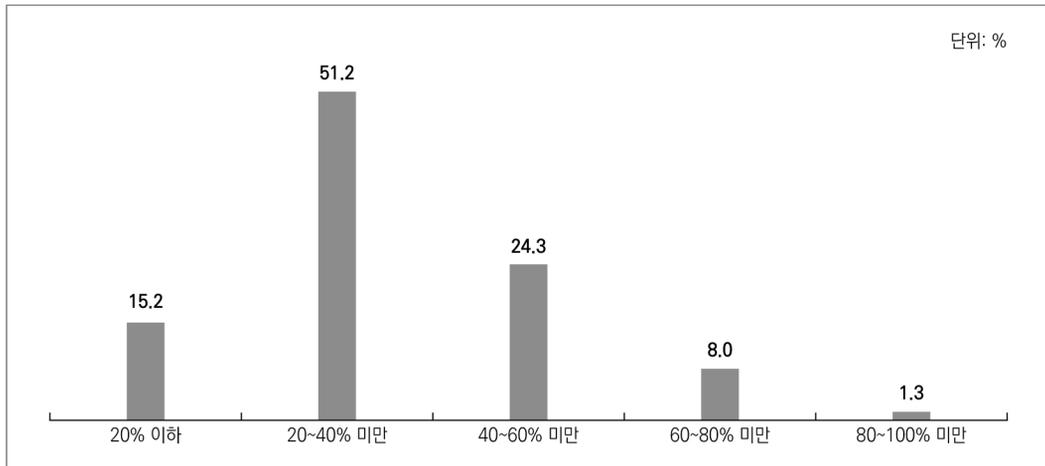
2) 자녀가 줄어들면서 한 아이를 위해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까지 6명이 소비를 한다는 의미임.

3) 최효미·장혜원·김태우·고영우(2019).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 2

## 중국 영유아 부모들의 양육비용 지출 및 소비 성향

- 중국 영유아 부모들이 생활비 지출 중 양육비에 투자하는 비중은 평균 33.5%였으며, 20~40%미만 지출한다는 응답이 51.2%로 가장 많고, 40~60%미만이라는 응답도 24.3%에 달했다.
- ◆ 한국의 경우 생활비 중 총 양육비용 비율은 36.9%(최효미 외, 2019: 49)로 중국과 유사한 수준을 보임.



[그림 1] 생활비 지출 중 양육비 비중

주: 1,000명 응답 기준.

- 향후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우선적으로 줄일 지출로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가 22.7%로 가장 높았으며, 피복비와 교통/통신비가 각각 8.5%로 가장 낮음.
- ◆ 한국의 경우에도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가 64.2%로 가장 높아, 중국 부모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거나 한국 부모들이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에 응답한 절대 비중이 높았음.
- ◆ 한국 부모들이 여가문화생활비, 식비 등 소수 비목에 집중된 반면, 중국 부모들은 다양한 비목이 응답된 차이가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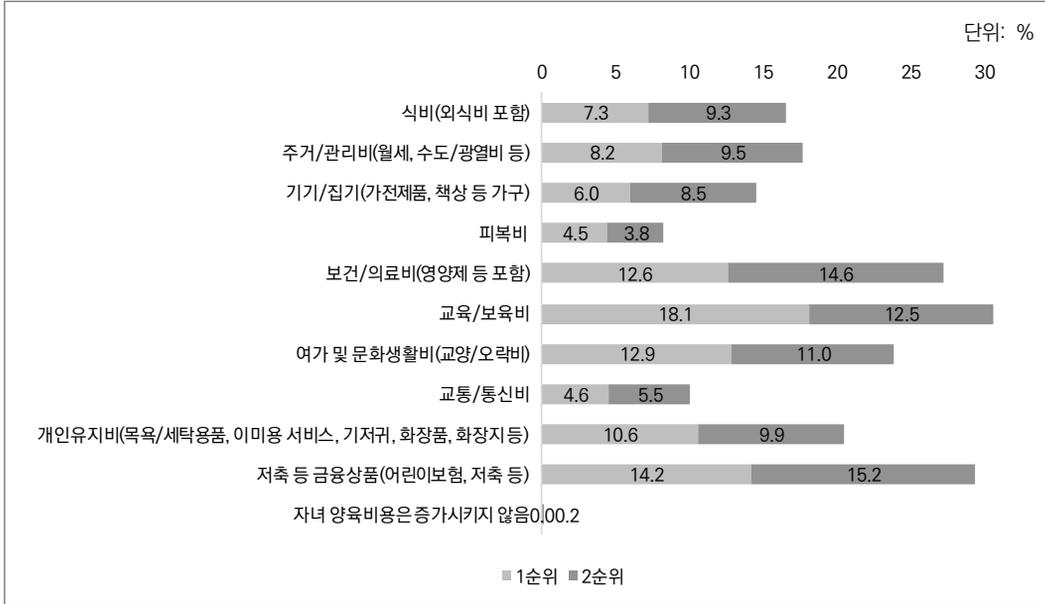
〈표 1〉 향후 양육비용 부담 증가 시 우선적으로 줄일 지출

단위: %, (명)

구분	중국			한국		
	1+2순위	1순위	2순위	1+2순위	1순위	2순위
식비(외식비 포함)	17.2	7.5	9.8	51.5	34.5	17.0
주거/관리비(월세, 수도/광열비 등)	14.8	8.0	6.9	3.6	1.3	2.3
기기/집기(가전제품, 책상 등 가구)	16.8	8.7	8.2	4.8	1.8	3.0
피복비	8.5	4.0	4.5	21.4	6.9	14.5
보건/의료비(영양제 등 포함)	15.5	8.5	7.1	1.5	0.5	1.0
교육/보육비	9.1	4.4	4.7	9.1	4.5	4.6
여가 및 문화생활비(교양/오락비)	22.7	10.9	11.9	64.2	35.9	28.3
교통/통신비	8.5	3.1	5.4	3.7	0.9	2.8
개인유지비(목욕/세탁용품, 이미용 서비스, 기저귀, 화장품, 화장지 등)	17.3	9.3	8.1	24.7	7.8	16.9
저축 등 금융상품(어린이보험, 저축 등)	19.0	9.6	9.5	9.4	4.1	5.3
주택 대출 등 원리금 상환	12.9	6.7	6.3	-	-	-
부모님 용돈 등 이전지출	16.1	8.4	7.8	3.8	1.1	2.7
기타 상품 서비스(주류/담배 등)	19.8	10.0	9.9	1.9	0.3	1.6
모름/무응답	0.9	0.9	-	-	0.3	-
(수)	-	(1,000)	(991)	-	(1,902)	(1,878)

주: 한국조사 결과의 경우, 응답 항목 중 '주택 대출 등 원리금 상환'이 없으므로 주의를 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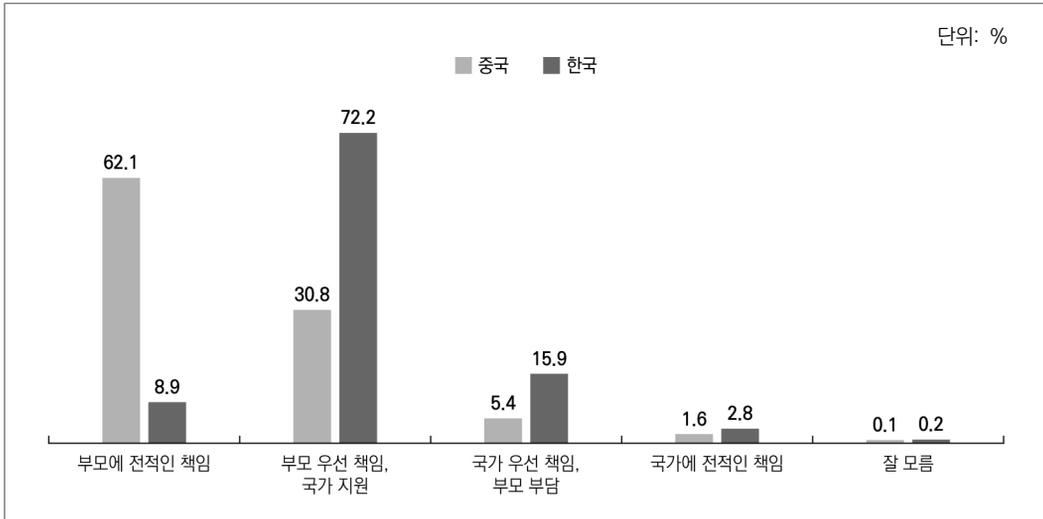
- 향후 추가 소득 발생 시 자녀 양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늘일 지출은 교육/보육비가 1+2순위 응답 기준 30.5%로 가장 높고, 저축 등 금융상품(어린이보험, 저축 등) 29.2%, 보건의료비 27.0% 순이었음.



[그림 2] 향후 추가 소득 발생 시 자녀 양육을 위해 우선적으로 늘일 지출(1+2순위)

주: 각 1,000명 응답 기준(중복응답)으로. 모름/무응답으로 인해 비중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

- 한편,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중국 부모들은 부모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응답이 62.1%로 매우 높고, 다음으로 부모가 우선 책임지고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30.8%였음.
- ◆ 한국의 경우에는 부모가 우선 책임지지만 국가가 지원해야한다는 응답이 72.2%로 가장 높고, 국가가 우선 책임지고 부모도 책임을 져야한다는 응답이 15.9%로, 중국 부모에 비해서 자녀 양육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3]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한중 비교

주: 중국은 1,000명, 한국은 3,091명 응답 기준.

자료: 박원순·김은영·박은영(2020).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V). 육아정책연구소. p.149.

### 3

## 중국 영유아 부모들의 육아용품 구매 행태

### 가. 전체 육아용품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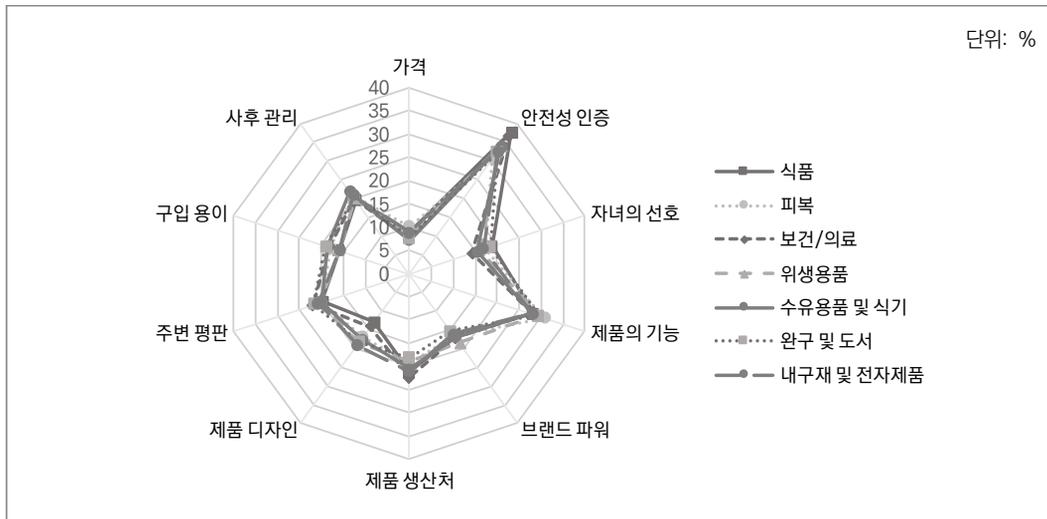
- 육아용품 구매 시 우선 고려사항은 제품군에 관계없이 안전성 인증이 우선 고려사항으로 응답되었음.
  - ◆ 특히 식품군과 보건/의료용품군의 경우에는 안전성 인증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응답이 각 37.6%, 36.6%로 매우 높았음.
  - ◆ 안전성 인증 다음으로 제품 구매 시 주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제품의 기능이 꼽힘.
  - ◆ 고려사항 중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가격으로, 전반적으로 10% 이하의 비중을 보였음.

〈표 2〉 제품군별 육아용품 구매 시 우선 고려사항(1+2순위, 중복응답)

단위: %, (명)

구분	식품	피복	보건/의료	위생용품	수유용품 및 식기	완구 및 도서	내구재 및 전자제품
가격	9.0	10.1	7.5	8.3	7.2	7.7	8.8
안전성 인증	37.6	30.7	36.6	33.9	34.0	32.3	32.6
자녀의 선호	18.8	17.2	14.3	16.1	15.5	18.5	16.9
제품의 기능	28.1	30.8	28.0	29.4	28.0	29.3	27.9
브랜드 파워	16.5	16.4	17.2	18.6	17.0	15.2	16.2
제품 생산처	21.3	19.3	22.4	18.8	20.5	18.2	21.2
제품 디자인	13.1	17.0	14.1	18.6	17.5	18.2	19.1
주변 평판	19.8	19.9	21.8	20.4	20.0	21.6	20.7
구입 용이	16.1	17.8	18.2	16.0	18.5	18.9	15.9
사후 관리	19.7	20.8	19.9	19.9	21.8	20.1	20.7
계 (수)	200.0 (2,000)						

주: 한국은 응답 항목 중 '주택 대출 등 원리금 상환'이 없으므로 주의를 요함.



〈그림 4〉 제품군별 육아용품 구매 시 우선 고려사항(1+2순위, 중복응답)

주: 각 1,000명 응답 기준(중복응답).

- 주된 육아용품 구입처는 모든 제품군에서 대형마트/백화점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전문 브랜드 매장으로, 여전히 오프라인 매장이 가장 주된 구입처임.
- ◆ 제품군별로 식품군은 다른 제품군에 비해 해외직구(14.7%) 비중이 높고, 피복은 육아용품전시/박람회(15.6%)를 통해 구입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위생용품은 온라인몰을 통한 구매가 14.2%로 비교적 높은 비중을 보임.

〈표 3〉 제품군별 육아용품 구입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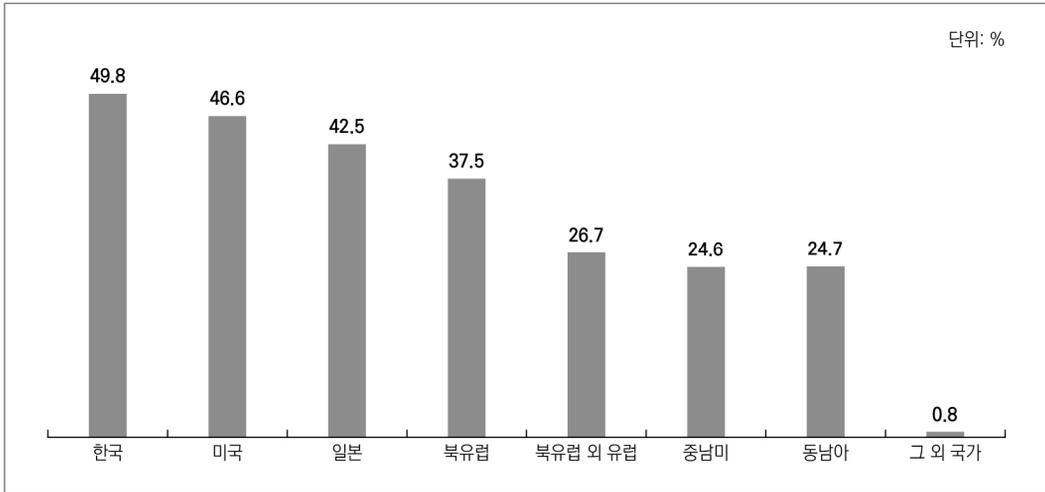
단위: %, (명)

구분	식품	피복	보건/의료	위생용품	수유용품 및 식기	완구 및 도서	내구재 및 전자제품
편집샵	3.4	3.6	3.5	5.9	4.0	4.0	4.6
대형마트/백화점	23.6	25.1	23.9	24.5	22.1	23.7	25.1
소형마트	6.7	7.3	7.6	6.6	7.0	8.6	7.0
재래시장	6.8	7.0	7.3	6.7	6.3	7.1	7.9
온라인몰	7.2	10.9	9.8	14.2	13.0	13.3	11.9
해외직구	14.7	9.2	11.6	11.0	12.4	8.7	7.3
육아용품전시/박람회	14.9	15.6	12.1	13.3	14.4	13.9	14.4
전문브랜드 매장	22.7	21.3	23.8	17.8	20.8	20.7	2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한국은 응답 항목 중 '주택 대출 등 원리금 상황'이 없으므로 주의를 요함.

#### 나. 수입 육아용품 이용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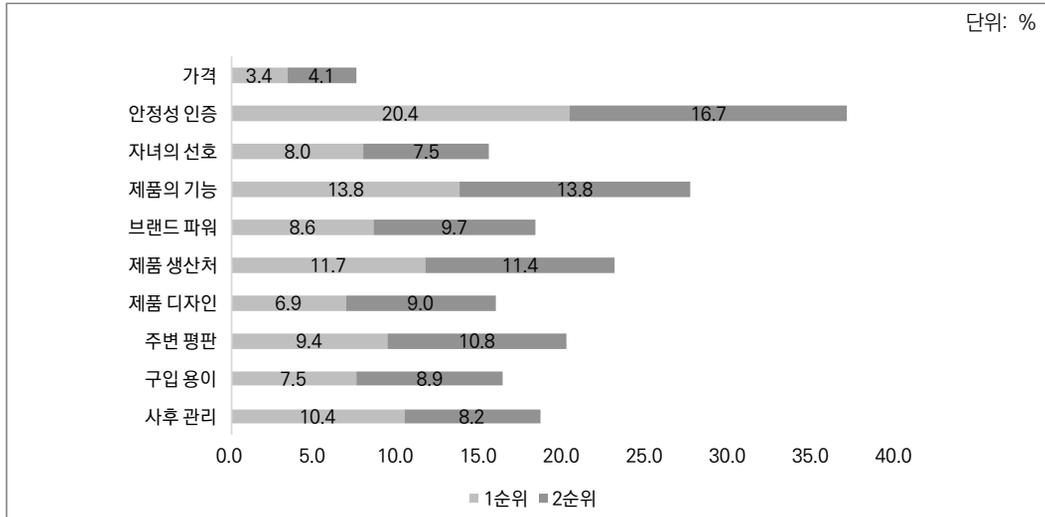
- 최근 5년 이내 수입 육아용품을 구입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96.6%로, 글로벌 제품 이용 경험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
- 수입 육아용품 원산지 중에서는 한국 용품을 구입했다는 응답이 49.8%로 가장 높고, 다음 미국 46.6%, 일본 42.5% 순이었음.



[그림 5] 수입 육아용품 구입 경험(최근 5년 이내)

주: 각 국가별로 제품을 구입한 적이 있다는 응답 비중으로, 각 1,000명 응답 기준(중복응답).

- 수입 육아용품 구입 시 우선 고려사항으로는 일반적인 육아용품 구입 시 우선 고려사항과 마찬가지로 안전성 인증이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힘.
  - ◆ 안전성 인증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응답은 1순위 응답에서 20.4%, 2순위 16.7%로 다른 항목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중을 보임.
  - ◆ 다음으로 1+2순위 기준 제품의 기능(27.6%), 제품 생산처(23.1%), 주변 평판(20.2%), 사후관리(18.6%) 순으로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응답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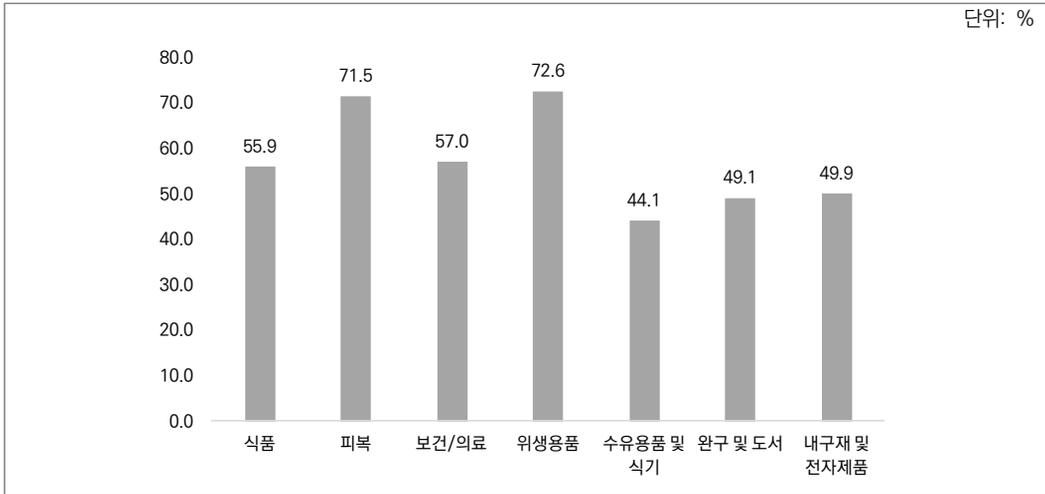


[그림 6] 수입 육아용품 구매 시 우선 고려사항 (1+2순위)

주: 각 966명 응답 기준(중복응답).

#### 다. 한국 육아용품 이용 경험

- 한국 육아용품을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은 제품군에 따라 44.1%~72.6%로, 비교적 높은 이용 경험을 보임.
  - ◆ 구매 경험이 가장 많은 한국 육아용품 제품군은 위생용품(72.6%)이었으며, 피복군(71.5%) 순이었음.
  - ◆ 반면, 수유용품 및 식기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4.1%로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보였으며, 완구 및 도서(49.1%), 내구재 및 전자제품(49.9%)도 비교적 이용 경험이 적은 제품군에 속함.
  - ◆ 표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품목별로는 아기용 목욕용품이 29.9%로 가장 많고, 침구 28.1%, 영유아용 간식 27.7%, 로션 오일 26.6%, 건강식품 25.4%, 물티슈 화장지 면봉 알코올 솜 24.3%, 비타민제 등 영양제 23.9%, 내의류 21.8% 순임.



[그림 기] 제품군별 한국 육아용품 구매 경험 비중

주: 각 1,000명 응답 기준(중복응답).

- 한국 육아용품 구입처 또한 일반적인 육아용품 구매처와 마찬가지로 대형마트/백화점 가장 주된 경로였음.
- ◆ 보건/의료용품군과 위생용품은 육아용품 전시/박람회보다 해외직구 비중이 높고, 나머지 제품군은 육아용품전시/박람회를 통한 구매가 두 번째로 높은 구매처였음.

<표 4> 한국 육아용품 구입처(구입 경험자 대상)

구분	구입처						
	식품	피복	보건/의료	위생용품	수유용품 및 식기	완구 및 도서	내구재 및 전자제품
편집샵	4.1	4.4	4.0	3.4	2.4	3.8	2.9
대형마트/ 백화점	31.2	29.1	22.6	26.9	26.4	28.4	27.5
소형마트	5.2	4.1	6.2	8.3	5.2	5.1	7.9
재래시장	5.9	3.8	6.2	6.6	6.6	7.2	8.3
온라인몰	11.2	12.5	11.3	13.8	12.3	15.7	11.7
해외직구	16.0	18.0	18.2	15.8	17.0	13.6	13.3
육아용품 전시/박람회	18.6	18.9	16.4	12.6	18.4	15.7	18.8
전문브랜드 매장	7.8	9.3	15.0	12.6	11.8	10.6	9.6
(수)	(269)	(344)	(274)	(349)	(212)	(236)	(240)

- 한국 육아용품 구매 시 정보 수집 경로는 인터넷/육아정보 사이트와 육아용품 전시/박람회, TV프로그램 등 방송매체 등이 주된 경로였음.
  - ◆ 보건/의료용품은 TV프로그램 등 방송매체를 통해 제품 정보를 얻었다는 응답이 40.1%로 가장 높았으며, 식품군은 인터넷/육아정보사이트(39.8%), 육아용품 전시/박람회(38.3%)에서 정보를 수집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음.
  - ◆ 수유용품 및 식기류는 인터넷/육아정보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얻었다는 응답이 45.3%로 매우 높았음.

〈표 5〉 한국 육아용품 구입 시 정보 수집 경로(1+2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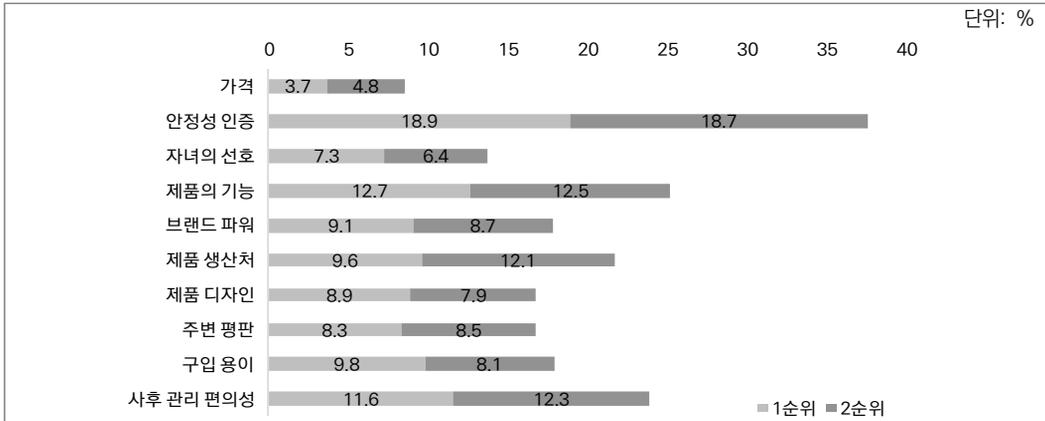
단위: %, (수)

구분	식품	피복	보건/의료	위생용품	수유용품 및 식기	완구 및 도서	내구재 및 전자제품
이웃/친구	24.2	19.8	27.7	22.6	25.5	22.0	22.1
부모님/가족	21.2	22.7	17.9	15.5	18.4	16.1	18.8
인터넷/육아정보사이트	39.8	39.0	39.8	37.8	45.3	36.0	36.3
신문/잡지	13.4	14.0	16.8	16.6	11.3	18.6	15.8
TV프로그램 등 방송매체	34.2	39.0	40.1	36.1	26.9	32.6	35.4
홍보 전단지	29.0	31.4	25.2	35.2	34.0	37.3	35.0
육아용품 전시/박람회	38.3	33.1	31.4	31.8	35.4	33.5	34.6
특별히 알아보지 않고 구입	-	-	0.4	1.7	0.5	0.8	0.4
기타	-	-	-	0.3	0.5	0.4	0.4
(수)	(269)	(344)	(274)	(349)	(212)	(236)	(240)

## 4 중국 영유아 부모들의 육아용품에 대한 선호 및 구매의사

### 가. 한국 육아용품에 대한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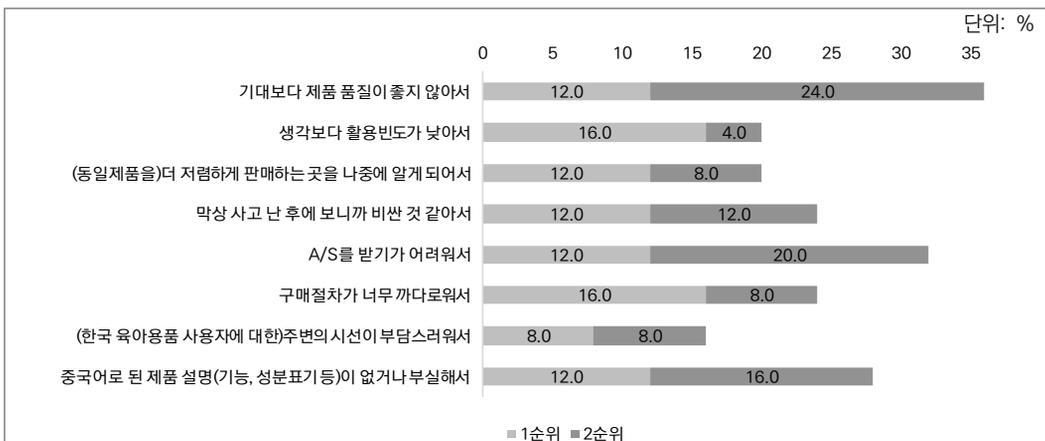
- 한국 육아용품을 구입한 이유(1+2순위)를 조사한 결과, 안전성 인증이 37.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제품의 기능이 25.2%, 사후관리의 편의성이 23.9%, 제품 생산처가 21.6% 순이었으며, 가격은 8.5%로 가장 낮았음.



[그림 8] 한국 유아용품 구입 이유

주: 각 481명 응답 기준(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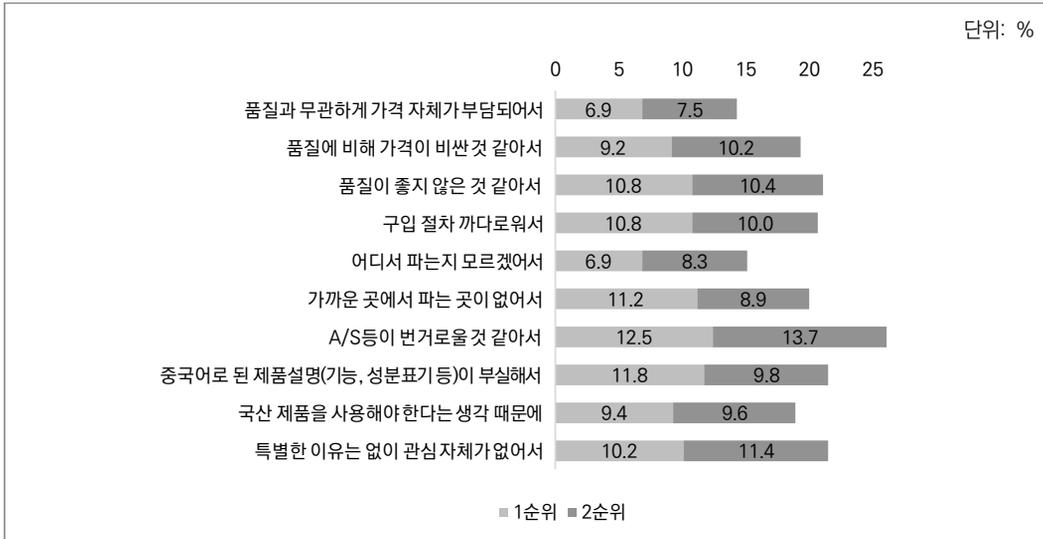
-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한국 유아용품에 대한 만족도(7점 척도)는 만족한다는 응답이 94.8%, 평균 5.9점으로 높은 수준을 보임.
- 한국 유아용품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N=25)한 경우, 그 이유(1+2순위)는 ‘기대보다 제품 품질이 좋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3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A/S를 받기가 어려워져서’가 32%, ‘중국어로 된 제품 설명(기능, 성분표기 등)이 없거나 부실해서’가 28% 순임.
- ◆ 단, 해당 문항에 응답자는 매우 적으므로 해석에 주의를 요함.



[그림 9] 한국 유아용품 불만족 이유

주: 각 25명 응답 기준(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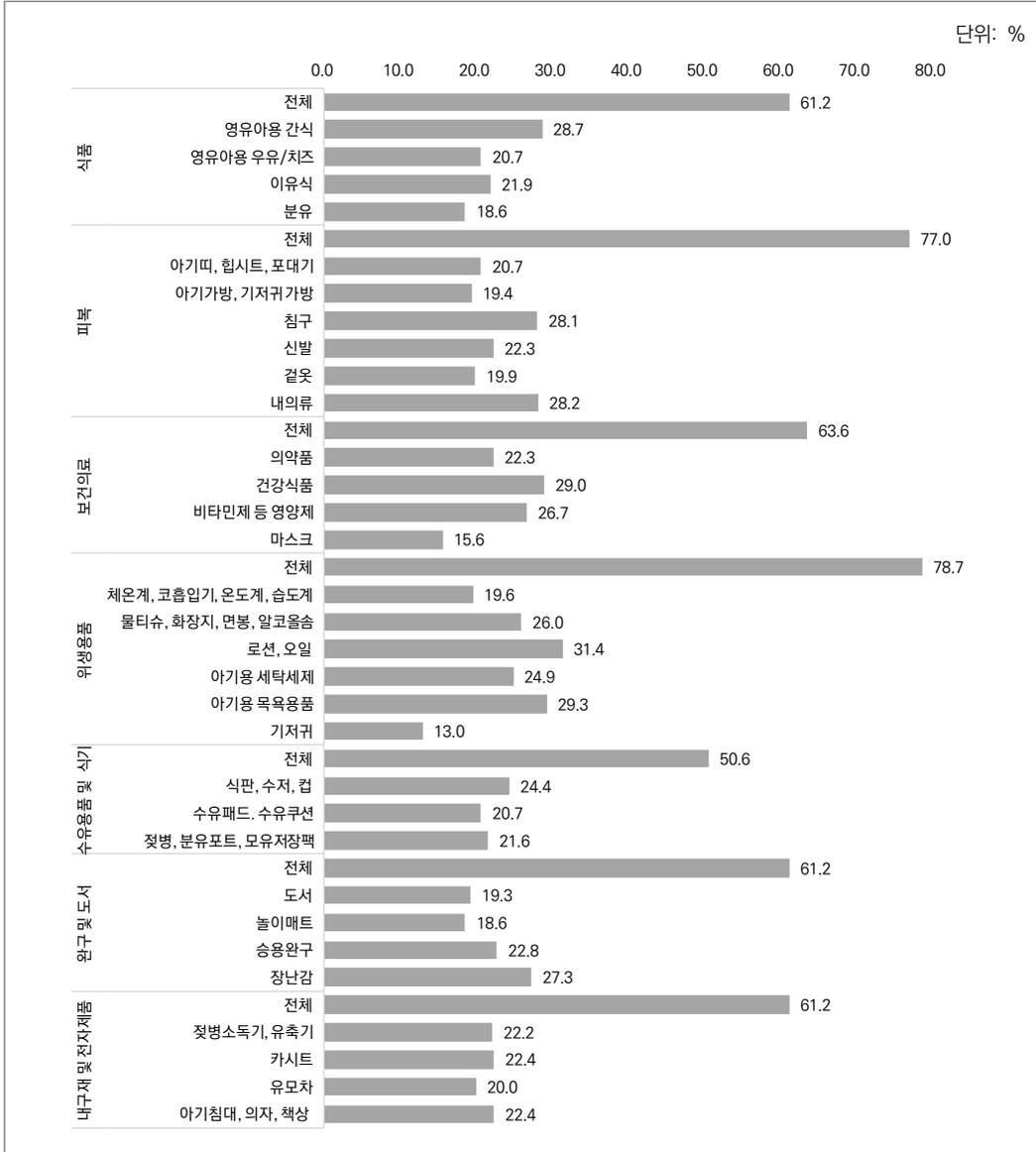
- 한국 육아용품을 구입한 적이 없다고 응답(N=519)한 경우, 그 이유(1+2순위)는 ‘A/S 등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가 2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국어로 된 제품설명(기능, 성분표기 등)이 부실해서’와 ‘특별한 이유는 없이 관심 자체가 없어서’가 각각 21.6%로 나타남.



[그림 10] 한국 육아용품 구입하지 않은 이유

#### 나. 한국 육아용품 향후 구입 의향

-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한국 육아용품을 구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입하겠다(아마도 구입+구입+반드시 구입)는 응답이 78.4%에 달함.
- 향후 한국 육아용품 구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구입을 원하는 품목은 제품군 별로는 위생용품이 78.7%로 가장 높았음.
  - ◆ 구입희망 수요가 가장 낮은 품목은 수유 용품 및 식기로 50.6%였음.
  - ◆ 위생용품 중에서 품목별로 로션/오일 구입 의향이 31.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아기용 목욕용품이 29.3%, 물티슈, 화장지, 면봉, 알코올 솜이 26%였으며, 기저귀가 13%로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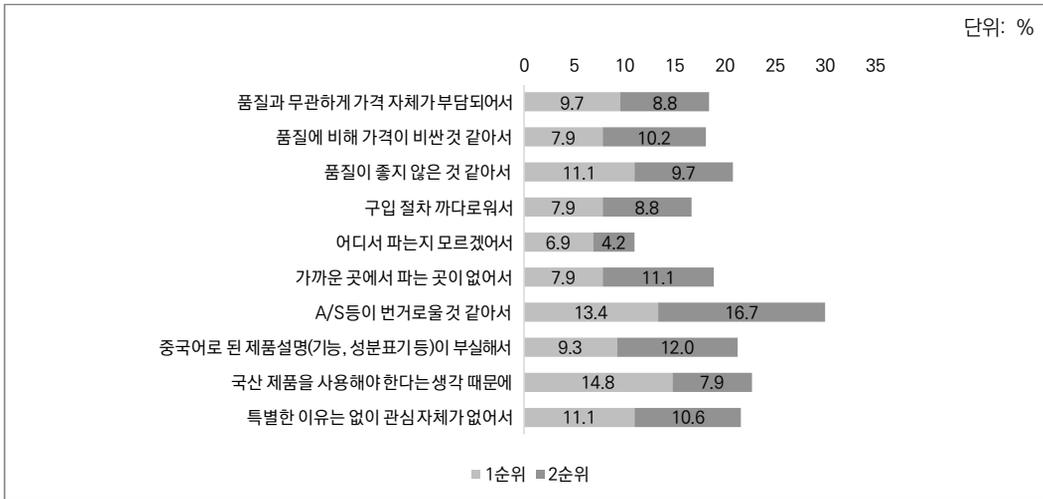


[그림 11] 향후 한국 육아용품 구입 희망(품목별)

주: 각 784명 응답 기준(중복응답).

- 표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향후 한국 육아용품을 구입하려는 이유(1+2순위)로는 실제 구입 사유와 유사하게 안전성 인증 표시가 33.9%로 가장 높았고, 가격이 6.5%로 가장 낮았음.

- ◆ 향후 한국 육아용품 구입처(1+2순위)를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 백화점이 40.3%로 가장 높았고, 편집숍이 8.9%로 가장 낮았음.
- 한국 육아용품의 구매 의향이 없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질문(1+2순위)한 결과, 'A/S등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가 30.1%로 가장 높았고, '어디서 파는지 모르겠어서'가 11.1%로 가장 낮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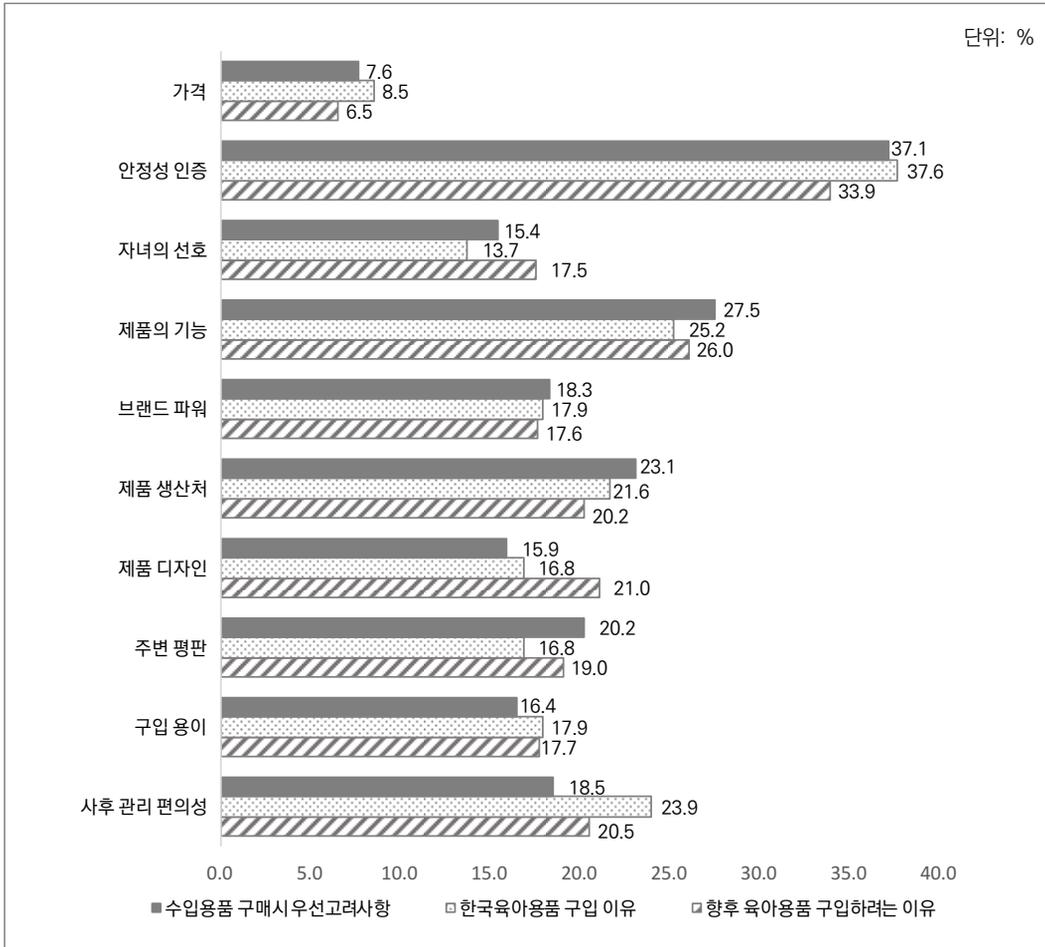


[그림 12] 향후 한국 육아용품 구입하고 싶지 않은 이유

주: 각 216명 응답 기준(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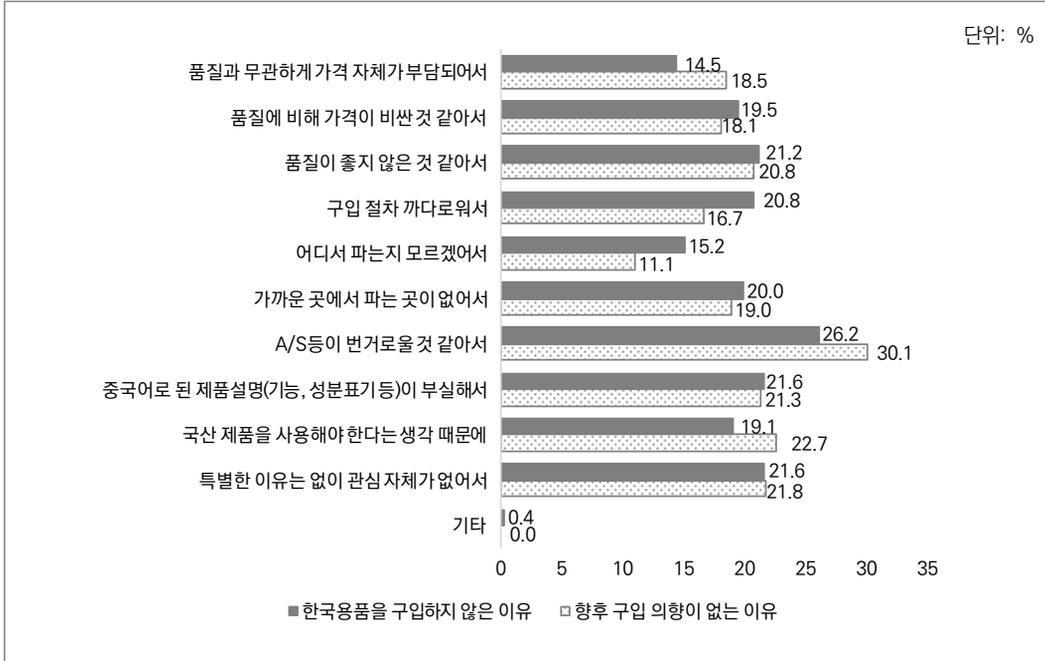
#### 다. 한국 육아용품에 대한 선호 비교

- 수입용품 구매 시 우선 고려사항, 한국 육아용품 구입 이유, 향후 한국 육아용품 구입 이유를 비교하면, 전반적으로 안전성 인증에 대한 고려가 가장 높았음.
- 한국 육아용품 구입 경험이 없거나 구입 의사가 없는 경우, 한국 육아품을 선호하지 않는 이유로 'A/S등이 번거로울 것 같아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0.1%, 26.1%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3] 한국 육아용품 구입 사유 및 비선호 사유

주: 1+2순위 응답 기준으로, 수입용품 구매 시 우선 고려는 1,932명, 한국 육아용품 구입 사유 962명, 향후 육아용품 구입이유 1,568명 대상 분석임.



[그림 14] 한국 육아용품 비선호 사유

주: 한국 육아용품을 구입하지 않은 이유 1,038명, 향후 구입의사가 없는 경우 432명 대상 분석임.

## 5 정책적 시사점

- 중국 영유아 부모들은 한국 부모들과 마찬가지로 높은 양육비용 투자 비율을 보일 뿐 아니라, 자녀 양육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 중국 육아용품 시장 개척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요구됨.
- ◆ 중국 영유아 부모들은 수입 육아용품 경험이 높고, 특히 한국 육아용품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한국 육아용품 구입 의사 또한 높은 편에 속함.
- ◆ 한국의 육아용품 시장은 저출산 현상의 심화 등으로 시장의 확장이 용이치 않은 상황으로,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요구됨.

- 제품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국제 표준 인증 획득 지원 및 중국 인증 제도 변화에 대한 시의적절한 정보 제공이 요구됨.
  - ◆ 중국 영유아 부모들은 육아용품 구매 시 안전성 인증과 제품 기능 등을 매우 중요시 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수입 육아용품 및 한국 육아용품 구입 시에도 공히 적용 되는 사안임.
  - ◆ 제품의 안정성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제표준인증의 획득을 지원 할 필요성이 높음.
  - ◆ 멜라닌 우유 파동 등 육아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최근 중국의 제품 안전성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이며, 중국 수출 규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중국의 제품 안전성 기준에 맞춘 제품의 개발이 요구됨. 이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중국의 제품 안전성 인증 기준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유관 기업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보 제공 노력이 요구됨.
- 육아용품 주요 구매처는 여전히 오프라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제품을 직접 보고 구매 할 수 있는 판매 경로의 개척이 필요함.
  - ◆ 여전히 오프라인 채널이 주된 구매 경로인 점을 감안할 때, 육아박람회 및 한국 육아용품 체험관 등을 통해 다양한 한국 육아용품의 중국 내 제품 판매 경로를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임.
  - ◆ 단, 제품 구매처는 오프라인이 많지만 제품에 대한 정보 인지는 온라인 통해 많이 이뤄 지는 만큼 중국 주요 육아 관련 사이트 등을 통한 제품 홍보 지원도 필요해 보임.
- 육아용품 공동 A/S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을 고려해 보아야 함.
  - ◆ 한국 육아용품 비구매 사유 혹은 구입할 의향이 없는 이유 중 제품 사후관리(A/S)를 받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응답이 매우 높음.
  - ◆ 규모가 크지 않은 한국 육아용품 기업이 제품별로 중국의 지역마다 A/S 센터를 설치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바, 한국 육아용품 공동 A/S 센터를 설치 운영 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 공동 A/S센터는 단순한 제품의 수리 뿐 아니라, 제품 사용에 대한 안내 등을 포함하여 중국 현지인들이 쉽게 제품에 대해 문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 하게 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임.

## I 참고 문헌 I

- 박원순·김은영·박은영(2020). 행복한 육아문화 정착을 위한 KICCE 육아정책 여론조사(IV). 육아정책연구소.
- 비티타임즈(2018). 육아트렌드와 영유아용품 산업분석보고서.
- 연합뉴스(2021. 8. 22 보도), 중국, 세자녀 정책 정식입법...“출산 제한 → 장려전환”,  
<https://www.yna.co.kr/view/AKR20210822023200083> (인출일 : 2021. 12. 6).
- 최효미·장혜원·김태우·고영우(2019).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 최효미·최은영·박은영·권일숙·정상은(2020). 중국의 육아 소비문화와 한국 엔젤산업의 대응전략: 육아용품을 중심으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육아정책연구소.
- CBBC(China-Britain Business Council)(2019). Mother & Baby Sector Insight 2019. CBBC Research.
- KOTRA(2019). 중국 엔젤시장 동향 및 진출전략: 20개 주요품목 중심으로.

2021년 이슈페이퍼 모음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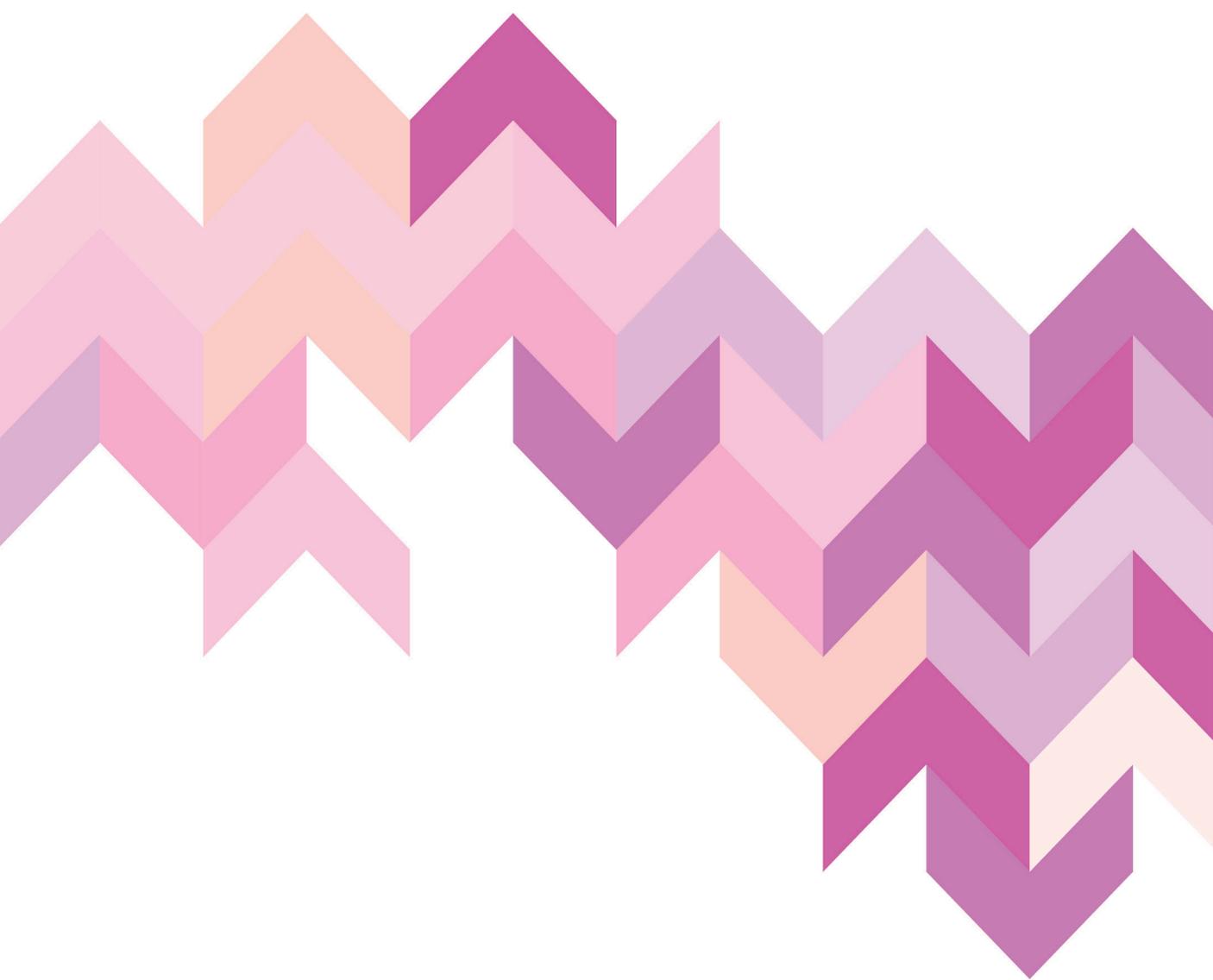
## 2021 KICCE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발행일 | 2021년 12월  
발행인 | 박상희  
발행처 | 육아정책연구소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전화 | (02) 398-7700  
팩스 | (02) 398-7798  
홈페이지 | <http://www.kicce.re.kr>  
인쇄처 | 경성문화사 (02) 786-2999

※ 이 책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2021 KICCE

## 육아지원정책 현안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 70 9층  
| TEL 02)398-7700 | FAX 02)398-7798 | <http://www.kicce.re.kr>